현대불교

제 781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음력 3월 15일 · 불기 2554년 · 주간)





5년 걸쳐 이룬 종교자유

대법원 "종교교육 강제 안돼"… 종평위 · 종자연 환영

사립학교 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 당했던 강의석(24)씨가 대광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22일 강제 배정된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이 위법해 대광고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서울시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심 재판부는 "대광고가 특정 종교 교리를 전파하는 행사에 불참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줘 신앙이 없는 강씨에게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다. 수차례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행사를 반복한 것은 강씨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경 · 손안식)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는 23일과 22일 환영 논평을 내고 사립학교에서 강제적인 종교행위가 근절될 것을 기대했다.

2004년 기독교계인 서울 대광고를 다니던 강의석씨는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하자 학교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신앙적 자유가 학교의 종교교육보다 우선하는 만큼 학교 측이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는 종교를 바탕으로 한 대안교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강의석씨는 기자회견에서 "당연한 판결을 얻는데 5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며 "판결 손해배상액 1500만원은 학교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3면]

이날 자리를 함께한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이번 승소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교육평준화 정책이후 이루어졌던 반(反)교육 · 인권 · 종교적 행위들이 이제 마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의 교내 후원자인 前 대광고 교목 류상태 목사는 "강씨가 요구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선택권'이었다. 학교의 기독교 교육할 권리를 존중하되 학생에게는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도 있으니 그것을 인정해달라는 선택권에 대한 요구였다"고 말했다.

이어 류 목사는 "이 사건은 첨부터 아주 쉽고 명쾌한 문제였다. 대법원에서는 오늘 그것을 정리해줬다. 양쪽의 권리가 다 충족되면 된다. 학교는 종교교육 하면 된다. 학생은 강요받지 않으면 된다. 선택권만 주면 된다. 이것이 강씨가 주장한 핵심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개신교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기독교학교후원회 김영태 회장은 "미션스쿨 설립자에게는 학교를 세운 목적과 철학이 있는데 설립 당시 국가가 허락했으면 그 목적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강씨처럼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일부 학생은 배정을 다시 받아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어야지 학교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5년간 끌어온 '종교자유'를 둘러싼 문제가 판결됨에 따라 종립학교들은 종교교육을 시행할 경우 거부 학생들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립학교인 광동중 · 고교 교법사 혜정 스님은 "청소년에게 학교가 특정종교에 대해 지나친 강요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립학교는 자신의 건학이념을 강제하고 싶어하지만 종교행위는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교법사와 교직자들의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는 사찰음식 향연 보은 법주사(주지 노현)는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와 함께 4월 23일 경내에서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 불교문화 대향연 '나눔의 법(法) 사찰음식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기념하고, 전통음식문화의 현대화, 사회화에 이바지 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범종 108타 참회기도와 법고 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사진은 불자들이 출품된 사찰음식을 시식하고 있는 모습. 박재완 기자

조계종 교육기관 구조조정 한다

4월 30일 · 5월 4일… 기본교육기관 · 교과과정 개편안 공청회

승가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 개편과 기본 · 전문교육기관 조정을 위한 공청회가 4월 30일과 5월 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4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청회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기조연설과 교과과정 · 교육기관 조정 개편안 설명, 지정 ·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4월 30일 오후 2시 열리는 '승가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는 보광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일귀 스님(송광사승가대학장) 법진 스님(해인사승가대학장)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은광 스님(운문사승가대학 교수) 윤창화 대표(민족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5월 4일 오후 2시 개최될 '승가 기본교육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조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는 성관 스님(동국대 상임이사), 원정 스님(중앙승가대 동문회장),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 주경 스님(중앙종회의원), 견성 스님(동학사 주지), 기본선원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교육원이 미리 의도를 갖고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기관 조정 개편(안)은 공청회 당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현재 기본교육기관 중 11곳의 정원이 미달돼 어떤 형태로든 기본교육기관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교육원 측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교육원 측은 교구본사별 기본교육기관을 광역별로 묶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승격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소통과 화합 이웃과 함께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봉축행사 발표… 부산 내달 7일 점등식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봉축위) 박상희 팀장은 4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담회를 통해 불기255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봉축행사 일정 2면]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봉축표어처럼 사회에 만연된 갈등과 고통을 소통과 화합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봉축행사는 △소통과 화합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자비나눔으로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젊은 층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가는 부처님오신날 △세계인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로 나뉘어 주요행사 11개 부대행사 30여 개가 마련됐다.

#9일 어울림마당, 16일 연등축제

올해 봉축행사는 음력 3월 초하루인 4월 14일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이 조계종 전국 사찰에서 봉행한 저소득 · 소외계층 위한 108배 모금법회와 20~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불교꽃예술전, 27일 시청앞 광장에서 점등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이어 5월 9일 장충체육관에서 어울림마당이, 15일 조계사 앞길에서 연등놀이, 16일 동국대-조계사에서 화합한마당, 연등행진, 회향한마당이, 부처님오신날에는 조계사 등 전국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한다.

올해 연등축제는 지난해 장충체육관과 동국대 운동장에서 같은 날 분리해 진행됐던 행사를 9일과 16일로 나눠 열린다.

봉축위 박상희 팀장은 "행사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에는 동국대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국대 운동장에 모이는 각 사찰별 대중은 350명, 연희단 50명, 율동단 20명으로 제한된다. 동국대 운동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중은 종로 등 연등행렬 코스에 분산 배치돼 곳곳에서 축제 분위기를 북돋게 된다.

봉축의 꽃인 연등 전시는 3~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6~23일 청계천, 14~23일 봉은사, 17~23일 종각 · 광화문에서 진행된다.

봉축행사와 함께 자비의 손길도 펼쳐진다. 봉축위는 동국대 · 서울대병원 등 병원법당에서 환자와 병실에 컵등을 전달한다. 조계종 포교사단 어린이팀은 4월 30일과 5월 2일 동국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건국대병원에서 어린이날을 위한 환우잔치마당을, 조계종중앙신도회는 4월 27~30일 인사동 일대에서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달기 행사를 펼친다.

#100여 지역서도 행사 다채

부산, 대구 등 전국 100여 지역에서도 다채로운 봉축행사가 열린다.

부산봉축위는 5월 7일 오후 6시 부산역광장 점등식을 시작으로 12일 오후 3시 사직운동장에서 부산 벡스코까지 장엄등 카퍼레이드를 펼친다. 14~15일 광복로에서는 문화한마당, 16일 오후 2시부터 어울림마당, 구덕운동장에서 봉축연합대법회가 봉행된다.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 구덕운동장→대청로→부산역까지 제등행진을 한다.

대전봉축위는 15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연등축제 체험마당, 점등식과 봉축법요식, 제등행진을 펼친다. 이에 앞서 4월 27일 오후 7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불교연합합창제를 개최한다. **조동섭 기자**

▶2 법정 스님-28일 49재 ▶14 선지식-종후 스님 ▶4 인터뷰-담교 스님 ▶9 현장-승가원 나들이

바로잡습니다 780호(4.21일자) 1면 '우리는 모두 예비 장애인' 기사중 '승가원(이사장 성관)'을 '승가원(이사장 태원)'으로 바로잡습니다.

광고는 따로
갔습니다~
^^

1974년 1월
-어떤 沒知覺者의 노래-　法頂

4
정월 초이틀
얼어붙은 추위 속에
또 누가 나를 부르는가
非常高等 軍法會議
檢察部
염라청의 使者처럼
召喚狀을 내미는 가족 잠바 들
나는 또 검은 코로나의 신세를 진다
(중략)

7
실려 갔다가
내발로 휘적휘적 돌아오는 길은
새삼스레
人間事가 서글퍼지네
기는 것은 짐승이요
똑바로 서서 걷는 것은 사람이라고
人類文化史에는 똑똑히 박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무엇인가
이러고도 사람이라 불릴 수 있을까
거죽만 사람인 人非人, 人非人
기어 다니는 짐승들 보기가 부끄럽네.

연탄불이 꺼진 썰렁한 방안
그건
우리 時代
이 地域의 氣溫
나는 춥고 억울해서
오들 오들 떤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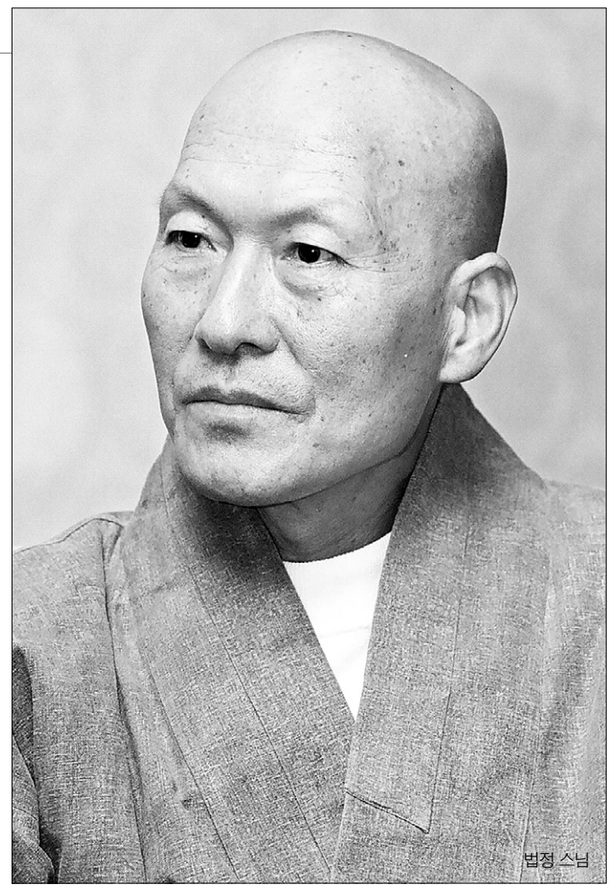
8
우리는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一部 몰지각한 者
大韓民國 住民 3천 5백만
다들 말짱한 知覺을 지녔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知覺을 잃었는가.
아, 이가 아린다
어금니가 아린다
입을 가지고도 말을 못하니
이가 아리는가
들어줄 귀가 없어 입을 다무니
이가 아리는가
오늘도 나는 부질없이
齒科醫院을 찾아 나선다
흔들리는 그 계단을 오르내린다.

'1974년 1월'은 법정 스님께서 유신철폐 운동 당시의 심경을 읊으신 8장 174행의 장시로 〈씨알의 소리〉 1975년 1 · 2월호에 개재됐다. 35년 전 최정희(前 본지 편집국장)씨가 노트에 옮긴 것을 발췌했다.

가슴에 되새기는 '영혼의 모음'

법정 스님을 기리며

-최정희 前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법정 스님

법정 스님은 수식어가 필요 없는 '비구'이셨다.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길상사를 떠나시던 날, 스님 법구 앞에 선 '비구 법정'이란 위패는 간단명료했다. 생전의 스님처럼. 평상에 누우셔서 가사만을 덮으신 스님의 법구는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무언의 설법이었다. 남아있는 이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뜻도 있으셨겠지만 '군더더기, 군더더기, 몸과 마음에 군더더기를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일러 주시는 것 같았다.

나는 떠올렸다.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아마 그분들도 법정 스님처럼 그렇게 가셨을 것 같다. 금년 1월 조계사 경내 불교중앙박물관 '석굴암 백년의 빛' 전시에서 나는 부처님 10대 제자 사진을 보는 순간 "법정 스님"이라고 말해 주위 시선을 끈 일이 있다. 아마 스님의 저서 <말과 침묵>(초판본) 표지에 실린 석굴암 10대 제자 중 한 분의 존자님 사진이 눈에 익어서 그랬나 보다. 그 책 표지의 존자님 모습이 법정 스님과 많이 흡사했다. 어쩌면 부처님 제자 중의 한 분이 대한민국에 법정 스님으로 오셨는지도 모른다. 법정 스님은 철저하게 비구이셨다.

스승은 찾아 헤맬 때 만난다

1973년 1월, 나는 일간신문에서 법정 스님의 저서 <영혼의 모음> 기사를 읽었다. 내 친구가 먼저 그 책을 샀기에 나는 빌려 읽게 되었다. 그 책을 빌려 읽던 나는 노트에 <영혼의 모음>을 옮겨 쓰기 시작했다. 그 책을 옮겨 쓰는 동안 나는 많이 설레었다. 책과 마주하기 전 설레었고, 마주하면 마주했기에 설레었다. 책을 옮겨 쓸 때는 늘 손을 깨끗이 씻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그것은 사경하는 마음이었다.

그해 4월 1일 오후, 친구와 나는 봉은사 다래헌에서 스님을 뵈었다. 그날 난생 처음 녹차를 마셨다. '러브스토리'와 '월광곡'도 들었다. 이렇게 다래헌에 신고식을 한 친구와 나는 수시로 다래헌에 가서 마음을 씻었다.

같은 해 6월 10일, 나는 <영혼의 모음>을 옮겨 쓴 노트를 스님께 보여 드렸다. 스님께서는 웃으셨다. 그리고는 그 노트에 '讚. 허허, 참 별 일도 있네. 어쨌든-. 극성쟁이 만세!'라고 사인과 함께 써주셨다. 즐겨 쓰시던 낙관과 전각도 찍어 주셨다.

"스승은 우연히 만나지지 않는다. 찾아 헤맬 때 내 앞에 나타난다"

스님께서 외국어대 불교학생회 창립 4주년 기념강연에서 하신 말씀처럼 나는 내 인생의 큰스승을 만났다. 어찌 큰 복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자주 떠올리는 스님의 가르침이 있다. '너무 일찍 나왔군'이다. <영혼의 모음>에 있는 이 글의 내용은 이렇다.

"배를 타고 봉은사에 오가던 시절, 뚝섬나루의 나룻배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람, 자동차, 수레 등 적재량이 차야 움직인다. 시간 예측을 할 수 없어 허겁지겁 강변에 다다르면 한 걸음 앞서 배가 떠나고 있거나 저쪽 기슭에 매달린 채 부동자세다.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다. 조금 늦을 때마다 '너무 일찍 나왔군' 하고 스스로 달래는 것이다. 다음 배편이 내 차례인데 미리 나왔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버스나 전철을 타러 갔을 때 한 발 늦어 차를 놓칠 때가 종종 있다. 특히 출근시간이나 약속시간이 빠듯해서 숨차게 달려갔는데 떠나는 차의 뒷모습을 볼 때 몹시 아쉽다. '조금 일찍 나올 걸' 후회하다가 생각을 돌린다. '너무 일찍 나왔군'으로.

스님께서는 '너무 일찍 나왔군'을 이렇게 마무리하셨다.

"아름다운 장미꽃에 하필이면 가시가 돋쳤을까 생각하면 짜증이 난다.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에서 저토록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났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싶을 것이다."

다래헌 오솔길의 향기

봉은사 경내에서 다래헌으로 들어가는 오솔길은 고즈넉했다. 숲은 향기로웠고 산비둘기가 울었다. 다래헌 나무 울타리 앞에 다다르면 오른쪽으로 옹달샘 약수가 있었고, 샘물은 연못으로 흘러들었다. 연못에는 금붕어와 수련이 있었다. 스님은 금붕어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대화하셨고, 수련을 제복 입은 수녀님들에 비유하기도 하셨다. 다래헌은 단청을 하지 않았다.

다래헌 마당 꽃밭에는 꽃나무가 많았다. 스님은 패랭이꽃을 좋아하셨다. 여름이면 합창하듯 패랭이꽃이 피었다. 어느 날 내 허리쯤 올라온 꽃에 코를 대고 향기를 맡으려 하자 스님께서 옆에서 보시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하는 것도 훔치는 마음"이라고 일러 주셨다. 지금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꽃송이를 코에 대고 향기를 탐하다가 퍼뜩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경책한다. 주지 않는 것을 탐하는 것이 어디 꽃향기뿐이겠는가.

향기로웠던 다래헌 숲에 향기롭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유신철폐 운동을 하시는 스님을 감시하는 눈이었다.

1975년 스님은 송광사 불일암으로 내려 가셨고, 나는 불교신문(당시 대한불교) 기자로 입사했다. 그 후 다래헌에 간 일이 없었다. 10여 년 전 봉은사에 갔다가 다래헌에 가보았다. 연못도 옹달샘도 안 보였고 다래헌의 옛 분위기는 간 데 없었다.

대비(大悲)는 자비 보살의 본질

스님께서는 불교신문 주필을 오래 하지 않으셨다. 종단이 원하는 기관지보다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사상을 전하는 기획 연재 또는 비판의 글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사설과 천수천안 등은 무기명 칼럼이었지만 스님의 글을 찾아 읽는 것은 독자로서 기쁨이었다.

지혜제일의 사리불존자 같으셨던 법정 스님. 그러나 스님은 대중들에게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귀의하고 실천할 것을 일깨워 주셨다. 스님은 오래 전 '관세음의 노래'를 작사하신 일이 있다. 가사를 다 기억 못하지만 이런 구절이 있다.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오니…
나무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길상사 경내에도 조금은 슬픈 듯한 백의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다. 왜 슬픈 듯한 모습일까. 슬픈 중생들을 다 어루만져 거두어 주시려는 대비원력(大悲願力)을 지니셨기 때문이 아닐까.

스님은 자비를 말씀하실 때 대비(大悲)를 강조하셨다.

'보살의 병은 대비(大悲)로부터 생긴 것이다'라는 유마힐의 말처럼 '悲는 남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함께 신음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대비는 자비보살의 본질적 생리라는 것이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法頂-

스님이 제창하신 '맑고 향기롭게'는 지혜와 자비의 두 기둥을 세워 지혜로워지고(상구보리) 자비로워져서(하화중생) 부처님 되는 길을 가자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주말이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를 찾는 이들이 마치 성지순례하듯 모여든다고 한다. 불교계는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4월 28일은 법정 스님의 49재일이다.

'육신을 버린 후에는 훨훨 날아서 어린왕자가 사는 별나라에 가보고 싶다'고 하신 스님.

"스님, 다녀오셨습니까. 다시 우리 곁에 오셔서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 또 주십시오. <영혼의 모음>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일시	행사	장소
4월 27일 19시	시청앞 점등식	시청앞 광장
4월 28일 19시30분	니르바나 정기연주회 '칸타타 담마파다'	KBS홀
5월 1~2일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정진기도	조계사
	희귀병환자와 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	육지장사
5월 2일 13시	어린이 연꽃노래잔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공연장
5월 3~23일	연등 장엄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1층로비
5월 3~6월 6일	제4회 청소년 디지털사진 공모전/사진전시회	CBL갤러리,조계사,도선사,봉은사
5월 5일	불교문화체험 한마당	인사동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대회	목아불교박물관
5월6~23일	청계천 등전시회	청계천
5월 8~16일	연극 아버지의 가수	동국대이해랑예술극장
5월 8일	어린이합창제 연꽃나라,연꽃들의 합창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5월 9일 14시	어울림마당/자비나눔 모금행사	장충체육관
5월 11일 19시	제2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공연장
5월 12일	자비의 선물(독거노인, 군장병, 재소자, 군종교구)	조계사
5월 13일~6월 13일	석가탑 사리 장엄구 특별전	불교중앙박물관
5월 14~23일	전통등전시회	봉은사
5월 15일 19시	연등놀이	조계사 앞길
5월 16일 12시	연등축제 불교문화마당	조계사 앞길
12시	공연마당	조계사 앞길
13시	전국웅변대회	광명사
14시	외국인 등만들기 대회	조계사 앞길
16시	화합한마당	동국대 운동장
17시	청소년음악놀이페스티벌	우정국로야외무대
18시	연등행렬	동국대 → 조계사 앞
21시30분	회향한마당(종각 등전시)	종각사거리(보신각 앞)
5월 17~23일	광화문 등전시	광화문광장시민열린마당
5월 21일 10시	봉축법요식	조계사, 전국 사암

봉축위원회	행사명	일시	장소
제2교구본사 용주사	남한산성 경기도 봉축점등식		남한산성
	제1회 2교구 어린이 찬불가 율동제		호행교육원
	점등식, 연등축제		만석공원
	다문화가정 초청행사		효행교육원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용주사 대웅전
제 3교구 신흥사	점등식	4월 30일	소방서 앞 전광탑
	동자승 수계식	5월	신흥사 극락보전
	제등행렬	5월15일	엑스포광장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1일	각 사암
제4교구본사 월정사	함께 나누기		군 · 재소자 · 불우이웃 등
	어린이 출가체험		단기출가학교
	연등축제		진부시내
	행복등 밝히기, 연등빛 행진		월정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월정사 대웅전
	오대산 전국디지털 사진공모전		오대산
	오대산 천년의숲 걷기대회		
제5교구본사 법주사	어르신 잔치 한마당	4월 21일	보은국민체육센터
	사찰음식 페스티벌	4월 23일	법주사 경내
	충북도민 안녕 기원법회	5월 9일	용화사앞 무심천변
	보은 유등문화축제 및 제등행진	5월 16일	보은읍 시가지, 보정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1일	법주사 대웅전
제6교구본사 마곡사	신록축제	5월 1일~2일	마곡사
	봉축 전통등 전시	5월 1일~21일	마곡사 경내
	봉축제등행사	5월14일	공주고,공주시내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1일	각 사암
제9교구본사 동화사	봉축대법회	5월 21일	동화사 대웅전
	만등 점등식 및 탑돌이		동화사대웅전→금당선원
	장엄등 전시회	5월 15일~22일	동화사 설법전 앞
	봉축전시회 '행복의수레를 끄는아이"	5월 16일~23일	동화사 설법전
	팔공산 올레	5월 16일	동화사봉황문→염불암
	봉축음악회 & 전통체험마당	5월 21일	동화사 봉서루 앞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1일	각 사암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영천사암연합회 봉축 점등식	5월 8일	영천금호강 둔치
	(천안함희생자합동위령제 점등식)		
	영천 경찰서 봉축탑 점등식	5월 10일	영천 경찰서
	군위사암연합회봉축탑점등식	5월 11일	군위광장
	경산 경찰서 봉축탑 점등식	5월 12일	경산 경찰서
	경산사암연합회 봉축탑 점등식	5월 14일	경산남천 둔치
	봉축위문 및 법회	4월 26일~5월 16일	군부대, 교도소 등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1일	은해사 대웅전
제11교구본사 불국사	봉축탑 점등식	5월 11일	경주역 앞
	봉축법요식,예술제,탑돌이	5월 21일	범영루, 대웅전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산사음악회, 차경연대회	5월 2일	쌍계사 경내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1일	각 사암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점등식	5월 14일	범어사 대웅전
	봉축 전야제	5월 20일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1일	각 사암

봉축위원회	행사명	일시	장소
제16교구본사 고운사	봉축 전야제	5월 20일	고운사 대웅보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1일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점등축제	5월 7일	구례경찰서 앞 로터리
	다문화가족 및 사암련 신도대표 서울연등축제 관람	5월 16일	서울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1일	각 사암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점등식	4월 20일	해남군민광장
	봉축법요식 / 연등축제	5월 14일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1일	각 사암
제23교구본사 관음사	봉축전야제,점등식	5월 20일	관음사
	봉축행사(법요식,관불의식,장학금전달)	5월 21일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1일	각 사암
제24교구본사 선운사	보은염 공양과 어울림마당	5월 21일	선운사
	봉축법요식 / 연등축제		
부산	봉축상징물 점등식 및 장엄등전시	5월 7일	부산역 광장
	대형장엄등 카퍼레이드	5월 12일	사직시립의료원-구덕운동장
	봉축문화의 거리(문화행사,공연)	5월 14일	부산 광복로 일원
	어울림한마당,제등행진,대동회향한마당	5월 16일	구덕운동장-부산역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1일	각 사암
기장	연등축제	5월 9일	기장군청~기장읍내
	점등식	5월	기장 체육관삼거리
대구	동자승 단기출가	4월초	동화사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4월 16일	국채보상공원
	대구경북 불교합창제	4월 20일	문화예술회관
	선덕여왕 숭모제	4월 28일	부인사
	거리포교	4월 중순경	갓바위/앞산공원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1일	각 사암
	자비광명기원타종식	5월 21일	경상감영공원
	봉축전야제	5월 20일	천태종 대성사
	자비의손길(경로잔치,무료급식,저녁공양,바자회)	4월~5월중	대불청, 대구광역시신도회 등
	창작등 경연대회	5월 15일	두류공원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두류공원
	연등축제		두류공원 야구장
인천	각구/군청/경찰청 점등식	4월 17일	각구/군청/경찰청
	장엄등 점등식	5월 1일	시청 미래광장 분수공원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5월 15일	구월동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1일	각 사암
광주	봉축탑 점등식	4월 18일	문화전당 앞
	시청 봉축탑 점등식	5월 3일	광주시청
	빛고을 연등축제	5월 14일	광주공원~문화의 전당 앞
	공주불교방송 개국축하공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1일	각 사암
대전	봉축법회	5월 15일	시청 남문광장
	연등행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1일	각 사암
울산	점등식, 태화강 유등축제	5월 2일	태화강
	제등행렬	5월 12일	종하체육관-롯데백화점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12일	울산종합체육관

출 · 재가 포교전문가 한자리에

조계종 포교원 '전법단' 30일 출범… 단장 계성 스님

포교원력 하나로 현장을 누벼왔던 나홀로 포교전문가들이 재정 ·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4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회 개설 취약 분야의 포교활성화와 포교신도단체의 교육 및 조직화를 위한 법사 조직체인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 출범을 발표했다.

전법단(승가), 전법지원단(재가), 자문법사로 구성된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은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당연직 총재를, 포교부장 계성 스님이 단장을 맡는다.

승가를 중심으로 꾸려진 전법단은 계층별, 직장직능별, 포교 사각지대에서 주체적으로 법회활동을 하는 스님 100여 명으로 조직됐다.

지원단은 재가지도자 중 설법, 법회 지도 능력을 갖춘 재가 지도자 중 법회지도 능력을 갖춘 200여 재가자들로 조직됐다. 자문법사는 포교영역에서 학덕과 명망을 갖춘 스님들로 구성할 방침이다.

포교원은 계층별 지역별 법회에서 활동하는 스님의 명단을 확보해 법사 인재풀 형성, 계층별 지역별 전법단 구성, 행정지원 사무처 포교원 포교팀에서 전법단 법사와 법회 현장 연결 및 지역 전법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혜총 스님은 "지금까지 배출된 인재들을 조직화해 필요로 하는 곳곳에 적재적소적시에 파견함으로써 원활한 법회 진행을 하도록 돕게 된다"며 "포교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4월 18일 제주 관음사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불자 포교결집대회 · 제주불교 중흥 대법회를 봉행했다.

전법단장 계성 스님은 "전법단 구성이 늦은 감은 있지만, 포교원력을 가진 1000여 명 구성을 목표로 전법단이 구성돼 손길이 닿지 않은 곳까지 포교역량이 미친다면 포교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신행 · 직장직능 단체, 어린이 법회, 군법당 등 법회를 하고 싶어도 법사가 없어 원활한 진행을 못한 곳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도소별 교정교화, 군법사 부재 군법당의 법회주관 및 지도, 경승과 연계한 경찰서별 법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린이 청소년, 체육인, 공무원, 새터민, 이주민, 장애인 등 포교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포교원은 전법단 운영 예산으로 1억원을 확보했다. 현장, 사찰, 법회 중심의 포교활동을 지원한다는 개념에서 시작된 전법단은 기존 포교 신행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에 집중 투자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전문화된 포교 영역을 포교원의 지원으로 넓혀나가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포교원 산하기관인 포교사단에서 배출한 1만 포교사 중 전문포교사 150명은 포교사단 내에서 전법지원단을 구성해 수시로 파견하게 된다.

전법단 출범식은 4월 30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한다.

이에 앞서 포교원은 18일 제주 관음사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주제로 제주불자 포교결집대회 · 제주불교 중흥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상언 · 박선주 기자

법령 명칭 변경 사유재산서 사후 개인재산으로

조계종이 시행중인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이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으로 명칭 변경됐다. 종단에 한했던 재산 수증처와 기금 운영 절차를 다양화하고 집행범위를 사망으로 한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4월 22일 제24차 종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종령을 개정했다.

종령의 명칭 변경은 '사유재산'이라는 표현의 정서적 거부감을 해소하고 종단 출연 시점을 사후로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수증자를 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종단 등록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내 법인으로 하고, 기금운영절차도 유지재단, 교구본사, 사찰, 법인으로 확대해 수증된 재산이 승가복지와 승려 교육기금으로 폭넓게 운영되도록 했다.

현재 유언장, 사인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로 번잡했던 서류 절차도 자필 유언장 1부(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로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분한 신고 기간을 5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총무부 박종학 팀장은 "수차례의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 제방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된 종령에 의거해 간소화된 유언장 제출 기간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일 조계종은 사유재산령과 관련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종정 법전 스님은 23일 해인사에서 입적 후 재산을 조계종유지재단에 출연한다는 친필 유언장을 작성해 총무부장 영담 스님에게 전달했다.

조동섭 기자



청와대 오찬 "천안함 희생자 애도 방안 강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21일 청와대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초청 7대 종단 오찬간담회에서 "천암함 관련 희생자를 애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솔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라는 조언도 이번 일에서 뿐만 아니라 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가슴에 지니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임운길 천도교 교령, 원불교 김주원 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이광선 한기총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봉은사 토론회 '아슬아슬'

4월 18일 일요법회서 봉은사 명진 스님은 "만약에라도 봉은사에서 새로운 불교 모습을 이루지 못한다면 점차적으로 내 몸에 피 · 고름 묻히더라도 종단 부조리와 불합리한 모든 행위들 배를 가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11일 일요법회서 제기했던 자승 스님의 이명박 대통령 선거활동 의혹에 관해 "자승 스님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건배사를 했던 것은 힐튼호텔이 아니라 롯데호텔이며, 시기도 대선 직전이 아니라 1년 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명진 스님의 거듭된 문제성 발언에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단체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이를 봉은사가 수용함으로써 봉은사 토론회는 예정대로 30일 개최될 전망이다.

총무원, 봉은사, 불교단체 실무자들은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18일 일요법회 발언과 봉은사가 최근에 발행한 <판전> 4월호 내용 등이 "폭로와 의견발표를 일체하지 않겠다"는 3자간 합의를 다시 저버린 것이라는 항의를 중심으로 3자간 입장개진이 있었다.

총무원과 불교단체는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제조치가 봉은사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과 불교단체는 △4월호 <판전>의 전량 회수 폐기 △다가올 일요법회에서 일체의 비난 폭로 중지 약속 이행 △약속파기에 대한 명진 스님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명진 스님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3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참여불교 재가연대 정중기 사무총장은 "25일 일요법회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토론회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속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불교계 언론이 "김영국 '이동관과 직접 통화안했다'"는 4월 21일자 보도에 대해 김영국 조계종 前 특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봉은사는 통화 당시 "VIP가 언급됐다"며 MB개입설까지 제기했다.

이에 앞선 20일 조계종 호법부(부장 덕문)는 봉은사에 <판전> 4월호 회수 및 폐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호법부는 공문에서 "<판전> 4월호에 게재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특집 기사의 내용이 직영사찰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견 개진을 넘어 종단의 합법적 절차를 부정하고 우룽함은 물론이고 종단과 총무원장 스님을 악의적으로 비방 ·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경남(대원) · 안승기(우보) · 이차갑(선효) · 전봉수(무구) · 정창현(명적) · 조선환(진각) 등 봉은사 신도회 역대회장 6명은 20일 성명서에서 "토론회 준비가 진행중인 11 · 18일 일요법회 등 명진 스님의 행위는 영암 스님의 큰 뜻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라며 "명진 스님은 공개참회하고 봉은사를 떠나라"고 비판했다.

조동섭 기자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선출

선문 스님 선관위에 이의제기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제26대 주지에 성문 스님이 선출됐다.

동화사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중총회에서는 선거인단 291명 중 263명이 투표해 성문 스님(탈성 용연사 회주)과 선문 스님(대구BBS 총괄국장)이 각각 129표를 얻었다. 5표는 무효였다.

두 후보 득표수가 동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 제38조 1항에 따라 주지는 승랍이 많은 성문 스님이 당선됐다.

이에 대해 선문 스님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했다.

선문 스님은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싶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중앙선관위에 △본인 입회하의 검표 △종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을 산종총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산중총회 의장(본사주지)의 선거 결과 공포의 정당성 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문 스님은 중앙승가대 1회 졸업생으로 석주 스님을 모시고 중앙승가대 설립을 주도했다. 1980년 전국청년승가회 사무총장 1983년 비상종단운영회의 상임위원과 서울 봉은사 · 안양 염불암 주지, 제10~12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사 · 손법천 대구지사장

영통사서 남북 합동법회 합의

21일 개성서 천태종 · 조불련 실무회담 개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개성 영통사에서 남북 합동법회가 봉행된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은 4월 21일 개성공단 내 한 음식점에서 남북합동법회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회의에는 남측 천태종 사회부장 경천 스님 등 천태종 관계자와 북측 조불련 차금철 포교부장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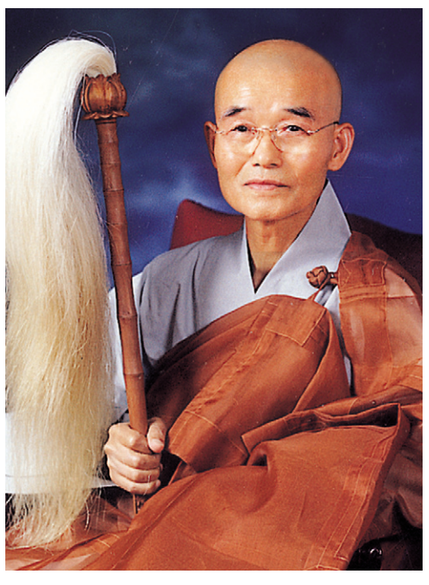
이날 남북 불교계는 5월 10~15일 중으로 '조국통일 기원 부처님오신날 봉축 남북(북남) 불교도 합동법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정확한 개최 날짜와 참가 인원은 각 국 정부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키로 했다. 합동법회에서는 남북 대표 연설과 남북 공동발원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3일 북측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소유 부동산을 전면 동결하고, 민간 관리인원도 전원 추방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남측에서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측의 무력행사 때문일 것이라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남북불교계의 합동법회 봉행 합의는 개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불교계가 민족 화해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남겼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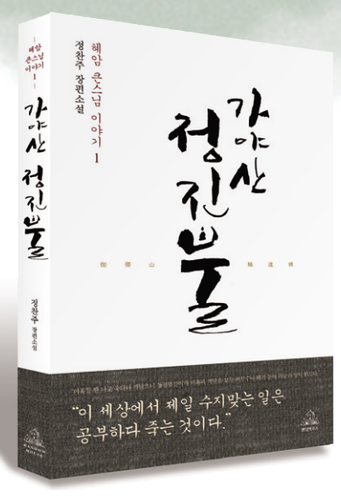
혜암당 성관 대종사 탄신 91주기 추모법회 및 「가야산 정진불」 출판 봉정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전 종정 혜암당 성관 대종사 탄신 91주기 추모법회와 큰스님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가야산 정진불」 출판 봉정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4(2010)년 5월 5일 (음 3.22) 수요일 오전 10시30분
- 장 소 : 해인사 원당암
- 문 의 : (055)932-7308

※오후 2시에는 문도회의를 개최하오니 문도스님들은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암대종사 문도대표 성 법
원 당 암 감 원 원 각 합장

일 주 문



조계사 동자승 단기출가 모집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4월 22~28일 부처님오신날 맞이 '동자승 단기출가' 참가자를 모집한다. (02)732-2115



월정사 디지털 사진전 개최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5월 8일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오대산디지털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한다.



백양사 곡우절 다례재
장성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은 4월 20일 백양사 대웅전에서 곡우절 다례재를 봉행했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경공모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도후 스님은 5월 14일까지 제13회 전국청소년 사경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 (02)723-6165



명락사 다문화 가정 법화경 사경 대회
서울 천태종 명락사 주지 무원 스님은 5월 9일 명락사 명락빌리지에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글 법화경 사경 대회'를 개최한다. (02)889-7272



우리는선우 굴업도 구법여행
성태용 우리는선우 이사장은 5월 1~2일 봉축기념 구법여행 '굴업도 별빛 아래 손오공 발자욱 찾기'를 개최한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낙태이야기'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은 4월 28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지원센터 3층 보현실에서 '야단법석, 낙태이야기'를 개최한다. (02)732-1367



권오창 수덕사 신도회장
권오창 전 예산군수는 4월 11일 수덕사 심연당에서 열린 조계종 제7교구 신도회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니르바나 봉축 정기연주회
강형진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은 불기 2554년 봉축기념 제12회 정기연주회 '칸타타 담마파다'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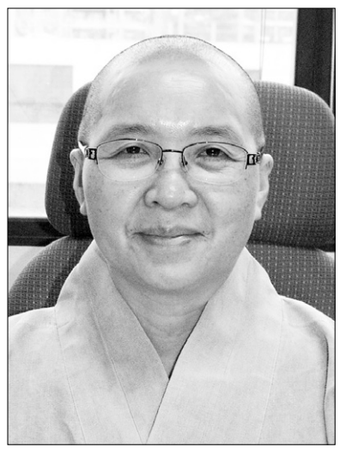


대구구도회 금요법회
곽영순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 회장은 4월 30일 천안 만일사 주지 마가스님 초청 금요법회를 개최한다. (053)623-8595

interview

"불교계 전문 상담기관으로 우뚝 설 것"

조계종 불교상담발원 원장 담교 스님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계 전문 상담기관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불교에 맞는 상담활동과 그 이론을 연구하고, 상담 인력을 양성해 온 조계종 전문 상담기관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담교, 이하 상담개발원)이 창립 10돌을 맞았다.

4월 21일 상담개발원 사무실에서 만난 원장 담교 스님은 지난 10년의 소회와 상담개발원의 미래 청사진을 밝혔다.

상담개발원의 창립멤버이기도 한 담교 스님은 불교상담개발원 설립 취지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담교 스님은 "불교상담개발원은 2000년대 초 소외된 이웃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태동했다. 그 당시 이웃종교와 달리 불교계는 상담체계 자체가 매우 취약했다. 한국전문상담가연합회에 소속 스님들이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위해 뜻을 모은 것이 바로 불교상담개발원이다"고 말했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기 위한 원력이 모였지만 불교상담개발원의 시작이 순탄치는 않았다.

스님은 "막상 불교 상담기관을 세우는데 뜻을 모았지만 재정문제와 상담활성화에 걱정부터 앞섰다"며 "주변의 많은 우려 속에 내부에서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포교원장인 도영 스님이 포교원 산하기관으로 인정받는데 도움을 주었고 주변의 성원이 이어지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스님은 "역대 원장 스님들과 주변의 모든 분들의 노고로 지금의 불교상담개발원이 있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상담개발원은 10돌을 맞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상담문화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상담개발원은 2008년 1월부터 배출한 불교상담심리사를 대상으로 심화 강의 및 교육을 실시한다. 또 2011년까지 사이버대학 등 온라인 교육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다. 담교 스님은 "단순한 상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불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담 전문가를 배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스님은 불교 상담분야가 아직 체계화 되지 못한 아쉬움도 토로하며 불자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담교 스님은 "불교계는 경전에 상담에 대한 내용이 수없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리하고 체계화 하지 못해 외국에서 교재 등을 수입하고 있다"며 "불교가 가진 보물창고를 활용키 위해 경전 체계화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각경>에 나온 '일신이 청정하면 다신이 청정하고 다신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一身淸淨 多身淸淨)는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담교 스님이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 스님은 "다른 이를 돕고자 불교 상담 수업을 들은 불자들이 오히려 스스로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할때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불자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관련기사 6면

"부처님 가피 받았으니 이제 회향 해야죠"

토크쇼 진행자로 재기에 나선 연기자 이하얀



탤런트 이하얀(37 · 사진)이 MC로 컴백했다. 이하얀은 작년 9월 컴백을 선언한 뒤, 최근 불교TV(BTN)의 '이하얀이 만난 스님'의 진행자를 맡았다. '이하얀이 만난 스님'은 스님들의 삶과 수행을 솔직 담백하게 풀어내는 토크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연기가 아닌 진행자로서 다시 방송을 시작하게 돼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연기활동을 어느 정도 하다가 50대 쯤 돼서 MC를 한 번 해보고 싶다고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시기가 너무 일찍 와버렸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편안한 MC 이하얀이 되고 싶습니다."

이하얀은 최근 BTN에서 방송중인 '이상벽의 이야기쇼, 붓다야 붓다야' 출연해 불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밝혔을 정도로 신심이 깊다. 이하얀은 허준호와의 이혼 후 6년 간 폭식증과 우울증 등을 겪어왔다. 쇠약해진 마음과 몸을 경전읽기와 108배, 3000배 등을 통해 불교를 생활화하며 이를 극복했다고 밝혔다.

'이하얀이 만난 스님'의 윤정현 담당 PD는 "이상벽 토크쇼에 출연한 이하얀 씨의 진실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 MC제안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MC로서의 경력보다, 스님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에 더욱 부담을 느꼈습니다.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 스님들이 저를 더 편하게 대해주셔서 진행이 수월했습니다. 스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큰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이하얀은 첫 녹화 때 정념 스님의 이야기에 감동 받아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하얀은 "인연법에 따라 불교를 알게 됐고, 인생의 전환점을 맡게 돼 '부처님의 가피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실천으로 행하면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은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불법을 더욱 생활화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서원이기도 합니다."

이은정 기자

진각종 종의회 의장 혜명 정사 선출



진각종 새 종의회 의장에 혜명 정사(사진)가 선출됐다.

진각종(통리원장 혜정)은 4월 21~22일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진기64(2010)년 춘기 스승강공 및 제368회 정기 종의회를 열고 혜명 정사(희락심인당 주교)를 임기 4년의 제13대 종의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으로는 일석 정사(신익심인당 주교), 선본 정사(남도심인당 주교)가 선출됐다.

의장 혜명 정사는 당선소감에서 "종의회 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의정활동과 종단현안문제를 고민하며 종단 100년 대계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혜명 정사는 1985년 식재심인당을 시작으로 시복심인당, 보정심인당 주교와 1993년 심인중 주임정교, 1995년 제9 · 12대 종의회 의원, 사감원 사감부장, 문화사회부장 겸 밀교신문 편집인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구교구청장 겸 희락심인당 주교, 회당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이에 앞서 열린 춘기스승강공은 21일 무진설법전 예참과 전법관정불사에 이어 개회불사(통리원장 혜정 정사), 총인예하 교시(도흔 총인), 주제강론(교육원장 경정 정사), 22일 교법강론, 종조법어합송 순으로 진행됐다.

조동섭 기자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발대식

군포교의 숙원사업이자 청년불자 육성의 선결과제였던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신축불사가 본격화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5월 4일 논산훈련소 법당 불사현장에서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발대식'을 봉행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서며 종단 원로 스님들을 비롯해 60여 현역 불자장군, 140여 군승 전원과 공동추진위원장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발대식에서는 조감도 제막식 및 불사개요보고, 시삽식, 도량결계의식 등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조동종 종조 동산양개 스님 다례재

조동종은 4월 21일 총무원인 서울 도선사에서 종조 동산양개 스님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덕찬 스님, 총무원장 덕우 스님, 승정부원장 덕담 스님, 문도회장 덕룡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종정 덕찬 스님은 법어에서 "동산 양개선사 다례재를 계기로 종도 모두가 더욱 정진해 조동종 묵조선풍의 선향을 드높이자"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관음종 유니세프에 아이티 기금 전달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4월 21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이티 지진피해 복구 성금 558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관음종이 지난 1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사찰에서 모금한 것이다.

노덕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 7 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수시교육 / 매월 상시 모집 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636-2972 / 광주교육원 062-672-5432 /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4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5월 26일까지 접수
◆ 개강일시 : 2010년 5월 27일 매주 (목) 오후 5시 ~ 8시 (3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교계, 4대강 보존 후보 지지

22일 금강선원 개원… 1만 불자 4대강 생명살림 수륙 대재 봉행

여주 여강선원에 이어 4대강 생명살림 기도도량 금강선원(선원장 기돈)이 문을 열었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혜) 말사인 공주 영은사 내에 세워진 금강선원은 4월 22일 개원식을 봉행했다.

개원식에는 원혜 스님(마곡사 주지),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화계사 주지), 지관 스님(4대강개발사업저지특별위원장, 김포 용화사 주지), 주경 스님(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대원 스님(천안 사암연합회장), 고은아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 운영위원장, 박희인 6·15 공동위 대전본부 집행위원장, 안희정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김혜영 민주노종당 충남도당 위원장, 유원일 창조한국당국회의원, 이용길 진보신당 충남도지사후보, 김영신 사회당 대전시당 비례대표, 김용태 신부(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종교간대화분과 위원장), 남재영 목사(대전충남기독교연대 상임대표), 이상덕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대표, 정민걸 교수 (공주대학교 환경교육학과) 등 각 정계, 종교계,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앞선 17일 조계사에서는 1만 불자가 한자리에 모여 4대강 사업으로 희생된 뭇 생명의 넋을 위로했다.

'4대강 수륙대재 추진위원회'는 4월 17일 서울 조계사 일대에서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를 열고, 온 생명이 공존하는 생명평화를 노래했다. 수륙대재는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 사찰에서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서울 조계사를 찾았다. 전국 강원 등의 학인스님들도 4대강 사업저지와 희생된 생명을 위한 기도에 동참했다. '4대강 수륙대재 추진위원회'(상임추진위원장 퇴휴, 이하 추진위)는 이날 행사에서 스님 1000여 명, 전국 사찰 신도 및 재가 단체, 시민 1만 여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불자들은 행동결의문에서 △6·2지방선거에서 4대강 보존과 생명살림에 앞장서는 후보들을 적극 지지한다. 한강 △4대강에 법당을 개원하고 매주 수륙재 봉행으로 4대강 개발 중단촉구한다. 또 △4대강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각 사찰 등에 걸고 주말·초하루 법회 등을 통해 4대강의 환경파괴 실상을 적극 알리고 서명운동을 펼치며 △뭇 생명에 대한 공경심, 공생, 소욕지족의 일상 등을 담은 생활 청규를 통해 생명살림에 대한 불자들의 의지를 모으기로 다짐했다.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오른쪽 끝)와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왼쪽 끝)이 4워 22일 금강선원 개원식 2부 행사인 서예 퍼포먼스에 동참해 4대강 공사 반대 메시지를 적고있다.

불교계는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여강선원, 금강선원에 이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에서 영산강 사업 저지를 위한 선원 개원을 준비 중이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출마자들은 불교계를 비롯한 이웃종교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22일 금강선원 개원식에 참석한 안희정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4대강 사업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이다. 4대강 예산으로 복지, 교육 재정 등이 축소 중단되고 있는 것은 적법성에도 반하는 일인 만큼 전면 즉각 중단 돼야 한다"며 "종교지도자들께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강선원, 금강선원, 낙동강에서 4대강 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웃종교계, 시민단체의의 연대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 가톨릭 베네딕도회 수도자들은 지율 스님 안내에 따라 4월 19~22일 낙동강에서 '평화와 치유를 비는 생명의 강 순례'에 나섰다. 19일 충남 공주시 금강 곰나루 일대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신부, 수녀, 수사, 신도 등 2000여 명이 '금강 생명평화 미사'를 봉행했다. 이날 미사에는 수경 스님, 원혜 스님, 환성 스님(영평사 주지), 박상래 신부(원로사제회), 조해붕 신부(천주교연대 대표), 문규현 신부(전주 평화동본당 주임) 등이 참석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지율 스님, 국토부장관 고소



지율 스님(사진)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4월16일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고소장은 4대강사업 허위 홍보 유포 관련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4대강 홍보자료를 거짓 유포한다는 내용이다.

낙동강과 4대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인터넷 다음 카페(cafe.daum.net/chorok9)에 지율 스님은 국토부 장관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증거자료(영상, 사진), 고소장(피고소인 정종환 국토부 장관) 등을 공개했다.

지율 스님은 고소장에 "정부에서 홍보하는 흡입식 공법을 하고 있는 곳은 10곳 미만에 불과하며 대부분 지역에는 직접 준설방식"이라며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또 지율 스님은 "오탁 방지막 역시 대부분 끊어져 있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았으며, 가물막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오탁 방지막 밖으로 흘려보내는 곳도 있었다. 준설토 역시 오염물질의 제거는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지율 스님은 정종환 장관에게 4월 9일 천성산 문제와 고속철도 운영실태의 진위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냈다.

정종환 장관은 경부고속철도 원효터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도룡뇽소송)을 할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이상언 기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4건 보물 지정

문화재청, 자비도량참법집해 등도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 등 문화재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이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보물들은 △보물 제1650호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 △보물 제1649호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 제1651호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세불도 △보물 제1652호 통영측우대(統營側雨臺)이다.

특히 이번 지정된 4건의 문화재 중 주목할 만한 보물은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이다.

전적은 모두 21점으로, 9~13세기에 걸쳐 사성(寫成)또는 간행<화엄경>이다. <화엄경>은 진본(晉本) 60권, 주본(周本) 80권, 정원본(貞元本) 40권 3본이 고루 들어 있다.



개운사 아이타불좌상 복장전적<화엄경> 진본.

전적들 중 9~10세기 초에 만들어진 고사경(古寫經)들은 신라사경의 형식과 동일한 26행 17자본의 행자수를 이루고 있으며, 고판경(古板經)의 형식 전적의 경우도 24행 17자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문화재청은 "전적들은 시기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매우 희귀해 역사적 가치와 함께 서지학, 서예, 화엄경 판본 연구 및 불교사 연구 자료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고려후기 대표하는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3세기 전반에 제작된 불상이 매우 드문 현실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세불도'는 18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대표적 화사인 의겸이 제작한 불화로, 대형의 3폭 삼불도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은정 기자

100자 뉴스

태고종 종무행정 기초자료 모은다

태고종이 종도들의 역량 결집을 위해 종무행정 기초자료 수집·재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4월 20일 한국불교전승관에서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또, 5월 9일 장충체육관에서 봉행되는 어울림마당과 16일 연등축제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2010영산재' 봉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영산재 봉행에 기여한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스님들과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 안정사 주지 백우 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등 3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동섭 기자

대관음사 동자승 삭발식 및 소재의식 봉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4월 21일 대구 남구 참좋은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10명의 '동자승 삭발식과 수계식'과 대웅전 백의 관세음보살 소재의식을 봉행했다.

우학 스님은 "어린이들이 불교를 보다 쉽고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불자들에게 각자 현재 내가 무얼 하고 있는지 등을 실천하고 생각하는 봉축 메세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태고종 대구 관암사 창건 50주년 불사 회향

태고종 대구 관암사는 4월 21일 창건 50주년을 기념해 대웅전 관음전 칠성각 낙성식과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종정 혜초 스님과 총무원장 인공 스님, 전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관암사는 태고종 종정을 역임한 벽암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2004년부터 20여 억원을 들여 대웅전 중창을 비롯한 가람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해인사·국가기록원 기록유산 보존 협정서 체결

합천 해인사와 국가기록원은 4월 22일 '기록유산 보존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정에 따라 해인사는 6월 1일 국가기록원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에 대장경 원본을 전시하며, 국가기록원은 '2010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에 조선왕조실록 을 전시키로 했다. 노덕현 기자

단종비 정순왕후 허경 스님 추모다례 봉행

서울 청룡사(주지 진우)는 4월 24일 '허경 스님(정순왕후)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종로구청이 진행한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 문화제'의 일환으로 열린 행사에는 석문의범연구회 선정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자) 등이 불교 전통의식을 봉행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운동장 복합교육시설로 변모

동국대 서울캠퍼스 운동장과 수영장이 복합교육시설로 변모한다. 서울시는 4월 22일 부지 2만4000여 ㎡에 지상 공원 및 지하 교육 시설이 건립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칭하이 지진 속 불교전파 문성공주묘 무사

중국 칭하이성 강진에도 당나라 때 티베트에 불교를 전파한 문성공주의 묘가 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진으로 위수 일대 역사문물이 훼손되는 와중에도 진앙지에서 불과 20km 떨어진 문성공주묘가 무사하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광고 따로 올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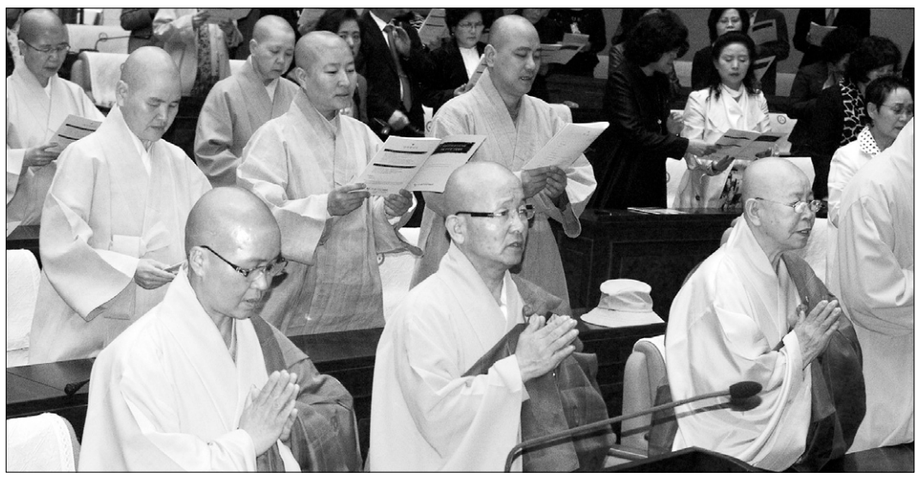
동체대비 실천해온 불교상담

불교상담개발원 10주년 기념법회

불교 상담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구현해 온 불교상담개발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담교)는 4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원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상담봉사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 前 원장 정덕 스님과 서울 노인복지센터 관장 가섭 스님, 불교상담개발원과 자비의 전화 회원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4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불교상담개발원 개원 10주년 기념법회에서 원장 담교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前 원장 정덕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담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발전하는 불교상담개발원을 위해 애정어린 눈으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불교 심리 상담사 1 · 2급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자격에 맞는 이론과 실습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덕 스님은 축사에서 "사람 나이 11세면 청소년기에 들어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이라며 "불교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동체대비의 가르침이다. 10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현장에서 펼치는 불교심리상담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비의전화 이사진(김준형, 전나미, 이석진, 조한래) · 불교 상담심리대학 운영위원(미산 스님 권정화, 김남성, 문홍세 외 6명) · 연구위원(선업 스님, 혜타 스님, 관용 스님, 도현 스님, 황수경 외 6명)에게 위촉장이 전달했다. 또, 불교 상담 심리사 2급 합격자 25명에게 자격증이 수여됐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불교에 맞는 상담활동과 이론, 기법을 연구 · 개발하여 교계 상담현장에 보급하고, 상담 인력을 양성하는 조계종 전문상담기관으로서, 1990년에 개통된 자비의전화의 토대 위에서 설립됐다.

현재 불교상담개발원은 총 151명의 불교 상담 심리사들이 자비의전화, 서울노인복지센터, 동국대 일산병원 등에서 상담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02)737-8803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불교계 최초 호스피스 병원 건립

정토마을 호스피스 병원, 자제병원 건립 기원 법회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에 70병상 규모로 건립될 자제병원 조감도. 호스피스병동, 완환 의료병동, 재활병동, 관리동 등이 들어선다.

불교계 최초 호스피스 병원이 될 자제병원 건립을 위해 사부대중이 하나로 마음을 모았다.

정토사관자재회 자제병원건립추진위원회(회장 능행)는 4월 18일 정토마을 언양 마하보디교육원에서 건립불사 기금 모연을 위한 '천일愛 행복기도' 대법회를 봉행했다.

정토관자재회는 2000년부터 불교 호스피스 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연운동을 펼쳐오다 최근 충남 언양에 병원 부지를 마련했다. 현재 자제병원의 설계도를 확정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90여 억원의 건립기금 마련에 어려움이 많아 기금마련을 위한 대법회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혜국 스님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무수한 생명이 구해지고 고통은 크게 경감됐다. 그러나 인간다운 죽음은 어떻게 죽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자주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자제병원은 마지막 순간가지 삶과 죽음의 질을 함께 생각하며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공간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불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며 자제병원 건립 동참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능행 스님은 대회사에서 "한 생명이 죽음을 맞는 일은 생명이 자신의 삶을 맺는 마지막 순간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은 죽음뿐만 아니라 삶에까지 관계된다"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불안과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완화의료 및 관계 전문시설 건립, 전문임상가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불교계 최초 호스피스 전문병원으로 건립될 자제병원은 암 또는 불치의 병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이들을 위한 의료시설이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에 건립될 예정인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70병상 규모로 종합클리닉과 각종 물리치료와 한방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제병원은 또 전인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문 호스피스 봉사자와 환자 · 가족들을 위한 전문임상상담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지역의료센터와 연계한 지역 외래진료 및 가정돌봄 활동과 생활 케어, 세대 간 교류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모금된 기도 동참금은 전액 불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현재 동참자를 함께 모집하고 있다. 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매일 3차례 3분씩 기도를 하고 108배를 하며, 매월 3만원씩 3년간, 또는 일시불로 108만원을 자제병원 건립기금으로 보시하게 된다. (052)254-2340

박선주 기자

서초반야회 낙산사 · 백담사 순례법회



서초반야회 회원 및 가족이 낙산사 • 백담사 2010 순례법회를 개최했다. 서초반야회 권혁준 판사는 "더 알찬 순례법회를 위해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불교단체인 서초반야회(회장 박홍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4월 10~11일 낙산사(주지 무문)와 설악산 백담사(주지 삼조)에서 2010년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순례법회에는 서초반야회 회원 및 가족 130여 명이 참석해 백담사 템플스테이, 조 · 석 예불, 낙산사의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행선, 차담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번 순례법회에 참여한 사법연수원의 전경민씨는 "낙산사에 모셔진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이 인상 깊었다. 백담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정서적으로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어서 좋았다. 나를 담금질해 세상 속에서 정진하는 삶을 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95년 3월 결성된 서초반야회는 '수행과 나눔'이라는 기치 아래 매년 순례법회, 월 1회 대성사에서 정기법회를 갖고 있다. 또 서울 종로 원각사 급식봉사, 불교 공부모임, 매달 15일 한 끼를 나누는 바라밀의 날 운동, 한 명씩 포교하기 운동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선주 기자

초등생 나눔 교육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집에서 하는 나눔이 뭐죠?", "엄마 설거지 도와드리기요~인사 잘하기요~"

안산 부곡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선)은 4월 17일 안산 정재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나눔교육 '나누며 행복해요'를 개최했다.

이날 나눔교육에 참가한 77명의 아이들은 자비, 보시, 나눔과 관련된 동화를 보고, 각종 문제와 퍼즐 등을 풀며 자비나눔의 실천을 배웠다.

관장 도선 스님은 "나눔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어린 아이들이 성장기에 보시와 자비나눔의 중요성을 느껴 사회동량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4월 19일 지역 비문해자(문맹자 포함)를 대상한 한글배움터 '사랑글샘학교'를 개최했다. 박선주 기자

증산정보도서관 어린이 생태체험

사회복지법인 인덕원(대표 성원)이 운영하는 구립증산정보도서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9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꼬물꼬물, 지렁이랑 놀아요' 행사를 진행한다.

생태체험은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쓰레기 절감, 지렁이 똥을 이용한 방향제 제작 등이 시연될 예정이다.

또 구립증산정보도서관은 5월 2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술공연과 마술사들에게 직접 마술을 배워보는 '매직 쇼(Magic Show)'가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접수는 도서관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02)307-6030 박선주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海月 金文華의 魂이 담긴 스피커의, 힘 있고 우렁찬
소리는 스님의 건강과 절 전체에 氣를 불어넣어 줍니다.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 高音質 무선마이크

◇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DX-707 스텐드 마이크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 마이크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 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범어 번역 4원칙

정승석 교수 제시



최근 부처님 원음이 기록된 범본 경전 등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높다. 한자를 거치지 않고 범본 경전을 그대로 한글로 이해하자는 이러한 움직임은 부처님 말씀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접하려는 신심의 발로이다.

이런 가운데 범어 번역을 통해 한역 불전에서 음역(또는 음사)된 단어의 한계를 뛰어 넘는등 범어 번역 작업에 있어 편찬자 자신의 착란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석 동국대 교수(사진)는 4월 23일 인도철학회(회장 서행정)가 개최한 제30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번범어(飜梵語)의 원어 착란 사례'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음역어 중에는 판각의 오류, 음역의 불일치 등이 큰 장애로 대두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원어에 관한 편찬자 자신의 착란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중국 최초 범어 사전인 <번범어(飜梵語)>와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등 불전 어휘 사전 활용상 유의점을 제시했다.

정 교수가 제시한 사항은 △대체로 출처가 가능한 <번범어>지만 그 중에는 현존의 대장경에 수록돼 있지 않은 행방불명의 불전이나 잡경(雜經)이라는 불특정의 불전이 적지 않게 포함된 점 △불전을 필사하는 과정에 발생한 오기로 간주되는 사례가 잦은 편 △음역어 특성상 동일한 표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표제어로 제시한 음역과 출처에서 구사한 음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점 △편찬자 착오에 기인해 설명이 원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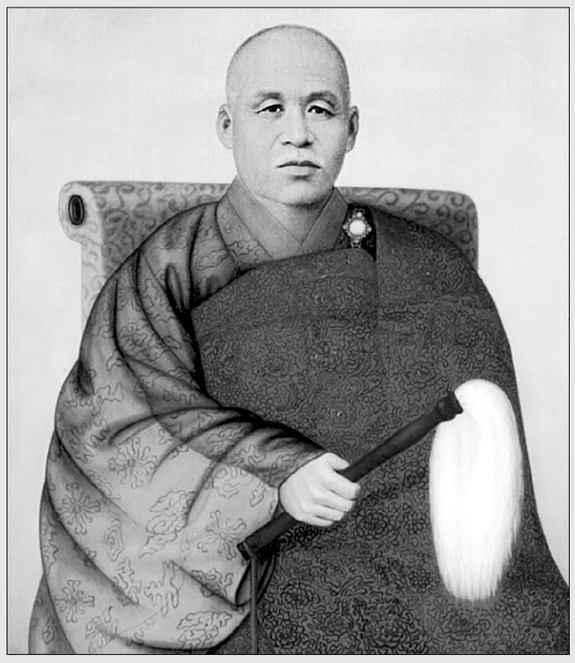
정 교수는 "중국 최초 범어 사전인 <번범어>는 다양한 오류 또는 착오로 점철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헌은 음역어라는 장애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 매우 유용한 실습 교재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승석 교수는 "하나의 불전에서 구사된 음역어는 이역본 등 다른 불전의 용례와 대조해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용성 스님 선 VS 키요자와 정토

조승미 외래교수 '불교연구' 기고논문서 조명



1900년대 초반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불교의 '근대적' 분열과 세속화에 저항하던 두 스님이 있다. 백용성(1864~1940 · 사진)과 키요자와 만시(淸澤滿之 · 1863~1903)가 그들이다. 이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나 불교적 가르침을 세상에 펼쳤지만 각각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배경은 너무나 달랐다.

한국 불교는 일제 정책에 의해 분리 · 통제돼 가면서 근대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적 노력이 어려웠던 반면, 일본 불교는 메이지 정부의 국가주도 근대화에 동조하는 주류 보수의 한편으로 근대적 각성에 의한 혁신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펼치고자 했던 용성 스님과 키요자와 스님의 불교사상도 달랐지만 각각 자신이 세운 '원형(原形)'에의 의지를 갖고 불교의 근대적 상황에 대응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조승미 동국대 외래교수는 최근 <불교연구> 제32집(한국불교연구원 刊)에서 기고논문 ''원형'에의 의지와 동아시아 근대불교'를 통해 백용성과 키요자와 만시의 사상을 조명했다.

조승미 외래교수는 "백용성은 자각을 중시하는 임제선종(禪宗)으로의 귀원(歸源)을 위해 원형적 의지가 담긴 불교개혁 운동과 활동을 전개했었다"고 주장했다.

16세에 해인사에서 출가한 용성 스님은 선수행과 승단 내 선풍 진작을 위한 활동으로 생애를 보냈다. 조 외래교수는 "용성 스님은 40세에 지리산 상비로암과 보개산 성주암등에서 선회(禪會)를 열기 시작해 전국에 많은 선회와 선원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용성 스님은 개신교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1910년 <귀원정종(歸源正宗)>을 발간하고 이듬해 서울로 상경했다. 조승미 외래교수는 "개신교와의 경쟁과 갈등이 용성 스님이 처음 접한 종교의 근대적 상황이었다. 용성 스님이 '우리 불교에서는 각황사 하나만이 있을 뿐이고 더욱 우리 선종에서는 한 사람도 선전함이 없음'이라고 말한 것은 스님이 불교와 선종을 구분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조 외래교수는 "'매일신보'에 용성 스님이 기고한 '조선에서 법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오직 임제 뿐, 우리들은 임제선종이다'라는 글을 볼 때 그는 조선불교의 정체성은 '임제종'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용성 스님은 참선 포교활동도 지속했다. 특히 재가 여성들에게 직접 참선지도 한 것이 확인돼 주목된다. 조승미 외래교수는 "1918년에 설립된 무주부인선회가 그것인데, 용성 스님은 서울에 주석하면서 한 번씩 내려와 이 선회를 지도했다고 하니, 그가 참선을 대중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근대 시기에 재가여성들이 참선 수행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는 용성의 공이 매우 컸다. 승단에 선회와 선원을 설립해 온 그가 일반인들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은 분명 전근대적인 불교문화를 깨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대 일본불교에서 키요자와 만시가 활동하던 메이지 말기는 전(前) 세대 불교가 보여준 호법 · 호국의식 강조나 서구화 물결에 대응하기 위한 계몽주의 운동에서의 탈피가 시작됐던 시기였다.

조 외래교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짧은 인생을 살았던 키요자와는 순수함을 유지한 채로 '정신주의 운동'이라는 새로우면서도 강한 원형지향의 종교실험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키요자와는 절대 타력인 정토진종의 '신란(親鸞)사상'을 지향했다.

키요자와 만시는 정토진종(淨土眞宗) 오타니(大谷)파 승적을 갖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는 종단의 지원을 받아 동경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에서는 헤겔과 칸트 등의 서양철학을 배우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키요자와는 1888년 종단으로부터 심상중학교 교장의 임명을 받고 종단 소속 사찰의 키요자와가(淸澤家)의 딸과 결혼해 성(姓)을 바꿨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그는 교장직을 사임하고 금욕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조승미 외래교수는 "키요자와는 부인을 고향으로 보내고 금연을 하고 육식을 금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종교수행을 했다. 교장직에 있을 때는 교수와 학생 모두 양복을 승복으로 바꿀것을 지시했는데 재가종단인 정토진종의 세속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병을 얻어 요양생활을 했던 키요자와는 '절대 타력(他力)이라는 진종신앙의 원형을 체험하면서 현실 종단 개혁운동과 정신주의(精神主義)운동에 나섰다.

조 외래교수는 "키요자와는 1901년 잡지 '정신계'를 발간해 정신주의를 제창한다. 여기서 그는 절대무한의 여래(如來)에 전적으로 의존해 정신이 발달하는 정신주의는 다름 아닌 '타력신앙'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승미 외래교수는 철저한 타력을 말하는 그의 신념은 정토진종의 창시자인 신란의 가르침을 기록한 <탄이초(歎異抄)> <아함경>, 스토아학파의 철학자인 <에피크테토스(Epictectus)의 어록>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키요자와가 불교의 원형으로서 초기경전을 중시한 것은 매우 '근대적'인 현상이며 서양철학서를 포함시킨 것은 그의 신앙이 불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며 "그는 진종 종조 신란의 타력신앙의 진수를 밝힌 문헌인 <탄이초>에서 자력을 비판하고 절대 타력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백용성과 키요자와의 불교개혁에는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보여준 불교운동 전개방식과 그 성격에는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우선 이들 모두 '승려본연'의 자세를 강조한 점이다.

조 외래교수는 "용성은 대처식육을 지적하며 계율준수를 가장 근본으로 여겼으며, 키요자와는 스스로 엄격한 금욕생활을 시도하거나 세속화된 종단 교육풍토를 전통적인 것으로 바꾸고자 했다"며 "또 이 둘은 모두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종교실험을 시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日 근대문학 '스님과 그 제자' 분석

일본불교사연구소 세미나… 쿠라타의 대표작

일본불교사연구소(소장 김호성)는 4월 17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스님과 그 제자'를 주제로 제3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진명순 교수(영산대)가 '쿠라타 햐쿠조 론'을, 강춘애 교수(동국대)가 '<스님과 그 제자>의 공연을 위한 시공간 연출'을, 쯔노다 레이코 박사과정(오차노미즈 여대)이 '쿠라타 햐쿠조의 <스님과 그 제자>와 그 사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스님과 그 제자>는 일본 근대의 다이쇼(大正)시대와 쇼와(昭和)시대 초기에 활약한 일본의 근대문학자이자 극작가인 쿠라타 햐쿠조(倉田百三)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스님과 그 제자>는 정토진종의 창시자 신란(親鸞)과 그의 제자 유이엔(唯円)의 일화를 그린 희곡으로 메이지 시대 이후 최대의 종교문학이라고 평가된다.

책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관동지방을 행각(行脚)중이던 신란 일행은 눈보라 속에서 히노사에 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루 밤 묵을 것을 청한다. 신란을 안 좋게 여기던 사에몬이었지만 결국 신란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 그의 아들 마쯔와카를 출가시키기에 이른다. 그가 바로 유이엔이다. 한편 신란의 아들인 젠란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연모해 타인의 운명에 해를 끼쳤다고 해 신란이 부자의 연을 끊은 상황에서 유녀(遊女)와 술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신란의 헌신적인 제자가 된 유이엔은 젠란의 위선 없는 성실함에 감동해 스승부자의 사이를 되돌리기 위해 젠란이 기거하던 곳을 다니던 중 자신이 유녀 카에데와 사랑에 빠지고 만다. 유이엔은 고뇌했고 정진에 힘쓰던 다른 제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에 이르지만 신란의 인도로 불문(佛門)에 들어온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신란은 유이엔을 비판하던 모두에게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야 한다"고 하고, 유이엔에게는 "여인에 대한 사랑을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키워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마지막 막(幕)에서는 신란이 임종시에 "부처님을 믿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젠란을 받아들이며 신란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긍정한다.

진명순 교수는 "<스님과 그 제자>는 신란이라는 전통적인 교단의 종조(宗祖)를 문학작품에 등장시켜 일반인의 감상에 맞추어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각 방면에서 연구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에서 그 공적은 크게 평가 받고 있다"며 "하지만 신란이 제자의 사랑과 아들의 방탕이나 불신감을 용서하고 왕생한다고 하는 신앙의 모순과 조화의 해석으로 작품의 내용을 전개시킨 점에 대해서는 진종교단으로부터 교의(教義)상의 오해가 있다고 지적돼 불교학자들로부터 기독교화한 신란이라고 비판받은 작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호성 교수는 <스님과 그 제자>의 감상평을 통해 "이 희곡은 중심인물이 신란이 아니라 유이엔임을 알게 된다.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심은 기생 가에데를 사랑하는 유이엔의 이야기다"며 "유이엔과 같은 파계승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는, 용서하게 되는 새로운 이념의 종교철학이 신란의 가르침이고 진종이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한국명상치료학회 '명상과 아동교육'

한국명상치료학회(회장 인경)는 4월 30일 오후 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상과 아동 청소년 교육'을 주제로 제7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황옥자 교수(동국대)가 '위빠사나명상과 마음치유'를 △이동환 위빠사나 지도법사가 '위빠사나 명상수련의 치유효과'를 △김진(동방대학원대 박사과정)씨가 '염지관(念止觀) 명상과 유아정서지능'을 발표한다.

인경 스님은 "명상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보편화된 마음 수련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위빠사나 명상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 →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증정품 : 희담석합장주 1개 (시중가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제19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역경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크신 분을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19회 행원문화상** 수상신청을 받고자 공모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시 상 내 용	인원	상금
역경상	대장경을 비롯해 중요한 불교문헌을 현대어로 번역 하신 분	2명	각 5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신 분 (서화 부문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2. 시 상 일

2010년 9월 14일 목요일

3. 후보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본인신청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 1 부
이력서(명함판사진 2매) ..... 1 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최근 2년 이내 실적물) ..... 1 부

4. 접수처 및 접수 방법

①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 사무국 (우 137-877)
② 접수 마감 : 2010년 6월 30일
③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5. 수상자 발표

2010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 ☎ 02)586-6521~2, fax 02)521-994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

Q 결혼 10년 차입니다. 아내를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늦게 귀가하는 횟수가 늘고, 혼자 신나서 통화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내용은 만남을 가졌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의심이 생겨 아내 몰래 이메일을 봤습니다. 작년 말부터 주고받은 메일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상대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글도 화려했습니다. 다정한 연인 같았고, 주로 호텔에서 만난 듯합니다.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아내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아내를 믿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이메일을 체크하니 메일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일을 딴 곳으로 옮긴 흔적이 있어 따라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글의 내용만 봐서는 아내와 그 남자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다시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시인은 안 하지만 용서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내가 얼마나 못해주고 외롭게 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말입니다. 동갑인 아내와 싸우기도 했지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싸울 때마다 아내는 다정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을 하나도 이해 못해준다고 투덜댔습니다. 제가 무뚝뚝한 편으로 남들보다 좀 말수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1주일에 반 정도는 술 먹고 늦게 귀가도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저 때문에 아기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직 아내를 좋아하고 이혼은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혼도 생각합니다.

A 부인을 추궁해도 완전히 시인은 안하지만 용서해 달라는 말에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한없이 넓고 깊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군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어쩌지 못에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한 가장의 안타까운 모습에서 단편적인 시대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크나큰 고통을 안고서도 아직은 좋아해 이혼은 피하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관용의 정신이 보입니다. 혼자서 결론 짓고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우시겠지만 참고 인내하며 대화하며, 시간을 갖고 부인과 자신을 냉정하게 보세요. 과거 · 현재 · 미래를. 인생은 내 것입니다. 주변의 눈들을 의식하기보다 내가 책임지고 노력하며 가꿔 가야하는 것 아닐까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인생은 더욱 성숙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Q 불교는 인간의 종교라고 하던데 그럼 오계 중 '살생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으면 생명의 종교 아닌가요? 불교는 생명의 종교입니까? 인간의 종교입니까?

불교는 인간의 종교인가요, 생명의 종교인가요?
불교는 모두 수용하는 동체대비를 설합니다

A 불교는 모두를 수용한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불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의심을 끊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정말 맞을까?' 하는 자세를 버리고 신심에서 접근해야 올바른 불교 이해와 성불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불교는 신행의 종교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부처님 교법을 믿(信)고 행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궁금한 것을 질문해 이해한 다음 신행을 실천하는 것이고, 신앙은 교리의 옳고 그름을 불문(不問)에 붙이고 의심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죠.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그대로 자기의 괴로움인 것으로 여겨 모든 생명을 어여삐 여기는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중하면 다른 생명도 중하다는 평등 사상, 상생(相生)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망찰해(帝網刹海)인 우주의 그물망에 연결돼 상의 · 상존하고 있다고 보기에 살생을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삶을 이롭게 하고 자비로 보살펴 주시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시원하다" 웃는 어르신 표정에 행복

행복법당 탐방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의 김순희 자원봉사자와 조은희 미용사가 은평뉴타운 13단지 경로당의 임연진 · 윤행남 할머니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이 · 미용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려야할 만큼 반응이 좋다.

가정방문 이 · 미용 서비스와 황혼 이혼 예방 앞장
2007년부터 이미용차량 운영… 구청에 협조 요청

4월 21일 오전 '거동 불편 어르신 가정방문 이 · 미용 서비스'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차량 한 대가 은평뉴타운 제13단지 경로당으로 향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열)의 이 · 미용 서비스 차량이다.

경로당에 도착해 조은희 이미용사, 김순희 자원봉사자 등이 이동차량 안의 미용 도구를 정비하는 동안 윤행남(77) · 홍영림(70) · 임연진(73) 할머니가 파마를 하기위해 왔다.

세 할머니들은 일전에 다른 어르신들이 이 · 미용 서비스를 통해 예쁘게 한 머리를 보고 자신들도 하고 싶었지만 워낙 인기가 좋아 대기번호표를 받고도 한참 기다렸다고 했다.

임연진 할머니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경로당 앞까지 찾아오니 고맙고 아주 편해요. 또 친절하고요"라며 연신 미용 봉사자들을 칭찬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의 찾아가는 이 · 미용 서비스는 2007년부터 은평구 관내 4개 권역(은평뉴타운 · 갈현 2동 · 수색동 · 증산동)에서 지역내 와상와병 어르신을 위한 방문 이 · 미용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이 · 미용을 위한 이동 트럭은 미용실을 옮겨놓은 듯 미용실 의자와 거울이 갖춰져 있고 온수가 공급돼 편리하게 봉사할 수 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999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지역내 어르신들을 위해 이 · 미용 서비스와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매주 수요일 마다 이 · 미용 서비스 차량이 어르신들의 거주지로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이 · 미용 서비스는 수급자 · 차상위 어르신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어르신은 파마 5000원, 컷트 1000원을 받고 있다.

조은희 미용사와 김순희 자원봉사자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일하는 모습이 자매처럼 다정했다.

미용 도구로 어르신의 머리를 돌돌 말던 김순희 자원봉사자는 "뭐든 마음먹기 달렸다"며 20여 년 봉사를 한 노하우를 일러줬다.

김씨는 "1990년부터 봉사를 시작했다.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어딜 가나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또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신이 나서 일하기 마련인데 어르신들이 그런 칭찬을 잘한다. 그 칭찬 들으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 20여 년이 됐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다. 몸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으로 봉사 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희 자원봉사자는 2008년 은평구로 이사 오면서부터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조은희 미용사는 이 · 미용 서비스 차량이 등장한 2007년부터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헤어스타일을 책임지는 미용사로 일하고 있다. 조은희씨는 "어르신들이 '말끔해졌다' '시원하다'며 웃으실 때가 행복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 내 어르신을 만나고 안부를 묻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

1999년 복지관이 개관했을 때부터 지역 내 이 · 미용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이미용 도구를 가지고 다니며 어르신 가정을 방문했었다. 하지만 많은 미용도구를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미용 서비스가 커트에 지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복지관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이동 차량을 마련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도 절약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그렇게 2007년 3월 이 · 미용 차량이 첫 선을 보였다. 당시만 해도 이 · 미용 차량과 함께 재활서비스 · 목욕 차량도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개발로 주차 제한구역이 늘어나 차량이 각각 따로 움직이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이재근 과장은 "차량 세 대가 한 번에 움직였을 때가 어르신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현재 은평구청도로관리과, 시설관리공단에 차량진입과 주차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직 · 간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하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황혼 이혼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백미영 사회복지사는 "통계청의 2008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전체 이혼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부부의 이혼 건수는 6147건으로 1988년 1521건보다 4배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08~2010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황혼 이혼 예방을 위한 노년 부부 관계 개선 프로그램 '황혼에 다시 찾은 신혼기'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60대 이상 갈등을 겪고 있는 3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법 교육을 실시하며 여가생활 · 웨딩촬영 · 신혼여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02)385-1351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의 이 · 미용 서비스 차량.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새로운 滴天髓풀이
[제❶권 · 제❷권] 완간



21세기 新개념의 역학!

적천수천미와 적천수징의를 철저하게 비교 분석하여 그 동안 밝혀내지 못 했던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한글세대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알기쉽고 매끄럽게 번역했다.** 그리고 풍부한 해설을 곁들였을 뿐 아니라 천미와 징의에 예시된 수많은 명조마다 사주의 구조와 운의 좋고 나쁨을 일일이 명쾌하게 해석해 놓음으로써, **누구든지 독학(獨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천미나 징의에 나오지 않는 자평 명리학의 이론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폭넓고 상세하게 다루었다.

제❶권 慧源 羅明祺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756쪽 / 정가 40,000원
제❷권 慧源 羅明祺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728쪽 / 정가 4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이제 당신도 점술가가 될 수 있다!
◆ 한국별점 자미두수가 당신의 운세를 …



이 학문은 고대 중국의 진희라는 사람이 기도 중 천기를 받아 창안한 성리학이다. 특히 천지조화를 터득하고 인간의 부귀빈천과 길흉화복을 예지 타의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정확성이 뛰어나며 귀신도 울고간다하여 금기된 적도 있다. 인연있는 후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 지금의 자미두수로 오늘에 이르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 좋은 운명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高山 엄창용 지음/4×6배판/양장본/45,000원

누·구·나·쉽·게·이·해·하·고·배·울·수·있·는!!
핵 · 심 · 사 · 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설 !!



이제 천기를 누설 한다 !!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궁합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육임이 보인다 |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육효학 핵심비결 |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이 신일어린이집 김윤하 어린이와 함께 두부 만들기 체험장에서 별 모양 두부를 함께 만들고 있다.



중앙승가대 니르바나봉사단 스님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과천 서울랜드에서 장애아동들과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거닐고 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서울랜드에서 주최한 행사에 대오 스님, 중앙승가대 니르바나봉사단 스님들, 아나율 · 연꽃 · 반야 · 신일 · 사당어린이집 교사들과 장애아동들의 모습.

장애는 불편일 뿐… 지금 여기서 더 큰 꿈 꿔요



니르바나봉사단 스님이 직접 만든 두부를 혹 흘리진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스님이랑 함께여서 더 즐거워요"

니르바나승가봉사단 6월 창립… 봉사 먼저

과천 서울랜드에 선녀가 내려온 듯 했다. 하늘하늘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이 벅차오르게 피었다.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서울랜드에서는 봄꽃과 함께 스님과 장애인들의 웃음꽃도 피었다.

스님들이 과천 서울랜드에 유치원가방을 메고 들어섰다. 회색 승복에 노랑 빨강 가방이 재미있다. 가방을 멘 스님의 손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온나 온나 스님 손 놓치면 안된다 카이~"

서울랜드의 놀이기구를 본 신일어린이집 김원우 군이 스님 손을 놓고 마구 뛰어가자 법성 스님이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김군을 불렀다. 스님의 외침에 김 군은 이내 돌아와 스님의 손을 잡았다.

스님들은 중앙승가대 니르바나승가봉사단(회장 혜강) 단원들이다. 스님들은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마련한 '아기부처들의 봄꽃 나들이'에 일일 봉사단으로 참여했다. 스님들은 여느 유치원 교사 못지 않은 다정함으로 장애 어린이들을 보살폈다.

반야어린이집 주지연 원장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봉사자가 스님이라고 해서 더 믿음이 갔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봉사단 보다 스님들을 잘 따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아나율 · 연꽃 · 반야 · 신일 · 사당어린이집에서 온 30여 장애아동과 중앙승가대 니르바나승가봉사단 스님, 지도교사 등 90여 명이 참가했다.

자선 스님은 "아이들 덕분에 벚꽃 구경 실컷 한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며 미소 지었다. 그런 스님들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아이들은 스님들의 품에 안겨 평화로워보였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스님 손을 놓지 않는 아이도 있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발달장애를 앓고 있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표정으로, 느낌으로 행복함을 표현했다. 말갛게 빛나는 햇살에 보석 같은 아이들의 웃음은 더욱 밝게 빛났다.

아나율 어린이집 김영나 교사는 "거동이 불편한 아동이 많아 실외 활동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밖으로 오고 여러 친구들을 만나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니르바나봉사단은 2009년 8월, 중앙승가대에서 도반들과 담소를 나누던 혜강 스님이 스님들로만 구성된 봉사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구성됐다. 그 자리에 있던 12명의 스님들은 뜻을 모아 창립위원회를 결성했다. 혜강 스님의 "종교인으로서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자"는 뜻이 서로 통했다. 니르바나승가봉사단이 태동한 순간이었다.

혜강 스님은 "어떻게 하면 스님들이 현실에 다가갈 수 있는지 고민하던 끝에 모임을 결성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생겼을 때 스님들이 응집력 있게 움직여야 재가불자의 이타행도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니르바나승가봉사단은 6월 창립을 앞두고 고문을 위촉한 상태다. 위촉된 고문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 삼천사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광주 원각사 회주 현고 스님 등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랜드 나들이 뿐만 아니라 건강 두부 만들기, 놀이기구, 단체 야외활동 프로그램 등 장애아동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콩을 불려서 멧돌에 갈고, 물을 끓여 부으면 순두부가 돼요. 거기에 간수를 넣고 기다렸다 틀에 넣고 꾹~ 누르면 두부가 돼요. 두부를 다 만들면 만세를 외치세요."

두부 만들기 체험장 교사들이 간수를 넣는 작업까지 마친 상태라서 두부 만들기는 순조로웠다. 아이들은 하트, 별, 동그라미 등 원하는 틀을 선택해 두부를 만들었다.

스님들과 아이들은 어느새 친해졌는지 아이들은 스님의 품에 안겨 두부를 먹기도 했다.

행사가 진행될수록 아이들의 표정은 밝아졌다.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는 라디오 공익광고에서 "지난 겨울 두 번의 눈물을 흘렸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와 장애인올림픽 휠체어 컬링에서 우리나라선수가 은메달을 땄을 때이다. 그때 장애가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알았다. 장애는 불편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처럼 장애는 불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 했다.

아이들과 스님들은 서로 다정다감했다. 아이와 손을 꼭 붙잡고 가던 혜덕 스님은 "봉사활동에 와서 아이들을 처음 봤는데 벌써 정이 쌓이는 것 같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온 보선 스님은 "보이지 않는 곳이 아픈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도움이 됐다면 보람 있는 일이다. 또 기회가 되면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재단의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장애 아동들이 긍정적인 사고로 더 큰 꿈과 희망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행사를 기획했다" 며 "소외된 이웃을 보듬으며 자비를 실천하는 니르바나승가봉사단의 봉사활동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등록된 수만 242만 명(2009년 6월 기준)이다. 이들의 95%가량이 후천적 장애인이다. 장애가 없는 4800만 국민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1%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미흡하다.

아나율어린이집 이혜경 교사는 "장애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견 없는 시선"이라며"장애인이 '보통 국민'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보살계 세워 불도 걸어가라”

하동 쌍계사 보살계수계법회 · 정대불사

하동 쌍계사(주지 상훈)는 4월 18~20일 경내 금강계단에서 제35회 보살계대법회 및 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했다.

수계법회는 쌍계사 말사인 부산 혜원정사, 서울 혜림정사, 부천 석왕사를 비롯한 경남 인근의 1300여 불자들이 동참했다. 첫 날은 보살계를 받기 위해 예불과 기도를 통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닦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수계식에는 쌍계사 조실인 고산 스님의 증명으로, 전계대화상 보광 스님, 갈마아사리 지하 스님, 교수아사리 일해 스님 등이 계사로 등단했다. 둘째 날 수계식은 부산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이 증명법사로 봉행됐다.

보광 스님은 수계에 앞서 “행복은 스스로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것이며, 그 주인이 바로 내 마음이기에 마음을 잘 쓰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며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 받은 보살계를 마음 속 굳건히 세워, 흔들림 없는 불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설했다.

회향일에는 경판과 계첩 등을 머리에 이고 금당까지 옮기며 기도 정진하는 ‘장경 정대(頂戴)’를 봉행했다.

상훈 스님은 “前 주지 원정 스님의 뒤를 이어 조실 스님의 뜻에 따라 마애불 일주문 금강문 금담보수 상가이전 등 여러 불사를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선(禪), 다(茶), 음(音)’이 어우러진 만등헌다와 함께 다맥전수회를 활성화시키고, 범패전수관의 설립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5회 육조봉찬회 정기총회 세부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심의 및 2010년 사업계획 등에 관해 논의한 후 내년을 기약했다. 육조봉찬회는 쌍계사에 정상(頂相)을 봉안한 육조 혜능선사의 돈오 사상과 참선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1976년 고산 스님 발기로 결성된 신행단체이다.

고산 스님은 정기총회에서 “태어날 때는 모두가 착한 부처인데 욕을 하면 욕하는 대로 빗나가기 마련이지만, 매일 108배를 꾸준히 하며 업장을 소멸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면 모두가 부처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며 “육조봉찬회를 통해서 부처님 제자가 돼 참다운 성불을 이루

사명연구소 설립 추진

표충사 사명 대사 입적 400주기 기념 춘계향사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활약했던 사명 대사 입적 400주기를 맞아 다채로운 추모행사가 봉행됐다.

밀양 표충사(주지 재경)는 4월 17일 사명 대사의 입적 400주기를 기념해 ‘호국대성 사명성사 추모학술행사 및 춘계향사(春季享祀)’를 개최했다.

학술제에는 △채상식 부산대 교수의 ‘임란과 임란 이후에 사명대사의 구국외교활동’ △한태문 교수의 ‘조선통신사와 사명당’ △이순욱 교수의 ‘근대 문학과 사명당 서사’ 등이 발표됐다.

재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사명 대사에 대한 봉인된 역사를 풀어 그 가치를 계승시켜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종단과 국가에서도 사명 대사에 관한 관심을 갖고 사명대사의 정신과 뜻을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행사를 기점으로 ‘사명대사 입적 400주기 추모사업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1년까지 사명 대사 연구소의 법인 설립과 정기적 국제학술대회 개최, 행적지 네트워크 구성, 전통의례 분야의 의례 재현 고증, 연구보고서 발간,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사명 대사 입적 400주기를 맞아 표충사에서 제향을 올리고 있다.

또한 10월 조선시대 소설인 <사명당전>을 바탕을 한 연극을 서울대학로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사명대사와 관련된 영화들을 모아 ‘사명대사 영화제’ 및 기념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사명 대사 선양회(가칭)의 창립 및 선양활동 △춘추 향사의 국가적 제향으로 복원 정착 △사명당 연구소 설립 △‘사명문화제전’ 개최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되고 있다.

올해 400주기를 맞는 사명 대사는 1610년 8월 26일 세납 67세 · 법납 54세로 입적했으며, 표충사는 매년 봄과 가을에 제향을 올리고 있다. 제향은 불교와 유교 의례가 공존하는 전통다례로, 영조 때부터 27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명대사의 구국 애민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학술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추모 및 선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이선균 제9대 대불련 부산동문회장

대불련 부산지부 재기 버팀목 될 터

“대불련 부산지부 재학생들에게도, 동문회에게도 중요한 시기에 동문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대불련 부산지부와 동문회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4월 21일 오후 7시 부산시 초량 소림사 무량수전에서 제9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부산동문회장으로 이선균(61, 법명 무념 · 사진)씨가 취임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79년 8월부터 매월 둘째주 일요일마다 정기법회를 봉행해, 대불련 부산지부의 지난 역사가 고스란히 밴 소림사 도량에서 제9대 동문회장으로 다시 뛰게 됐다.



이선균 동문회장은 “제가 대불련 활동을 하던 1976년 당시에는 전국 107개 대학에서 총 6000여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활동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전국 대학의 30%에도 못 미치는 100여개 대학에서 소수의 회원만이 활동하는 등 너무나 위축되고 침체된 상황으로 변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회장은 임기 중 첫 번째 계획으로 ‘대불련의 활성화 및 동문회의 내실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동문회 차원에서 현재 재학 중인 대불련 부산지부 소속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부산지역 사찰 및 교계 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해 부산의 포교하는 스님들의 모임인 ‘전법도량’(의장 심산, 동련 이사장)과 부산불교지도자포럼(회장 박수관,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 등이 잇달아 대불련 재학생들에게 후원의 러브콜을 보내온 데에 이선균 회장은 재기의 희망을 발견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대불련 부산지부의 존폐위기와 그 원인에 관해 탁상공론을 해왔다.

이 회장은 대불련 부산지부 동문회와 재학생들은 옛 명성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교계 및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예전 봉축 제등행렬은 우리 대불련과 동문 선배들이 주축이 돼 진행됐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제정하는데 1등 공신을 한 사람도 사실 우리 동문회의 오태룡 선배였습니다. 당시 용태영 변호사와 함께 고군분투한 끝에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제정됐습니다. 그때의 열정적인 참여정신을 되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불련 재학생들은 젊은이다운 열정과 패기로 여러 교계 행사에 동참하고, 동문회원들도 연륜과 노련미로 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불법홍포에 이바지할 것을 밝혔다.

대불련가 1절 노랫말에는 ‘우리는 빛을 찾는 젊은 구도자, 불타의 혜명 받아 한마음 손잡고, 시방의 중생들을 위해 몸과 마음 바치기를 다함께 맹세한 진리의 벗, 영원한 동지다’라며, 안으로는 수행정진을, 밖으로는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자는 다짐이 오롯이 담겨있다. 대학생은 곧 사회로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젊은 지성인들이다. 그런 대학생들을 참다운 불자로 길러내는 것이 바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부산지부, 부산동문회의 역할일 것이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2010부산시민연등축제를 비롯한 여러 불교계 행사에서 젊은 대학생불자들과 동문회 선배들이 동분서주할 날을 기대해 본다.

박지원 기자

해동용궁사 포교 100년대계 발원

해동용궁사가 30년 중창불사를 회향하고 장학사업으로 포교 100년 대계를 발원했다.

해동용궁사(주지 정암)는 4월 16일 대웅보전에서 ‘삼존불 봉불식’을 봉행하고, 30년간의 장기간 불사를 회향했다.

이날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전기만의 작품인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을 봉안했다. 후불탱화는 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석정 스님이 조성했다.

정암 스님은 “한 불상을 모시면 한 부처님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도량에 삼불(三佛)이 탄생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영광이고 복된 날”이라며 “지금까지 밭을 갈고 나무를 심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많은 중생들에게 풍요와 행복으로 회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해동용궁사 사부대중과 함께 장학 및 교육, 포교, 복지 등 다채로운 신행 프로그램으로 사찰의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한편 2008년 설립한 ‘해동정암장학회’를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학생들을 선발해 학업을 마칠 때까지 꾸준히 후원할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Shop
불맞이 Sale 사은품 증정

죽육기 145,000
02)2004-8216

“천안함 희생자여, 극락왕생하소서”

통도사, 수륙대재 안양지에 치어 방생

천안함 희생자를 위한 수륙방생 대법회가 열렸다.

통도사(주지 정우)는 4월 21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수륙방생 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염불의식인 ‘범음범패’와 ‘방생의식’을 결합한 수륙대재(水陸大齋)로 진행됐다.

수륙대제에 앞서 천안함 순국장병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묵념과 헌화, 발원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정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산 생명은 무명에서 벗어나도록 깨우쳐 살리고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은 천도해 어려운 가정은 다시 일어서는 기회로 삼고 나라는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4월 21일 통도사에서 수륙방생 대법회가 봉행됐다. 사진은 범음범패 의식 장면.

행사에서는 범패의식 후 최근 숲 보전을 위해 새로 조성한 안양지 연못에 치어 1만 여 마리를 방생하며 국태민안과 고혼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박지원 기자

· 노동부 지원 · 사회적기업(예비) · 초의신다 최고금상 수상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4F 입점 T:061-285-0301~2

연잎 찰밥 | 햇차 선주문 금액할인 | 제다 실습 | 차문화 연수


부처님 오신날
행사가 많은 5월,
무안 회산백련지 인근에서 생산된
연잎으로 정성껏 싼
연잎찰밥을 대접하세요.
연잎찰밥 10개 30,000원 냉동포장
제조원 : 일로농협
판매원 : 초의차사업단
● 차씨를 무료로 드립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4F에서
무료시음 및 차씨 보급 행사를 합니다.
(4월 15일부터~4월 30일)
※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070-4107-8654

단 한 번의 기회
노동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햇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품질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세계가 인증한(최고금상)
“다성 초의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착순 선금 주문을 받으니,
착오 없이 기간 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만통(1통 100g) 주문 받습니다.
우전은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세작 50,000원→20,000원(4월20일까지)
중작 30,000원→10,000원(4월30일까지)
배송 : 4월25일~5월30일
※ 행사기간 이후에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 됩니다.

차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 제다실습
· 차잎따기
· 차의 종류와 제다법 특강
· 제다실습 및 심사평가
● 실습 茶 종류
2010 햇차(녹차) · 청차 · 황차
보이차 · 떡차 제다실습
※ 단체 · 개인 모두 접수 가능하며 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제다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 실습비 : 1인 1만원, 차잎 1kg당 1만원~2만원 (5월 부터)

한국차문화연수
초의선사 행다법
한국의 차문화사
차의 정신, 다도관
한국전통 행다법의 역사와 방법
초의선사 헌다의식
차에 관한 내용으로 석용운스님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 단체만 신청 가능하며 단체일정에 따라 원하는 내용의 강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수비용 1인 1박 2일 2만원~3만원.
※ 초의선사(전남 무안군)에서는 연중 무휴로 차문화 견학 및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초의전통차문화발전사업단 (사)초의학술문화원 ·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공동주최 입금 : 농협 635070-51-049724 일지암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팩스 : 061-285-0304 choyeetea.co.kr 후원 : 무안군


▲초의선사 동상

▲초의선사 생가

▲초의선원

▲조선차역사박물관

▲청와대사랑채 무료시음

▲제다체험

▲한국차문화특강

▲다도체험

▲특허증

▲최고금상 상패

어린이 명예경찰 템플라이프 화순 쌍봉사

어린이 명예경찰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화순 쌍봉사(주지 영제)에서 진행됐다.

쌍봉사는 4월 20일 화순어린이명예경찰 40여명을 초청, 템플라이프 행사를 개최했다.

화순만연초교, 제일초교 학생으로 구성된 어린이 명예경찰 회원들은 이날 쌍봉사를 방문해 사찰체험, 불교문화제 알기, 단청그리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영제 스님은 환영의 말을 통해 "명예경찰이 된 여러분은 누구보다 질서를 준수하고 바른 인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청그리기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3회째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한 제11기 어린이 경찰단원은 매년 어린이 경찰관, 학교 지킴이 등으로 1년간 활동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산작법 시연회 광주 수덕사

광주 수덕사(주지 혜명)는 2년 여의 가사불사를 회향하고 광주 시민을 위한 영산작법 시연회를 개최했다.

수덕사는 4월 18일 경내에서 사단법인 전통불교 영산회(회장 혜령)회원들과 호산 스님(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을 비롯해 재가불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덕사 가사불사 회향식과 영산작법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호산스님의 축사와 시련의식, 신중작법, 가사점안과 이운, 천안함 희생자 위령 천도재, 가사불사 동참자 축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혜명 스님은 "가사불사 동참 공덕으로, 가정에 지혜로운 삶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부터 진행한 가사불사는 초하루, 보름법회, 108 참회기도를 통해 불자들의 서원을 가사에 담아 회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중바위산 이름 되찾기 서둘러야

전주 승암산, 가톨릭 순교자성지 기리는 치명자산으로만 표기





(왼쪽)수행승을 닮았다하여 불려진 전주 승암산에는 876년 창건한 승암사를 비롯한 불교문화재가 많은 곳이다. 최근 도로표지판에서는 승암사가 있는 승암산을 가톨릭 순교 성지인 치명자산이라 표기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위쪽)전주시내 주요도로표지판에 치명자산성지만 표기돼 있다. 불교계에서는 치명자산성지와 승암산을 함께 표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님이 참선하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중바위산으로 불리던 전주 승암산(僧巖山)이 가톨릭 유적지인 '천주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를 기리는 성지'라는 뜻의 치명자산(致命者山)으로만 표기돼 전북 불교계를 중심으로 산이름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립지리원의 자연지형명에는 승암산을 '중바우'로 표기하고 있다. 신라 헌강왕2년 (872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승암사, 동고사, 남고사 등의 고찰과 후백제 견훤이 축조한 동고산성, 견훤성터 등 유적이 남아있는 승암산을 전주시는 시내 도로표지판에 '치명자산성지'라고만 표기해 종교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승암사 주지 도광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은 "그동안 여러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승암사도 지방 유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다. 성지라는 표현은 특정종교에만 국한된 표현임으로 승암산과 치명자산을 함께 병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도 2006년 한 지역일간지 칼럼에서 "전주를 비보하기 위해 스님들과 선각자들이 동서남북에 사찰을 창건하여 동고사, 남고사, 서고사, 북고사를 있게 하였음에도 그 뜻과 유지를 받들기는커녕 본래 승암산, 중바위산으로 불리던 동고산 산 이름도 어느새 치명자산이라 슬그머니 바꿔 부르고 거리마다 도로 표시판에 새겨 본래의 승암산 이름조차 없애 버렸으니 어찌 전주를 예도라 할 것이며 조선의 풍패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전주시 등은 2006년부터 천주교 성지와 한옥마을, 오목대, 이목대, 전주천 등 관광명소를 결합해 국제적인 종교성지로 구축해 왔다. 한국순례문화연구원과 전북도는 5000억원을 들여 종교별 성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해 2009년 10월 31일 전주시 한옥마을의 경기전에서 '아름다운 순례길'을 일반에 개방했다.

순례길은 전주와 완주, 익산에 있는 천주교 · 원불교 · 개신교 · 불교 등 4대 종교 성지를 연결한 것으로 180km에 이른다. 이 길에는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익산시 금마면), 1845년 한국인 첫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가 머문 나바위 성지(익산시 망성면)와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10여 순교자가 묻힌 천호성지(완주군 비봉면), 호남 최초로 1893년 설립된 서문교회(전주시 다가동), 신라 말기에 창건된 송광사(완주군 소양면)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과 유춘옥씨는 "특정 종교 편향 의도는 없으며 각 종교 간 성지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순례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도로안내판에 표기하게 됐다"며 "각 종교 간의 유적을 함께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 전주교구와 전북도 관광협회 등은 최근 전주 천주교 성지들을 세계적 순례성지로 관광 자원화 방안을 조심스럽게 공론화하고 있는 가운데 3월 12일 전주시는 전통문화센터에서 전북지역 종교유산의 창의적 관광활성화를 위한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남을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광주전남신도회장 취임 지용현 회장



"30년 절에 다니면서 호남불교계가 침체되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호남불교 활성화에 보태겠습니다."

광주전남신도회장에 취임한 지용현 신도회장(사진)이 광주전남 신도들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제12대 회장 지용현 회장은 호남불교활성화를 화두로 열심히 뛸 것을 취임일성(就任一聲) 했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는 4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소통과 화합의 대법회'를 열고 12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성오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 등 2000여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지용현 회장은 호남불교활성화를 위해 신도회 조직 구성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지용현 회장은 "그동안 신도회는 산하 조직이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였다. 이런 여건을 극복하고자 그동안 연합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한 지역별 신도조직을 규합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구체적 방안으로 각 지역별, 사찰별 신도회 조직과 연석회의를 통해 조직을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불자의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각 사찰의 유치원, 어린이법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학생 불자들의 현안에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지용현 회장은 호남불교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선센터' 건립과 '불교테마공원'을 조성할 것을 다짐했다.

지용현 회장은 "호남은 한국불교의 근원지이자 많은 불교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100년 된 타 종교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며 "불교계의 힘을 모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금산사 홍보팀장 강만곤 (여름커뮤니케이션 대표)

"비움 뒤엔 마음의 평안을 채워야"



금산사 템플스테이에는 1년에 약 5000여 내 · 외국인이 참가한다.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중에 단연 최고 인기다. 템플스테이 운영에는 실무자들의 숨은 노력이 없으면 운영 자체도 힘들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맨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지금까지의 인기를 얻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강만곤(법명: 지덕 · 사진)금산사 홍보팀장이 피땀 흘린 결과다.

강 팀장이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대학 휴학 중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을 만나 서울 영화사와 전북 불교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부터다. 청년회 활동을 통해 익힌 습의 덕에 군에 입대 이후 미숙한 군종병을 대신해 전역할 때까지 직접 집전했다. 전역 후에도 금산사에 적을 두고 청년회 활동은 물론 전주에서 청년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IT회사를 운영하는 중에도 그는 본업은 뒷전인 채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성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 초창기 3년 동안은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는 격주로 진행된 금산사 2박 3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참가자 모집, 진행에 뒷마무리까지 직접 관리했다.

금산사뿐 아니라 전국 주요 템플스테이에도 그의 열정이 숨어있다. 여름커뮤니케이션 기획홍보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강 대표는 특히 산사체험 프로그램 기획 홍보에 빼어난 재능을 보여 프로그램 매니저로 2007년 부안 내소사의 '트래킹 템플스테이'를 개발했다. 또 백양사, 화엄사, 금산사의 주요 산사체험 프로그램의 기획 홍보담당을 하기도 했다. 영월 법흥사 '몽당연필 템플스테이'를 기획하고 홍보 마케팅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컨설팅팀의 일원으로 템플스테이 정책과 브랜드 개발은 물론,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제2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전의 기획을 맡았다. 바쁜 와중에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강 대표는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논문제출만 남겨두고 있다.

2000년부터 서울에서 'KDI 정보통신'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할 때는 조계종 총무원과 교육원의 종무행정 프로그램이나 성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납품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의 홍보팀장이었던 그는 공생봉사단을 이끌며 매월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 일손이 필요한 산중사찰을 찾아 칡넝쿨 제거, 시설물 보수, 땔감을 마련해주는 등 궂은 일도 도맡아 하고 있다.

오는 5월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석탑과 석등을 위주로 한 보물급 불교문화재의 아름다운 영상을 기록하기 위해 전주영상회 소속 사진작가들과 함께 '제1회 불교문화유산 사진전' 준비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산사체험을 통해 비우고 가는 이들이 떠날 때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시은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비움이 있으면 채움이 있어야 한다는 강만곤 팀장의 숨은 공로에 전국 템플스테이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경전을 보고 듣고 배운다.
새로운 **휴대용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

그동안 불법을 공부하고 경전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예불 경전은 어려운 학문이나 뜻 모를 낱말로 되어있어 행자들이나 불자님들이 경전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은 간편한 휴대용 **아이센스 T-108학습기**가 출시되면서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학습방법인 책을 본다든지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방식을 벗어나 누구나 쉽게 조작하여 화면을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의식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불경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들어온 불경에 '백천만겁난조우'라는 경구가 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부처님 뵙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전의 어려운 낱말과 뜻은 아이센스 학습기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물어 볼 필요가 없다. 휴대가 간편하고 화면식별이 뚜렷해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학습기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보현행원품, 화엄경약찬게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의 염송경이 수록되어 있고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49재편 염송의범도 수록되어 있다.

이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가 출시되어 경전과 의식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불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연아카데미 02)701-5161~2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건달들의 템플스테이, "형님, 여기는 절입니다!"



영화 '달마야 놀자'의 촬영지
❾ 김해 은하사(銀河寺)

"스님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 절대 안 되지요."
"큰스님한테 이르기 없깁니다."
"피차 마찬가집니다."

산사의 숲에서 스님들과 건달들이 뒤엉켜 한 바탕 패싸움을 하고 난 후 건달 두목과 스님이 숨을 헐떡이며 나눈 대화다.

경을 칠 일이다. 다행히 영화의 한 장면이다. 박신양, 김수로 등이 나오는 영화는 2001년에 개봉한 '달마야 놀자'다. 제목도 경을 칠 일이다. 감독은 영화의 대부분을 은하사에서 찍었다.

영화에서 보았던 낯익은 풍경들이 다가왔다. 은하사의 역사는 한국불교 역사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은하사는 서기 42년 가야국 김수로왕 때 인도에서 건너온 허황후의 오빠 장유 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오는데, 공식적인 한국불교의 역사인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서기 372년'보다 300년이나 앞서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역사는 가락국 시절의 불교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삼국유사 3권 '어산불영' 편에 나오는 김수로왕의 이야기 속에는 이미 불교가 존재하고 있어 가락국 시대의 불교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삼국유사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한국불교의 역사는 300년을 더해야 한다. 아무튼 은하사는 아직 역사의 바깥에 있고, 그 절 안에는 건달들이 들어와 있다.

"여기 오야붕 나오라고해"

사고치고 숨을 곳을 찾아 헤매던 건달 다섯이 절에 들이닥치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큰스님을 '영감님', '스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달 두목 재규에게 큰스님이 묻는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더두말구 일주일만 여기 있겠습니다."

가락국의 고찰 은하사에서 전대미문의 템플스테이가 시작됐다.

가락국의 은하사는 아수라장이 됐다. 불사에 쓸 기왓장을 쌓아놓고 격파연습을 하고, 대웅전 마당에서는 축구시합이 벌어진다. 법당에서 내온 종으로 축구 골대를 만들고, 법당 앞에 서 있는 석등은 야간용 해우소가 돼버렸다. 보다 못한 대중 스님 네 분이 건달들을 몰아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역부족이다.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스님들과 건달들을 지켜보던 큰스님은 할 수 없이 스님들과 건달들에게 문제를 풀어내는 쪽의 손을 들어주겠다고 한다. 스님이 낸 문제는 '밑 빠진 독에 물 채우기.' 제한시간 10분.

스님들과 건달들이 깨진 항아리를 들고 이리저리 난리를 치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은 채워지지 않는다. 시간이 임박해 왔을 때, 두목 재규는 갑자기 "항아리 들어!"라고 소리치며 부하들과 함께 항아리를 들고 연못으로 달려간다. 연못 앞에 선 재규는 밑 빠진 항아리를 연못 속에 던진다.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철철 넘쳐 흐른다. 뒤따라온 노스님이 빙긋이 웃으며 돌아선다.

'달마야 놀자'는 기존에 무겁게 만들어진 불교영화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영화다. 엄숙한 종교의 색채 없이 장작더미에 장작을 던지듯 가볍게 던지는 대사와 자연스러운 웃음 속에서 불법과 인연법을 그려간다. 건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 속에 숨어 있던 본연의 모습을 조금씩 보게 되고, 스님들도 조금씩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수행자로서의 마음을 점검하게 된다. "청명아, 중은 말이야 자기 수행만 열심히 한다고 성불하는 게 아니다."

큰스님이 열반에 들었다. 재규는 열려진 문틈으로 큰스님의 빈자리를 바라본다.

"스님, 저희를 이렇게 감싸주는 이유가 뭡니까?"

"너, 밑 빠진 독에 물을 퍼 부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채웠어?"

"그냥 항아리를 물속에다 던졌습니다."

"나두 밑 빠진 너희들을 그냥 내 마음 속에 던졌을 뿐이야."

건달들의 템플스테이는 끝이 났다. 날치는 머리를 깎았다. '무량'이란 법명을 받았다. 삼

국유사의 가락국 수로왕이야기에서도 독룡을 도와 나라의 농사를 방해하며 살던 나찰녀(羅刹女 · 사람 잡아먹는 악귀)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계를 받아 독룡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된다. 불상 밑바닥의 '메이드인 차이나'를 보고 '부처님은 중국사람'이라고 말하던 건달들이 공손하게 합장을 하고 절을 나선다.

아직 비밀을 풀지 못한 가락국의 절 은하사. 신어산의 바위벽들이 저녁놀에 지그시 눈을 감는다. 산을 넘어가는 저녁놀이 뒤를 돌아본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쉬지 않고 말해주고 있건만 언제쯤 그 말을 알아들을까.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영화에서 건달 재규는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 이 연못에 항아리를 던진다.

은하사 가는 길

동김해 IC에서 인제대까지 가면 신어산 은하사 이정표가 나온다.
대중교통은 기차 타고 구포역에서 하차해서 육교 건너 8번 버스를 이용해 김해대학에서 내린다. 학교 입구에서 은하사까지는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삼가 모십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사부대중의 애정어린 원력과 성원에 힘입어
한국불교 최대전법포교도량인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발대식을 봉행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불사원만 성취를 발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0년 5월 4일 (화) 14:00 ~ 16:00
● 장 소 : 논산훈련소 불사 현장 (충남 논산 연무 소재)
1부 – 발대식 (14:00 ~ 15:00) 2부 – 기념촬영 및 다과회 (15:00 ~ 16:00)
※행사 참석여부를 4. 23(금) 까지 교구 종무실에 통지하여 주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논산훈련소 불사 후원계좌 ◀
제일은행 325-20-221949 예금주 : 군종특별교구



연무대 법당불사 증 명 대한불교조계종 총 무 원 장 자 승
연무대 법당불사 추진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장 자 광 합장
연무대 법당불사 추진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의정
연무대 법당불사 건축위원장 구자선 · 박정이 · 전인구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3>

다시 무슨 부처를 찾는가?

한 스님이 물었다.
"조주의 1구는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반구(半句)도 없어."
스님이 물었다.
"어찌 화상(和尙)께서 없을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노승은 1구(一句)를 인정하지 않아."

問 如何是 趙州一句 師云 半句也無 學云 豈無和尙在 師云 老僧不是一句

일구는 선사들이 던지는 한 마디이다. 보통 선사들은 선객들을 접화할 때 자주 쓰는 일구를 가지고 있다. 그 일구는 선에 들어맞고 도에 들어맞는 한 마디이다. 이 일구는 가끔 선객들의 화두가 되기도 하는데, 선의 핵심을 관통하는 한 마디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객들이 귀중하게 여긴다.

학승은 조주 스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한 마디를 듣고 싶어서 조주의 일구를 물었다. 그러나 조주 스님은 일구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아니, 조주 자신은 평소 반구조차 두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선(禪)의 핵심에 들어가려면 일구조차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선의 핵심부를 아는 데에는 정제된 일구조차도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가끔 선승들이 선구 한 마디나 선적인 사상이 담긴 구절을 거울로 삼으면서 평생 간직하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조주 선사는 그러한 것을 전혀 두지 않고 살아간 선승이다.

진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혹 기이한 행동이나 방할을 자유롭게 구사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도의 실체를 그대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이 문답은 어떤 문구나 사상에 사로 잡혀 있으면 그 문구 때문에 오히려 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한 선문답이다.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경계에 유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은 한 쪽 다리를 드리웠다.
스님이 곧 신발을 내놓았다.
조주 스님은 발을 도로 끌어당겼다.
스님은 아무 말이 없었다.

問 如何得不被諸境惑 師垂一足 僧便出鞋 師收起足 僧無語

선은 유혹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 혹은 온갖 진리나 주의주장은 모두 허망한 개념 위에 계속 지식을 쌓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세상사 이치는 알맹이는 없이 모두 껍데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양파와도 같다. 따라서 세상사 이치는 진실에 근접하지 않는다.

선을 추구하는 학자들은 아무리 작은 것에도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언제 어느 때든지 본래 마음을 잘 지키고 어떤 상황에도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희비애락과 분노에 대해서도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조주 선사는 학승이 신발을 내놓자 스스로 들었던 다리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보임으로써 아무리 작은 것에도 유혹되지 않는 경계를 보여주었다. 도를 실천하는 것은 일상사에 있는 것이지 특별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어떤 관리가 물었다.
"부처님이 계실 때에는 일체 중생이 부처님께 귀의하였지만 부처님이 멸도하신 다음에는 일체 중생이 어디에 귀의합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중생이란 있은 적이 없어."

선사들의 한마디는 핵심을 관통한다

아버지를 죽인 자는 4은을 저버린 자

관리가 물었다.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되물었다.
"다시 무슨 부처를 찾는가?"

有俗官問 佛在日 一切衆生歸依佛 不滅度後 一切衆生歸依什麽處 師云 未有衆生 學云 現問次 師云 更覓什麽佛

흔히 사람들은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부처님은 없어졌다고 말하는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불교를 절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부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중생은 없었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사람이 어리석고 집착이 강해서 자기 자신을 부처로 보지 못하고 중생으로 보는 것이다.

진실을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은 아무나 갖춘 것이 아니다. 객관적 관점을 얻은 사람만 진실을 본다. 선사는 깨달음을 통해 영혼에서부터 관점이 바뀐 사람이다. 선사는 항상 진실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간혹 선사가 바라보는 눈은 도인의 안목이기 때문에 중생과 다른 차원에서 본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은 중생이 보는 눈과 선사가 보는 눈은 같다.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은 없다. 다만 선사는 중생을 모두 진짜 부처로 보지만 중생은 스스로 부처인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위 문답에서 조주 스님은 마지막으로 "중생을 두고 다시 또 무슨 부처를 찾는가?"하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중생이 부처인데 도대체 무슨 부처가 별도하였단 말인가?" 하는 날카로운 지적인 것이다.

한 스님이 물었다.
"사은삼유(四恩三有)에 보답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있다."
스님이 물었다.
"어떤 자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아버지를 죽인 자이다. 너는 다만 이 한 물음이 부족하였구나."

問 還有佛報四恩三有者也無 師云 有 學云 如何是 師云 這殺父漢 靠你只少此一問

<심지관경>에 4은은 삼보(三寶)의 은, 국왕의 은, 부모의 은, 중생의 은이라고 했다. 3유는 3계를 말하기도 하고, 혹은 생유(生有: 태어날 때), 본유(本有: 성장했을 때), 사유(死有:죽을 때)를 말하기도 한다. 결국 일생 동안 받은 4가지 은혜가 4은3유(四恩三有)이다.

아버지를 죽인 자는 당연히 4은을 저버린 자이다. 그 과보는 매우 무거워서 고통이 쉬지 않는 무간 지옥에 들어가 수많은 시간을 참혹하게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 아버지를 실제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단절한 사람이 있다. 바로 출가자이다. 출가자는 법을 체득하기 위해 엄정한 마음을 가져야 하므로 부모 자식에 대한 애착을 끊어내야 한다. 혹 도를 얻어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해도 일체 중생의 어버이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적인 부모에 얽매이면 안 된다. 출가 사문은 글자 그대로 세속을 벗어난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죽인 사람이다.

출가인이 열심히 수행하여 도를 얻으면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국왕과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되지만, 혹 일생동안 수행한다고 하면서 결국 도를 얻지 못하면 부모와 국왕의 은혜는 고사하고 자기 한 몸조차 제대로 건수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그것만큼 허망한 인생은 없을 것이다.

국왕과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 과보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당장 일생을 산중에서 허비한 죄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8

단식은 무명 · 악업 끊는 것

#재식(齋食: 공양하는 것)

또 공양에는 다섯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는 가르침을 맛보고 기뻐하는 법희식(法喜食)인데 여래의 정법에 의지하여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선열식(禪悅食)인데 안팎이 맑고 고요하여 몸과 마음이 즐거운 것이고, 셋째는 염식(念食)인데 항상 부처님들을 생각하여 마음과 입이 상응하는 것이고, 넷째는 원식(願食)인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라도(행 · 주 · 좌 · 와)항상 선한 일을 서원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해탈식(解脫食)인데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여 세상의 번뇌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재식(齋食)이라 하느니라.

[원문]

可名爲齋 又持齋者 食有五種 一者法喜食 所謂依如來正法 歡喜奉行 二者禪悅食 所謂內外澄寂身心悅樂 三者念食 所謂常念諸佛 心口相應 四者願食 所謂行住坐臥 常行善願 五者解脫食 所謂心常淸淨 不染世塵 持五淨食者 名爲齋食 若復有人 不食如是五種淨食 自言持齋 無有是處

[해설]

일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 하게 되면 좋은 인연들이 옵니다. 본래 내 마음이 부처며 이 우주가 본래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일념으로 정진하게 되면 구태여 내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옵니다.



동성 스님 作

이제까지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수행을 통해서 본래 마음자리를 깨닫고 보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것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소유의 가르침입니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진 할 때 내 마음도 맑아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좋은 인연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하나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도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능력을 못 쓰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마음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 참 진리의 가르침에 행복을 느끼면서 하나의 행을 하고자 노력 하는 것이 첫 번째 공양입니다.

선열식(禪悅食)은 육안의 눈을 갖고 사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쉬운 말이 아니지만 진리 실상에서 우주를 마음에서 본다면 물질이 아니기에 안과 밖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진을 해서 안과 밖이 없는 둘이 아닌 하나의 소식을 알고 행한다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두 번째 공양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의 번뇌로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일으키는 분별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마음을 두고 행하는 것을 염식(念食)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세 번째 공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혀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불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원식(願食)입니다. 경계에 끄달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마음속에 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해탈식(解脫食)입니다. 수행할 때는 본래 자리에 마음을 두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행을 하더라도 바로 놓을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또 단식을 한다는 것도 무명과 악업의 음식을 끊는다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심신을 함부로 하여 온갖 악업을 지으며, 여러 가지 욕망에 깊이 빠져 부끄러워 할 줄 모르면서 음식만 먹지 않으면 자연히 계율을 지키는 것이라 하니, 철이 없는 아이가 썩어 문드러진 시체를 보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지극히 옳지 못한 일이니라.

[원문]

又言斷食者 斷無明惡業之食 世有迷愚 不悟斯理 身心放逸 造諸惡業 貪恣欲情 不生慙愧 唯斷外食 自爲持齋 何異癡兒 見爛壞死屍 稱名有命 必無是處

[해설]

달마 스님이 말하는 단식은 무명과 악업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마음에서는 온갖 욕심을 끊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진리인 하나의 도리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가운데 욕심을 부리며 악업 짓는 것을 끊는 것이 단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만 먹지 않으면 계율을 지키는 것이라 하니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내 마음의 불사 마치지 못해 늘 직무유기



노적사 주지 종후 스님

종후 스님은 ...

전북 완주에서 태어난 종후 스님은 1967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월산(月山)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조계종 중앙교육원 1기 수료의 이력을 가진 스님은 1976년 불국사 강원 대교과를 마쳤다. 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중앙종회의원, 고양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 회장,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이사, 영등포교도소 교정위원 등을 지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학과와 불교경영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스님은 수필집 〈노적사의 봄〉, 교리서 〈불교사상의 바른 이해〉 등을 출간했다.

따지고 분별하면 불교는 어렵고 지루한 망상

불자의 하루하루는 그대로 생명운동 돼야 해

북한산에 봄이 왔다. '북한산'이냐 '삼각산'이냐 산 이름을 두고 고양시와 서울의 도봉구가 입씨름을 하고 있지만, 자연은 인간의 소견과 상관없이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잎을 틔운다. 계곡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요란하다. 산 들머리부터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고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살구꽃과 벚꽃의 연분홍에 취한다. 운하교에서 올려다보니 노적봉도 봄기운을 한껏 머금고 있다.

노적사(露賊寺). 노적봉 아래 위치한 연유에서 절 이름이 노적사다. 노적봉은 북한산의 수많은 봉우리 가운데 가장 중앙에 위치하여 다른 봉우리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삼각산이라고 할 때의 삼각은 세 개의 봉우리를 중심으로 한 산을 의미한다. 이 세 개의 봉우리는 백운대 국망봉 인수봉을 말하기도 하고 백운대 국망봉 노적봉을 꼽기도 한다.

절을 창건한 계파성능 스님이 그린 '북한산도'를 보면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문수봉 보현봉 등의 봉우리 가운데 노적가리처럼 우뚝 솟은 노적봉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의 감로(생명의 상징)가 쌓여서 봉우리를 이루었으니 노적봉은 그대로 생명의 기운과 진리의 향기를 품은 영봉인 것이다.

1712년(숙종 38) 진국사(鎭國寺)란 이름으로 노적사를 창건한 성능 스님은 화엄사 각황전을 중건한 스님이다. 성능 스님의 권선모연에 자신의 가난을 한탄하고 후세를 발원하며 스스로 연못에 몸을 던졌던 노파의 후신으로 태어난 공주의 손에 '장륙전'이란 글씨가 쓰여 있었다는 내용의 화엄사 각황전 중건 설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팔도도총섭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성능 스님은 북한산성 축성과 여러 사찰을 창건하고 승병을 관리하는 등 빈틈없이 소임을 완수했다. 스님이 남긴 〈북한지〉에 '노적봉 아래 중성문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85칸이다'라는 진국사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진국사는 언제 어떤 연유인지도 모르게 폐사가 돼 빈터만 남아 있었다. 1960년 무위 스님과 불자들의 발원으로 절이 다시 지어지고 이름을 노적사라 했으며 1977년부터 종후(宗厚 · 69) 스님이 주지를 맡으면서부터 차분하게 중창불사가 진행돼 지금 대가람의 면모를 갖췄다.

돌계단을 올라 노적사 적멸보궁 앞에 이르니 마당을 급히 지나가는 종후 스님이 보였다. 마침 다음날(4월 20일)이 '국민화합 조국통일 세계평화를 위한 노적사 비로자나불 기원대재'여서 스님과 불자들의 손과 발이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각자 맡은 곳에서 활기차게 자신의 일을 하는 불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꽃이었다. 노적사의 비로자나불 기원대재는 호국호법의 가르침을 폈던 성능 스님의 창건원력을 계승하는 중요한 행사다. 마당에 서서 인사를 드리고 "30년 넘도록 불사를 하시어 이렇게 큰 도량을 이루셨으니 보람도 크시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종후 스님은 짧게 답했다.

"직무유기(職務遺棄) 한 거지."

의외의 한 말씀에 머리가 띵했다. 직무유기라. 초라한 도량을 35년 동안 일구었는데, 여러 전각을 새로 지어 사격(寺格)을 일신하고 다양한 법회를 통해 많은 중생들이 귀의하여 마음 밝히게 했는데 왜 직무유기라 하실까?

"약속을 하고 보니 오늘이 이렇게 바쁜 날이군요. 어서 들어가 차나 한 잔 나눕시다. 현명하신 독자님들께 내가 뭐 드릴 말씀이나 있는지, 자격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단장한 동인당(東印堂)에서 직무유기에 대한 궁금증을 다시 여쭈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있을 수 없는 성격이라서 지난 세월 많은 일을 했고 그 결과로 도량이 정리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내 마음의 도량은 아직 불사를 마치지 못 했으니 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옷(법복)을 입은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일대사를 해결하면서 인연 중생들의 마음에 등불을 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늘 안의 일보다 바깥일에 더 끌려 온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보살도를 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위로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 그런데 혹자는 묻는다. '진리와 교화에 위아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냐'고. 종후스님의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확답이 아닐까? 위아래를 따지지 않는다. 그저 한마음 속에서 찰나의 간격도 없이 안살림과 바깥살림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보살은 분별하지 않고 차별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안과 밖이라는 허울도 사실은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깨달음 깨달음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도 말하는데, 도대체 깨달음은 어떻게 입증될 수 있습니까? 깨침은 안쪽의 일인데,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변(思辨)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단언해요. 이렇게 따지고 분별하다보면 불교는 도무지 어렵고 지루한 망상덩어리가 되고 말아요. 〈법화경〉 '방편품'에서 가르치듯, 드러나는 모든 모습과 행하는 모든 짓은 방편이지 궁극이 아닙니다. 그 방편 속에서 궁극을 가려내는 사람이 참사람입니다. 분별심을 타파하고 차별상을 허물어뜨리는 곳에서 깨달음의 싹이 돋고 그 싹은 곧바로 자비의 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나 분별망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안살림과 바깥살림이 여여(如如)하다고 할 수 있

휴휴암 지혜관세음보살님 점안식

휴휴암 앞 동쪽 끝자락에 높이 53자 지혜관세음보살님과 좌우 협시불로 동해 해상용왕님 남순동자님 거대한 용선 등을 3년 전부터 조성불사를 하여 경인년 **5월 7일 (음 3월 24일) 관음재일날 점안식을 봉행**하게 되어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들을 휴휴암으로 초대합니다.

휴휴암 사부대중 일동

◆ 5월 6일 : 전통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전 야 제 공연'
◆ 5월 7일 : 점안식 법어 및 오늘은 좋은날 '마당놀이 공연'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 033) 671-0093, 0094, 0095



이름다운 연꽃!
향기로운 연꽃!

집에서 키워 보세요.

보현선원에서 연꽃새싹을 불자님께 무료로 분양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꽃 등 밝히듯 내 마음도 연꽃같이 되길 발원하며 예쁘게 키워 보세요.

'5월 14일(음, 4월 1일) 오전 10시' 부터 선착순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사월 초파일 연등 접수 합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4동 1184-3 국악고등학교 정문 앞 보현선원 02) 579-3690

깨달음 지상주의는 실천 외면

겠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수행자나 불제자는 스스로 부끄러워야 하고 스스로 직무유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핀다. 분별심과 차별상이라는 진흙탕을 벗어나면 그곳이 연화장세계 청정국토다. 종후 스님은 수행자로 살아온 세월들에 한 없이 감사한다면서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바랑 메고 떠날 수 있는 운수의 길을 동경하고 있다고 했다. 수행자에게 떠남의 의미는 나이가 들어도 머리지 못하는 몸살 같은 것이다. 한 곳에서 불사를 하며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 그렇게 자유롭게 떠나는 꿈이 있었기에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의 행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종후 스님은 "우주만물이 다 청정법신인데 누가 누구를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느냐"는 말로 자연파괴를 부추기는 각종 개발 사업들을 나무랐다. 자연의 순환성을 무시하고 직선논리로 들이대는 삽질의 결과는 인간에게 돌아오는 엄청난 재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연도 하나의 생명체다. 그래서 인간의 개발논리로 인해 상처 나고, 상처 난 자연은 스스로 자활(自活)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자연의 자활은 인간에게 감당하지 못할 재앙이다. 인간이 살기 위해 몸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 때가 돼 인간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자연이 이 우주에서 인간을 도려낼 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종후 스님은 불교는 그대로 생명의 종교임을 강조하며 불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생명운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나무에 꽃이 피어 정법안장(正法安藏)이 되고 잎이 무성하여 열반묘심(涅槃妙心)을 이루고 열매가 무르익어 실상무상(實相無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그 가르침은 경험으로 축적되어 언어문자를 빌어 대장경을 이루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말세(末世)를 향해 다가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지식의 확산은 점점 인간에게 유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문제는 물질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마음을 윤택하게 해야 함에도 그 반대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후 스님은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무시하는 탓이라고 말했다.

"인과법(因果法)만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달라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들 인과가 뭔가를 모르진 않아요. 잘 알고 있으면서 행동은 그에 부합되지 않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과거 사람들에 비해 얼마나 더 똑똑합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 다시 말해 '선인선과(善因善果 惡因惡果)'의 간단한 이치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몸으로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구부정하게 완만하게 흘러가는 물길을 직선으로 만들고 강둑에 의지하고 사는 숱한 생명들은 아랑곳 않고 시멘트로 강변을 단장한다고요? 그걸 개발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개발입니까? 자연의 질서를 위배하고 생명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일이 향상되는 일이 아닌 줄은 삼척동자도 알아요. 자연의 흐름을 인정하고 생명의 가치를 더욱 존중하고 부양하는 일이 진짜 개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한 인연을 지어놓고 좋은 열매를 따먹으려 한다면 자연이 허락해 줄까요?"

온 나라가 떠들썩한 4대강 개발 사업은 선인선과 악인악과라는 '법(佛法)'의 안목에서 생각할 때 인간만이 아니라 우주법계에 어떤 것이 유익한가를 따져야 할 문제라는 것. 그러나 견해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보다는 하염없이 대립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다.

"그게 바로 중생심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이지요. 한쪽만 보면서 전체를 보고 있다는 착각. 이를 전도몽상이라 하던가요? 반대론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다른 입장들을 설득하여 꿰어 맞추면 된다는 아집이 세상을 '불타는 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를 <금강경>에서는 4상(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공동체적 노력이 없이는 세상이 편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불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수행에만 몰두하고 세상일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구덩이에서 혼자 살아나겠다고 앉아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중생심을 버리면 부처가 되는가? 중생심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옛 스승들은 말로 떠들지 말라고 했다. 글로 남긴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라고 했다. 말하고 글 쓰는 사이에 이미 진리는 중생심의 영역에서 또 하나의 망상으로 고착될 뿐이라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不思善 不思惡)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아상(我相)을 벗어나려고 생각하면 아상에 잡히고, 인상(人相)을 떠나려고 하면 인상에 끌리고, 중생상(衆生相)을 떨치려고 하면 중생상 가운데로 떨어집니다. 수자상(壽者相)을 잊으려고 하면 수자상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발버둥 칠수록 깊이 빠져드는 수렁과 같은 것이 번뇌의 실체인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겠다, 혹은 이루겠다는 목표와 함께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왜곡시키는 깨달음 지상주의는 깨달음에 대한 공허한 이론만 강조하고 실천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진정한 불교가 아닙니다. 갈 곳을 정했으면 길을 떠나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십리 밖의 우물물을 마실 수 없는 겁니다. 네 가지 상에 사로잡혀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네 가지 상을 자기화 시키고 그 속에서 자기를 녹여버리라는 겁니다. 안살림 따로 바깥살림 따로가 아니라 안과 밖이 하나로 돌아가는 살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생심은 둘로 나누는데서 비롯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사에 매진하다보니 안살림을 잘 살지 못했다고 한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종후 스님은 안과 밖의 살림살이를 둘로 여기지 않았기에 그렇게 큰 불사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불사를 진행하는 동안 안과 밖이 하나로 작용하여 여여한 살림살이가 되었을 것이란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봄기운 가득한 노적봉 아래 비로자나의 온 세상이 청정법신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하는 노적사의 발원이 힘찬 물줄기가 되고 꽃향기가 되어 세상으로 퍼져 나가길 기원하며 하산 하는 동안에도 꽃이 피고 새들이 우짖고 있었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90. 스리랑카 캔디의 불치성 장관

캔디는 스리랑카의 제2도시이다. 캔디의 심장 불치사는 부처님의 치아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 그래서 이름도 불치사(佛齒寺)이다. 불치사의 스리랑카식 이름은 달라다 말리가와(Dalada Maligawa)이지만 영문으로 작성된 각종 스리랑카 관련 서적에서도 달라다 말리가와라는 고유명사 보다는 'Temple of the Tooth(치아 사원)'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소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불치사라는 이름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부처님의 치아 사리가 모셔져 있다는 불치사의 의미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사용될 만큼 이곳 캔디의 불치사는 세계적인 불교 성지이다.

관광객들에게도 시기



불치사 전경.

가슴에 안고 3층 법당에서부터 1층 코끼리 등에 오를 때까지 중간에 쉬지 않고 1km 이상을 걸어야 한다.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시가행진을 하는 날 나는 성관(省館)에 들어가 장관을 뵙고, 정장 입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불치성 장관은 16m가 넘는 백색 무명 배를 다리부터 시작해 머리 위까지 올리는데 자그마치 30분이 걸

석가족 출신 불치성 장관… 그의 미소에서 부처님 보여

리야의 바위궁전과 함께 불치사 순례는 스리랑카 여행의 절정으로 손꼽힌다.

수도 콜롬보가 정치 · 경제의 도시라면 캔디는 종교문화의 도시이다. 부처님 입멸 후 100년경 태어났던 아쇼카왕이 그의 자녀들에게 부처님 치아사리를 건네 스리랑카에 전하게 한 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불치사리이다. 이 치아사리를 보호하고 있는 불치사에서는 매년 거국적으로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시가행진을 하며 중생의 평안을 기원하고 있다.

스리랑카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불치성 장관이 있다. 내가 본 석가족 출신의 불치성 장관은 키가 220cm 정도 되고, 또 체구가 두툼하고 거무스름한 얼굴을 한 거구였다.

불치성 장관이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실 때면 16겹이나 되는 옷을 입고, 8kg이 넘는 사리함을 렸다.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장갑도 끼고 3층으로 올라가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사리관을 들었다. 그 앞에는 수십 명의 국악대가 꽃 관을 쓰고 팔과 다리에 수십 개의 악세사리를 걸고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니 악기소리가 장안을 흔들었다.

불치성 장관이 탑 내부를 세 바퀴 돌고 밖으로 나와 아름답게 장식한 코끼리 등에 사리관을 실으니 같은 모양으로 장식한 36마리의 코끼리들이 코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행진을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수천 관광객들과 수만 명의 국민들이 꽃을 던지며 행렬을 구경하는데, 군인, 학생, 예술가들이 갖가지 축제를 즐기며 밤새도록 행진했다.

일행은 교외로 나가는 코끼리들을 전송하고 다시 불치성 장관실로 들어와 장관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는데, 먹는 것도 보통사람의 세 배는 먹는 것 같았다.

불치성 장관은 "우리는 행복하다. 세계에서 오직 하나 뿐인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는 망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인내하고 온화하고 수행자를 만나서는 적당하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 또 형편 따라 배우고 기술을 익혀 절제하고 훈련하며 의미 있는 말을 나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고 말하며 즐겁게 식사했다.

이어 장관은 "나눔을 통해 정의를 실천하며, 하늘과 땅의 보호를 받고, 남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악을 싫어 멀리 여의고, 술 마시는 것을 알맞게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일행은 한참동안 <행복경>을 주고받으며,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이 있기를 빌었다. 그 자리는 스리랑카의 과일과 향내 나는 음식들이 분위기를 무르익게 했다.

청정하게 살며 수행하고,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고, 열반을 실천하는 사람이자 세상의 많은 일에 부딪치면서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이, 티 없이 안온하게 살아가는 불치성 장관과 석가족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기를 두 손 모아 축원했다.

석가족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으면 이 불치성 장관을 보면 된다고 생각했다.

자기 종족에서 부처님이 탄생하고, 그 사리가 스리랑카에 와 있다는 사실을 크게 자랑으로 여겼던 불치성 장관. 그의 근엄하고 사랑스런 그 모습 속에 항상 미소가 꽉 차 있던 모습이 아직도 아련하다.



가슴이 메어지는 통절한 슬픔으로 불학을 뒤적이다

<56> 어학의 천재, 여징(呂澂)거사

구양경무(歐陽竟無) 거사의 수제자이면서 그의 입적 이후 '지나내학원'을 이끌고,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불교학을 영도했던 이가 여징(1896~1989) 거사이다.

거사는 강소성(江蘇省) 단양현(丹陽縣)사람으로 자(字)가 추일(秋逸)이고, 원명은 위(渭)였지만, 후에 '징(澂)'으로 바뀌었다. 어려서 매우 총명해 독학으로 영어 일어 불어 독일어 등에 매우 뛰어났고, 후에 불교를 연구하면서 산스크리트 빨리어 티벳어 등에도 정통했다. 거사는 강소성의 진강(鎭江)중학을 졸업하고, 상주(常州)고등실업학교 농업과에 진학했다. 1년만에 다시 민국대 경제과에 합격해 다니던 거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퇴하고, 1914년 금릉각경처에서 구양경무 거사를 따라 불교학을 연구했다. 그 다음해 일본으로 유학해 미술을 전공했다. 거사가 미술을 전공했고, 또한 불교를 가까이 했던 원인은 그의 형의 영향이라고 하겠다. 거사의 형인 여봉자(呂凤子)는 당시 유명한 화가로서 특히 불화(佛畵)에 능통했고, 일찍이 양문회 거사를 따라 금릉각경처에 상주하며 불교를 배웠다. 이러한 반연은 거사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미술과 불교에 깊은 소양과 흥미를 갖게 해주었다. 거사는 1916년 귀국해 상해(上海)미술전문학교에서 교무주임을 맡았다. 1918년 구양경무 거사가 지나내학원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거사를 불렀고, 이로부터 항상 구양 거사를 보좌하며 오로지 불교연구에 전념하였다.

1922년 지나내학원이 개원하고, 1923년부터 학생들을 모집해 강의가 시작되자 거사는 전체적인 관리와 각경처 업무를 맡았다. 당시 지나내학원 교수진은 창립자인 구양경무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유학했던 탕용동(湯用彤)을 비롯해 섭우경(聶耦耕), 구희명(邱曦明), 경창극(景昌極) 등 당시 불교학계에 유명한 학자들이 포진했지만, 전체적인 강의와 실무는 바로 구양 거사의 애제자들인 여징과 왕은양(王恩洋) 두 거사가 담당했다. 이러한 강의진은 불교학에 뜻있는 이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지나내학원은 태허(太虛)법사가 창립한 '무창불학원(武昌佛學院)'과 함께 당시 중국불교학을 이끌어가는 양두마차로 회자되었다. 중국의 근·현대불교를 논할 때, '지나내학원'과 '무창불학원'은 결코 배제시킬 수 없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나내학원과 무창불학원은 모두 1922년에 세워졌고, 또한 설립자인 구양경무와 태허 법사는 함께 금릉각경처의 '기원정사'에서 수학한 동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상적인 면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것은 구양경무가 재가거사이고, 태허 법사가 출가 승려라는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와 사상적인 차별에 의한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구양 거사는 '법상유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던 반면에 태허 법사는 여래장사상을 중심으로 했다. 이러한 입장과 사상적 차별은 1918~1927년까지 수 차례 대규모 '논쟁'을 발생켰다. 이를 '법의지쟁(法義之爭)'이라고 칭한다. 이러한 논쟁은 주로 지내내학원의 '구양경무-여징'과 무창불학원의 '태허-인순(印順)법사'가 주축을 담당했고, 그로부터 당시 거의 모든 승속의 불교학자들이 참여했다. 지면관계상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논쟁을 통해 불교학이 커다란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음을 분명하다.

독학으로 영어·일어·불어·티벳어 등 구사

완벽한 '대장경' 출판은 정치적 상황으로 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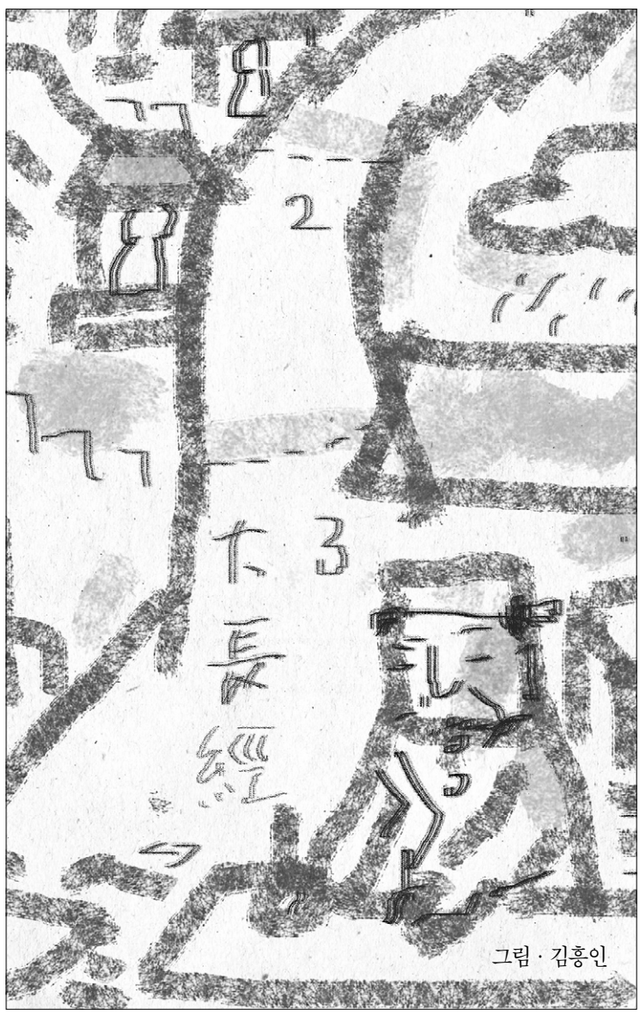
문화대혁명으로 연구자료 모두 훼손

1937년 중일전쟁으로 지나내학원은 사천의 강진으로 이주했다. 금릉각경처와 지나내학원의 경판과 중요한 자료 등 엄청난 분량의 이삿짐을 거사 책임하에 무사히 옮겼다. 강진 '촉원'에서는 구양 거사가 노약했던 까닭으로 거사가 거의 모든 원무를 담당했다. 이 시기에 거사는 바쁜 와중에도 산스크리트와 티벳어 원전을 연구해 <섭대승론>, <인명정리문론>의 티벳본과 <능가경> 산스크리트본을 출간했으며, <인도불학원류략론(印度佛學源流略論)>, <중국불학원류략론(中國佛學源流略論)>, <잡아함경간행정기(雜阿含經刊行定記)> 등의 저작과 학술적으로 중요한 몇 편의 논문들을 출간했다. 또한 화서(華西)대학의 중국문화연구소와 합작해 중국과 티베트 사료를 모은 <한장불교관계사료집(漢藏佛教關係史料集)>을 출간했다.

1943년 2월 구양 거사가 입적하자 거사는 원우회 추천으로 지나내학원 원장에 취임했다. 왕은양 거사는 원우회 이사에 취임했다. 1949년, 지나내학원을 '중국내학원'으로 개명했고, 1953년 원우회 결정에 따라 중국내학원은 폐원했다. 그 해 6월 북경에서 '중국불교협회'가 창립되고, 거사는 상무이사에 선출됐다. 이 당시 거사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인정을 받아 강소성 인민대회 대표 및 전국정협위원 등을 역임했다. 1956년 거사는 '중국과학원' '사회과학부'(후에 '중국사회과학원'으로 독립) 위원과 철학연구소 연구원에 임명됐다. 1961년 거사는 사회과학부 위탁으로 남경에 5년 과정의 '불학반(佛學班)'을 전담하면서 '중국불학'과 '인도불학' 과정을 개설했다. 후에 강의를 정리해 출판한 것이 <중국불학원류략강(中国佛学源流略讲)>, <인도불학원류략강(印度佛学源流略讲)>이다. 1962년부터 거사는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보다 뛰어난 대장경을 출판하자는 포부를 갖고 <신편한문대장경록(新编汉文大藏经錄)> 저술에 착수해 3년의 노력 끝에 완성했다. 이는 거사의 수십 년 동안의 불교연구를 종합하는 염원이 담긴 것이었지만,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모든 계획이 좌절됐다. 그간의 거사가 연구한 자료조차도 모조리 훼손됐다. 71세 거사는 강소성 고향집으로 도피했고, 후에 다시 북경의 청화원(清华园)으로 이사해 1989년 7월 93세로 입적했다. 이 말년의 23년 동안 거사는 어떠한 불교와 관련된 저작이 없었다.

거사는 1914년 구양 거사를 따라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1989년 북경에서 입적하기 까지 약 70년간 일본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상해미술전문학교에서 근무한 3년을 제외하면 거의 평생을 불교연구에 바쳤다. 그에 따라 거사의 저작은 상당히 방대하다. 초년에 <미학개론(美學概論)>, <현대미학사상> 등 미술과 관련된 저작 외에도 인도 중국 티베트 불교와 관련된 저술이 수 십 권에 달해 그 목록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분량이 된다.

아쉬운 것은 거사가 말년에 꿈꾸었던 보다 완벽한 <대장경>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무산됐던 점이다. 그것은 양문회-구양경무-여징으로 이어지는 삼대의 '대원(大願)'이었다. 양 거사가 본래 '금릉각경처'를 세웠던 본원은 바로 대장경 출간에 있었다. 특히 1905년 <대일본속장경(大日本續藏經)>의 출간에 자극을 받아 전체적인 서목(書目)을 상정한 <대장집요(大藏輯要)>를 기획하지만, 그를 완성하지 못하고 <대장집요서례(大藏輯要敘例)>를 찬술해 류목(類目)만을 정하고 입적했다. 양 거사의 유지를 계승한 구양 거사 생전에 바로 일본에서 <대정신수대장경>이 발간(1934)됨을 목도했지만, 역시 양 거사의 <서례>를 바탕으로 한 <장요(藏要)> 3집만을 찬술했을 뿐이다. 여징 거사가 <신편한문대장경록>을 찬술했던 것은 이러한 3대에 걸친 숙원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릉각경처에서 철저한 교감을 걸쳐서 판각을 통해 발간한 수많은 경전을 비롯한 전적들은 비록 미완이지만 이미 <대장경>이라고 칭할 정도이니, 이들 삼대의 노력은 그들이 처한 시대상황(청말 외세의 침탈로부터 중화민국 성립과 내전, 중일전쟁,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문화대혁명 등)을 감안한다면 극도의 평가를 받을 업적이다.


그림·김홍인

양문회 거사(1837년 출생)로부터 구양경무, 여징(1989년 입적)으로 이어지는 3대의 153년은 중국역사상 유례가 없는 변혁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이들 3대가 중국불교의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들 3대는 불법에 대한 입장과 풍격에 조금씩 차별이 나타난다. 그에 따라 여기에서 간략하게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양 거사는 비교적 일찍 개명된 지식인으로서 중국불교의 쇠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처해 불경의 출판 및 유통, 후학의 양성에 뜻을 두고, 금릉각경처·기원정사·불학연구회 등의 활동에 온힘을 다했고, 그것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그의 주변엔 거사를 이끌어줄 고승대덕과 그와 함께 법을 논할 도반들이 극히 적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거사의 불교연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구양 거사는 1909년부터 양 거사를 따라 금릉각경처에서 본격적으로 불교연구에 전념했다. 당시 각경처에는 이미 수 십 만권의 경전자료가 구비돼 있었고, 주변에 많은 연구자들이 포진해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는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대만의 동초(東初)법사가 <중국불교근대사>에서 "당대(唐代) 이후 참다운 불학(佛學) 제일인"이라고 극찬을 보낼 정도였다. 그러나 구양 거사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 6세에 부친을 잃고, 37세에 모친의 죽음을 맞은 이후 주변의 모든 가족과 친우, 아끼던 제자 등이 거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특히 거사가 매우 사랑했던 딸 '란(蘭)'은 17세에 거사를 따라 금릉각경처에서 불교공부를 하다가 거사가 지나내학원 모금을 위해 감숙성(甘肅省)에 갔다가 오니 병으로 숨져 있었다. 거사는 "가슴이 메어지는 통절한 슬픔으로 한밤중까지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점차 불학을 뒤적였고, 유가(瑜伽)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다가 새벽녘에 이르러 유가·유식이 얼음 녹듯이 모두 풀어졌다"고 자술하듯이 항상 주변의 슬픔을 불교의 연구로 승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슬픔은 거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 여징 거사는 2대와는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에서 불교를 연구할 수 있었다. 거사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어학능력과 풍부한 자료, 수많은 선후배 연구자들의 자극과 격려 속에서 묵묵히 수십 년 동안 오로지 불교연구에 매진했다.

비록 말년에 이르러 문화대혁명으로 절필한 채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미 생전에 쌓아온 연구성과는 거사를 '일대 불교학의 대가'의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요절복통 여래네 집

#9.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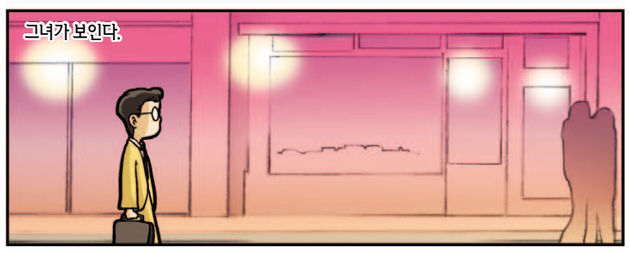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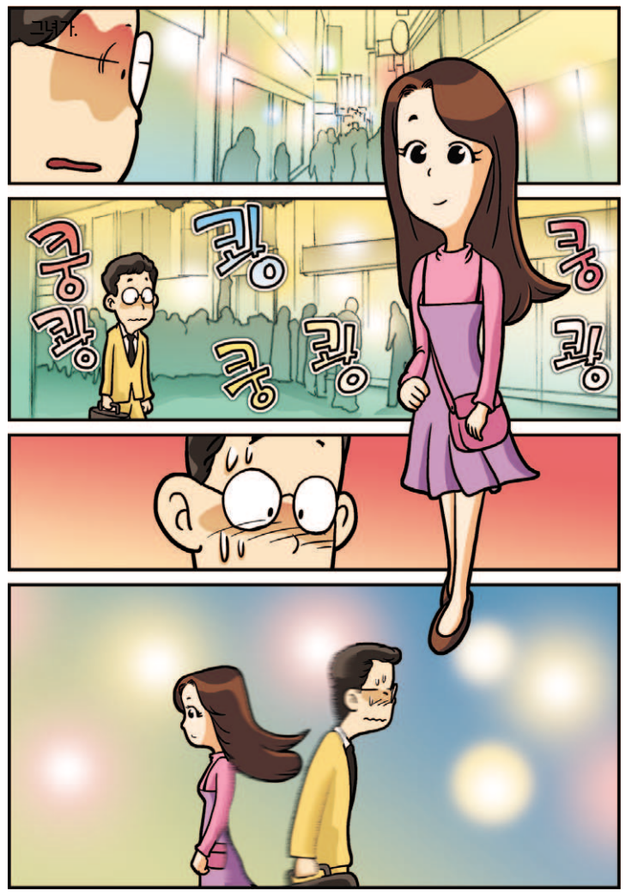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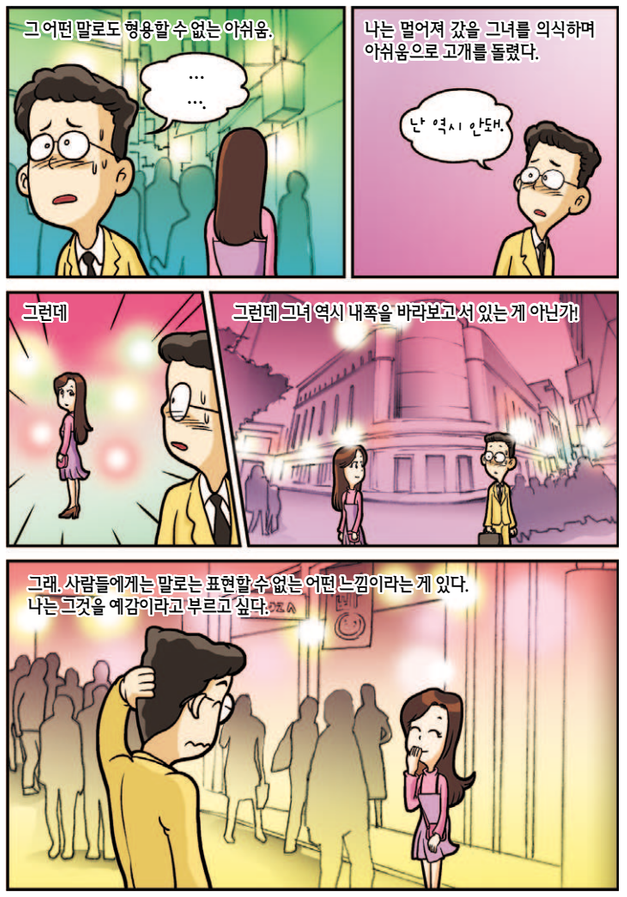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그릇된 죄가 아직 열매를 맺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꿀같이 생각한다.
그러나 그 죄의 열매가 무르익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비로소 불행을 겪는다. 법구경



서해 천안함 전사 장병 추모 및 국가의 안녕 기원 수륙 고혼 천도 대재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함께하시길 기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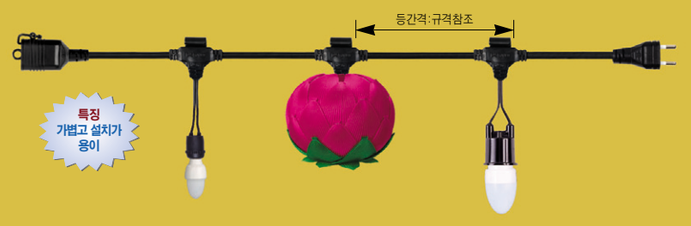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동종에서는 서해 천안함에서 전사하신 장병들의 고혼을 위로하고 나라에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대재를 서해 선상에서 봉행을 하고 7일간 중국 선종사찰 성지순례를 봉행하오니 수륙천도대재에 수희 동참하시어 모든업장이 소멸 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2554년 5월 29일 (음 4월16일) 6박 7일**
- 장 소 : 구련산 소림사 운대산(중국)
- 동참금 : 63만원
- 주 최 : 대한불교 조동종
- 후 원 : 풍경여행사
- 문의처 : 02) 2091-0408 / 02)936-0419
- 전화주시면 일정표를 보내드립니다.

묵조선풍 대한불교 조동종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비즈니스를 위한 역사상식



일상생활에서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비즈니스를 위한 역사 상식' – 20여 년간 동서양의 역사와 문화, 풍속, 인물 등을 연구하고 있는 박영수씨의 신간이다. 직장인이 겪을 수 있는 비즈니스 상황별로 역사 · 문화 · 교양에 관한 지식들을 엄선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관계가 무르익을 때까지 비즈니스 단계별로 나누고, 그 아래를 다시 8개의 상황별로 나눴다. 각 장의 시작 부분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배치하고, 그 에피소드 안에서 언급된 비즈니스 키워드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또한 실용적인 비즈니스 관련 팁과 에티켓을 함께 담았다.

사람들은 왜 악수를 할까?

악수는 왜 오른손으로 할까? 정답은 무기가 없다는 뜻으로 오른손으로 서로의 손을 잡는다. 싸우지 않고 대화할 수 있다는 우호의 표시를 나타낸다. 악수가 자리를 잡은 것은 19세기 이후였다. 그 이전까지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아니면 악수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 조금 안다고 악수를 청하면 결례로 여겼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악수를 보편적인 인사방법으로 퍼뜨린 것은 누구일까? 바로 퀘이커(Quaker)교도들이었다. 기독교의 한 일파인 퀘이커파는 평화와 평등의 상징으로 악수를 했다. 이후 미국에서 퀘이커 교세가 확장되면서 악수 또한 미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 나갔다.

20세기 초 자동차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항상 조수가 탑승했고 앞만 보고 달렸다. 차내에는 백미러(back mirror)가 없었다. 그런데 1911년 5월 30일, 자동차 문화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거액의 우승상금이 걸린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의 제1회 '인디 500레이스'에 출전한 레이 하룬(Ray Harroun) 선수가 백미러를 장안했다. 레이 하룬은 작은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뒤 은퇴했었는데, 1만 달러의 상금에 마음이 움직여 대회 출전을 결정했다. 하위권으로 분류됐지만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안을 했다. 먼저, 세계 최초로 알루미늄 휠 디스크를 적용한 1인승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나 뒤쪽 상황을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어느 날 화장대 앞에서 얼굴을 매만지는 아내의 모습 뒤에 자신이 있는 상황을 착안해, 자동차 유리창 위에 8×20㎝ 크기의 거울을 달았다. 레이 하룬은 평균 시속 120.06㎞, 총 6시간 42분 8초로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세계 최초로 백미러를 달았다는 기록을 세웠다. 백미러의 정확한 영어 표현은 리어뷰 미러(rear view mirror)다.

폭탄주의 원조는 동양이 아니라 서양이다. 19세기 탄광과 부두 노동자들이 빨리 취하려고, 술을 섞어 마신 것이 시작이다. 맥주를 섞은 위스키를 보일러 메이커(boiler · maker)라고 한다. 온몸을 취기로 달아오르게 하는 술이라는 뜻이다. 그 당시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하나는 맥주를 먼저 마시고, 이어 양주를 잇달아 마시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큰 맥주잔에 작은 위스키 잔을 넣어 섞어 마시는 지금과 같은 방법이다. 조선시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1837년에 간행된 <양주방>에 따르면, 따뜻한 막걸리 한 사발에 소주 한잔을 부어, 혼돈주(混沌酒)라고 불렀다. 이때 넣은 소주가 붉은색이면 자중홍(自中紅)이라고 했다. 현대 폭탄주의 원산지는 춘천이다. 1983년 당시 박희태 춘천지검 검사장이 지역의 검찰 · 경찰 · 안기부 · 군인 · 언론사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맥주잔에 위스키를 떨어뜨려 마셨다. 이름을 폭탄주라고 붙였고, 이후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다고 한다.

비즈니스를 위한 역사상식 | 박영수 지음 | 추수밭 펴냄 | 1만3800원

진정화

미산 스님 · 차차석 · 김호귀 교수

'초기경전' '법화경' '금강경 약소' 풀이







불교에는 방대한 양의 경전이 있다. 그래서 '많다'는 것을 강조해 '팔만사천경전'이라고도 표현한다. 불교의 핵심사상을 담은 주요 경전들은 스님 · 불교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재해석되고 불자들에게 널리 읽힌다. 불교계 세 학자가 펴낸 <다시 읽는 법화경> <미산 스님 초기경전 강의> <금강경약소>도 이들 중 하나다.

차차석 교수(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가 펴낸 <다시 읽는 법화경>은 <법화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던 기존의 입문서에 그치지 않고 천태지의 선사 등의 법화사상가들과 저자의 해설을 더해 이해를 도왔다.

<법화경> 제3 비유품 '부처님은 중생의 아버지다'에서 "…저희들은 오늘에야 부처님의 참된 자식이 됐습니다. 부처님의 입에서 태어났으며…."의 구절이 있다. 차차석 교수는 그가 펴낸 책에서 "'부처님의 입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운허 스님 역본에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을 듣고 귀의했으며'라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천태의 해석을 충실하게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천태가 활동하던 당시의 중국인들은 인도의 풍속과 문화에 대해 오늘날과 같이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어 차 교수는 "때문에 '사람이 입에서 태어난다'는 구절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고민한 결과 입에서 태어난다는 문장을 '가르침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구생(口生)'이라 이해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것이라 인식했다. 매우 신앙적이면서도 절묘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그것이 계급 타파를 위해 설해진 것이라는 경전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또 차 교수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신앙적 · 사회적 체계를 소개하며 각 품의 구절의 이해를 돕고 있다. 차차석 교수는 "<법화경>은 인도에서 편집된 경전이다. 따라서 경전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도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에 더해 중국의 기라성 같은 법화사상가들의 해설을 듣게 된다면 <법화경>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상도선원에서 매주 팔정도 법회를 여는 선원장 미산 스님은 팔정도에서도 정견(正見), 즉 바른 견해를 중요시 여긴다. 스님은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 제대로 된 등산로가 아닌 길로 아무리 땀 흘리며 열심히 걸어가도 결국 정상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며 초기경전 공부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초기경전은 부처님의 원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초기경전은 재해석이나 가공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처님 말씀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다.

<미산 스님 초기경전 강의>는 상도선원 경전학당에서 진행된 강연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연기법과 일체법, 삼법인, 사성제 등 초기경전 안에 담긴 불교의 4가지 핵심교리가 총 8강에 걸쳐 펼쳐진다.

미산 스님은 "간화선 · 위빠사나 수행을 하든 효과적으로 하려면 수행의 경전적 근거를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수행을 왜 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호귀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금강경 약소>를 펴냈다. 당나라 지상사의 지엄이 보리류지(菩提留支) 한역본에 의거해 그 형식과 내용에 해석을 가한 <금강반야바라밀경약소(金剛般若波羅蜜經略疏)>를 통해 <금강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이했다.

다시읽는 법화경 | 차차석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6000원

미산 스님 초기경전 강의 | 미산 지음 | 명진출판 펴냄 | 1만9000원

금강경 약소 | 김호귀 지음 | 이담 펴냄 | 1만4000원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2	무소유(문고본)	법정	범우사
3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문학의 숲
4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5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6	인연이야기	법정	문학의 숲
7	진리의 말씀	법정	이레
8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9	오두막 편지	법정	이레
10	맑고 향기롭게	법정	조화로운 삶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49재 그 속에 깃든 해탈법

죽음 이후, 중음의 실상과 천도법 일러줘



우리나라 불자들은 '천도재'는 귀에 익숙해도 '중음제도'는 아직 생소할 것이다. 또한 생전에 자신이 미리 닦고 간다는 예수재(豫修齋)는 알아도, 자신이 생전에 미리 죽음-중음-전세(轉世)의 과정을 이해하고 닦아 사후의 중음에서 자신이 자신을 구제하고 해탈하는 방법에 대해선 생소하다.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 간의 기도>는 <티벳 사자의 서>로 잘 알려진 <중음제도경>, 즉 사후세계, 중음세계의 실상과 천도법을 일러놓은 책이다. 편역자는 前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법성 스님.

티베트불교에서는 임종을 전후한 시기의 해탈 방법을 세 단계로 나누는데, 첫 단계에서는 임종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발원을 하게 된다. 중음의 징후가 나타나면 망자의 중음신, 즉 의생신 혹은 망령이 좋은 곳으로 전생하게 하기 위해 <중음제도경>을 독송한다.

법성 스님은 <중음제도경>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역주하고, 중음세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곁들여 누구나 쉽게 망자 천도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성 스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된 기도와 천도에도 불구하고 중음의 경계에서 해탈하지 못했을 경우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과 환경에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경책 내용과 불보살의 가피를 위한 게송 등도 수록하고 있다.

법성 스님은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오늘 살아 있는 자는 내일 망자가 되고, 오늘 망자는 내일 다시 태어나 돌아온다"며 "망자가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인 49일 동안 어떻게 하면 윤회로부터 벗어나 해탈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밝혀 놓은 것으로, 살아 있는 자나 망자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 석법성 편역 | 운주사 펴냄 | 8000원

이나은 기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부처님오신날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전 · 좋은벗풍경소리 '연등축제의 노래' 4집 발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봉축행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봉축행사를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전시회와 음반이 눈길을 끈다. 부처님오신날을 눈과 귀로 만끽해 보자.



한국불교사진협회 하호숙 부회장의 '낙산사 해수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과 구름이 어울려 신비로움을 자아낸다(위).
좋은벗풍경소리의 '연등축제의 노래4'.



한국불교사진협회(회장 조현숙)는 5월 3일~6월 6일까지 '한국불교사진협회 제15회 회원전 및 제4회 청소년디지털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마애불 · 석불 천년의 미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회원들이 직접 카메라에 담은 부처님의 모습 48점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공모전을 통해 선발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불교관련 행사 사진 12점도 함께 전시된다.

작년까지 자유주제에 의해 다양한 사진을 선보였던 한국불교사진협회는 작품의 질을 높이고, 회원들 각자가 부처님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한 취지로 단일주제를 정해 작품을 준비했다. 그간 사진예술을 통해 부처님 세상을 알리고자 노력해 온 한국불교사진협회 조현숙 회장은 "깨달음이란 경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다"며 "그 깨달음을 찰나의 찰칵하는 셔터와 함께 사진 속에 담아내려 무던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부처님 세상을 카메라렌즈를 통해 투영하려는 노력은 이제 하나의 빛이 돼 부처님오신날에 장엄된다. 조 회장은 "이번 제15회 회원전과 더불어 열리는 청소년디지털사진공모전에도 불자님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어 달라"며 "앞으로 많은 어린이 · 청소년들이 불교와 사진에 관심을 갖고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전은 5회에 걸쳐 전시된다. △1차 5월 3~8일 충무로 1588-4749 CBL갤러리 △2차 5월 9~12일 도선사 경내 (02)993-3161~3 △3차 5월 13~16일 조계사 경내 (02)732-2115 △4차 5월 17~22일 봉은사 경내 (02)511-6070~4 △5차 6월 1~6일 대구문화예술회관 2층 10전시실 (053)606-6114 이다.

마애불, 석불 등 다양하게 나투신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의미 있게 맞이하는 것도 좋을 듯싶다.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축제를 위해 좋은벗풍경소리는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연등축제의 노래4'를 발표했다. 1990년 중반부터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꾸준히 찬불가를 보급해 온 좋은벗풍경소리는 '제대로 된 축제용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모두 12곡으로 댄스, 락, 가요, 국악, 락앤롤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또한 1990년대 만들어진 음악들을 리메이크해 신선함을 더했다.

좋은벗풍경소리의 이종만 음악감독은 "이번 앨범은 교훈적이고 건전한 본래의 노랫말에 리메이크를 통한 새로운 음악을 구성해, 신나는 음악을 들려드리고자 했다"며 "신심을 요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말했다.

이 감독은 불자는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도 찬불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신세대 래퍼 톡스(tox)와 연꽃소녀들 등 젊은 가수들을 앨범에 참여시켰다. '오늘은 좋은날' '연꽃등 밝히는 날' '길 떠나자' 등은 신나는 댄스풍의 음악으로 흥겨움을 더해주는 대표곡들이다.

또한 차세대 대표 국악 소리꾼인 박애리의 '상사디야 우리스승' '지심귀명례' 등의 곡은 품격 있는 국악풍의 찬불가로, 앨범의 다양함을 보여준다.

이종만 감독은 "이번 앨범과 전에 만들어진 앨범을 비교하자면 '발전'이라 말하고 싶다"며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통해 이번 앨범을 공개함으로써 젊은 불자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6일 열리는 연등축제행사의 '회향한마당'에서는 연꽃소녀, 박애리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02)723-9836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지범 스님 인도순례 사진전

5월 8~14일 제주 연갤러리서

음성포교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지범 스님(불광사 주지)이 사진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 지범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8~14일 제주시 연갤러리에서 인도성지순례 사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2009년 12월에 인도성지순례 당시 찍었던 사진 40점을 선보인다. 부처님 8대 성지인 룸비니 보드가야 바라나시 쿠시나가라 라즈기르 스라바스티 바이샬리 상카시아를 비롯해, 기원전 3세기 아쇼카왕이 건립한 산치태탑, 불교 문화유적인 아잔타석굴 등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선보이다.

지범 스님은 "이번 사진전은 예술적인 가치를 조명을 하는 사진전이기 보다 불자 분들이 교육적 자료로 삼을 수 있는 다큐 형식의 사진전"이라며 "불자, 비불자를 떠나 사진을 통해 인도의 역사와 불교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광사 경내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064)757-4477

이은정 기자

득산 스님 '무아' 개인전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 풍경, 잉어들이 무지개 색으로 화려하게 캔버스 안을 장엄한다. 누구나 쉽게 불교미술을 접하게 하고자 생활불교미술이라는 이름 아래 미술포교를 실천해 왔던 득산 스님(득산달마선원 주지)이 불교미술개인전을 개최한다. 24회째인 전시는 '무아'를 주제로 열린다.

득산 스님의 작품은 구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로 화려한 색감을 자랑한다. 스님은 유화물감으로 밑그림을 완성시킨 다음, 다시 그림을 불에 굽는 작업을 한다. 구워진 그림은 다시 정수로 씻어낸 후 바람에 건조시켜 완성시킨다. 이 작업은 득산 스님만의 고유 방식으로, 완성된 그림은 고풍스러운 벽화와 같은 느낌을 준다.

스님은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은 모두 불가의 가르침을 담고 있어 어느 것 하나 소홀이 지나칠 수 없다"고 말한다. 자연과 스님의 정성이 어우러져 완성된 그림은 4월 28~5월 4일 대전중구문화원 대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은정 기자

이상배 차묵화전 찻사발 축제서

문인화가인 이상배 화백이 '2010 문경 찻사발 축제'를 맞아 '심천 이상배 차묵화전'을 개최한다. 차묵화전은 문경새재 찻사발축제 오픈세트장 내에서 4월 30~5월 9일 전시된다.

이상배 화백은 이번 전시에 앞서 "차를 마시는 분들의 안목을 키워주고 차 문화의 고급화를 위해 개인전을 열게됐다"고 밝혔다.

이상배 화백의 차묵화는 차를 끓이는 장면 등 차와 관련된 직접적인 묘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마치 자연의 한 일부분만 떼어놓은 듯한 길상도, 산수화 등이 등장할 뿐이다.

그 이유에 대해 이 화백은 "차실에 걸리는 그림은 차 공양과 함께 마음에 공양될 만한 격을 갖춘 그림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차를 마실 때 그 분위기와 가장 어울릴 만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진정한 차묵화라 생각해 이 같이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다.

전시에는 50여 점의 차묵화를 선보인다. (011)256-9524

이은정 기자

수제화 고무신코 만 행 화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최고의 선 물

특무명 3목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80mm (5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동깔창
조각세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20,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조각무명 3목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80mm (5mm단위)
• 색상 : 회색

지압동 깔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0mm
• 색상 : 검정,회색

망사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0mm
• 색상 : 검정,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 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최연의 산 이야기 <9> 가야산 1



철탑이 보이는 곳이 용의 머리인 가야산 원효봉이고 맨 끝에 봉긋이 솟은 봉우리가 여의주인 덕승산이다.

옹골찬 기운이 의인을 많이 배출하였구나

가야산(伽倻山)은 금북정맥(錦北正脈)이 높낮이를 달리하며 산줄기를 이어오다가 서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남은 기운을 한껏 펼쳐서 솟아오른 봉우리이다.

백두대간 상의 속리산(俗離山)에서 갈라져 나와 보은의 말티고개, 선도산(仙到山), 청주의 상당산성(上黨山城), 좌구산(座龜山), 음성의 보현산(普賢山), 안성의 칠현산(七賢山)까지의 산줄기는 한강과 금강을 나누는 분수령(分水嶺)으로서 한강의 남쪽 산줄기(漢南正脈)와 금강의 북쪽 산줄기(錦北正脈)의 겹침 산줄기다.

그러므로 금북정맥은 한남정맥과 나란히 북쪽으로 향하다가 안성 칠현산에서 한남정맥과 이별하고 다시 서남쪽으로 방향을 잡아 안성의 서운산을 지나 충청도 땅으로 들어서는데 천안의 흑성산(黑城山)과 국사봉(國師峰)을 지나 광덕산과 차유령(車踰領)으로 이어진다. 계속해서 청양의 국사봉을 지나 일월산(日月山)까지 내려온다.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 광천에서 오서산(烏棲山)을 크게 일구고 홍성의 백월산과 용봉산을 지나 예산 덕숭산(德崇山)으로 이어지더니 마침내 가야산에서 남은 기운을 다 토하여 옹골차게 정기를 품고 높이 솟구치더니 방향을 다시 서쪽으로 잡아 태안반도의 골격인 성왕산(聖王山), 백화산(白華山)을 나지막히 이루고 드디어 안흥진에서 서해로 숨어들며 산줄기의 흐름을 멈춘다. 다시 말해서 금북정맥은 금강 북쪽의 충남 땅에 솟아오른 산줄기를 말한다.

금북정맥은 우리나라 산줄기 중에서 한남정맥(漢南正脈) 다음으로 낮은 산줄기로 그 산줄기에서 가장 높은 산이 오서산인데 높이가 790m이다. 광덕산 699m, 가야산 678m, 무성산 612m로 600m가 넘는 산이 고작 넷뿐이다.

금북정맥은 비록 높지는 않으나 낮게 엎드렸다가 불쑥 솟아오르기를 되풀이하며 구불구불 힘차게 뻗어가는 모양이 용트림하며 날아가는 용의 형상을 닮았다. 또한 금북정맥의 봉우리들은 거의가 부드럽고 온화할 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다양하여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산줄기의 자태도 유장(悠長)하여 물결처럼 유유히 길게 뻗어 있어 잔잔하게 출렁이는 산줄기처럼 율동감을 느끼게 한다.

가야산은 금북정맥 중에서 제일 높지는 않으나 매우 웅장하고 높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평야지대에 우뚝 솟아올랐기 때문이다. 가야산은 주맥(主脈)이 30여 리에 뻗어 있는 유장한 산세를 자랑하며 용(龍)이 남쪽을 향해 누워 있는 형상으로 동쪽엔 당진평야를 서쪽엔 예산평야를 넓게 부려 놓고 있다. 가야산이 부려놓은 비산비야(非山非野)의 넓은 들판에는 예산 · 서산 · 홍성 · 태안 · 당진 등의 고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를 내포(內浦)라고 했는데, 지금도 예산 · 당진평야를 그냥 줄여서 예당평야라고 하지만 달리 내포평야라고도 한다.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는 내포 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산천은 평탄하며 아름답고 서울의 남쪽에 있어 서울의 세력 있는 집안은 대부분 이곳에 농토와 집을 두고 근거지로 삼고 있다. (중략) 충청도에선 내포가 제일 좋은 곳이다.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00리 쯤 되는 곳에 가야산이 있다. 서쪽은 큰 바다이고 북쪽은 경기도 바다가 고을과 만(灣)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는데 곧 서해가 쑥 들어온 곳이다. 동쪽은 큰 들판이고 들 가운데에 큰 포구가 하나 있다. 남쪽은 오서산이 막아 다만 동남쪽으로 공주와 통할 뿐이고 오서산은 가야산에서 온 산맥이다. 가야산의 앞뒤에 있는 열 고을을 내포라 한다. 지세가 한 모퉁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큰 길목이 아니므로 임진년과 병자년의 두 차례 난리에도 여기에는 적군이 들어오지 않았다.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다. 또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하므로 부자가 많고 여러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가 많다."

이렇듯 내포 땅은 평야가 넓어 농산물이 풍족했으므로 아산만에서 뱃길로 벼 구만 섬을 실어 날랐다고 해서 붙여진 구만포(九萬浦)가 있고, "예산 가서 옷 자랑 하지 말고 홍성 가서 말 잘 하는 체 하지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경제의 중심지요 지식인의 고장이었다.

그런데 땅이 평온하고 풍요로워 사람들의 정서가 부드럽고 여유 있고 친근할 것 같은데,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이곳에서 배출된 인재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의지와 절개가 굳센 사람들뿐이다. 최영 장군, 성삼문, 이순신, 추사 김정희, 의병장 최익현, 김대건 신부, 윤봉길 의사,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고암 이응로 등 목숨을 초개같이 버릴 지언정 충(忠)과 의(義)를 다한 분들이다. 아마도 높지는 않되 옹골차게 솟구친 가야산의 정기를 타고나서 외유내강의 의인(義人)이 많이 배출되었나 보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부르는 소리

생강나무 꽃은 피었지만 숲을 가득 채운 나무들은 아직 겨울의 차가움에서 놓여나지 못한 채 의심을 풀지 않았다. 숲의 전령인 듯, 키 큰 나무들이 없는 곳에서 조팝나무 이파리들이 살짝 귀를 내밀고 봄의 소식을 듣는다.

달도 없는 밤이다.

휘이– 휘이– 휘이–

4월로 접어들면서 들려오기 시작한 울음소리가 늦도록 불이 켜진 내 방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스며든다. 어둠 속에서 어둠을 향해 한없이 울어대는 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소리. 얼음보다 차가운 기운을 간직한 채 웅크린, 움직이지 않는 밤의 한가운데를 찌르며 들려오는 소리다.

저 깊은 곳 어디, 땅 속 세상의 소리다. 저 멀리, 은하수 건너, 보이지 않는 별의 소리다. 핏빛의 소리. 잠에 들지 못하는 내 가슴 속으로 '스윽 슥' 스며든다. 밤짐승들의 울음소리로 찢어지던 밤이 홀연히 찾아온 새의 울음소리로 붉게 물들고 있다.

아무래도 무엇인가를 부르는 소리다. 가슴 속 깊이 간직한 어떤 대상을, 꼭 찾아야할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보고 싶어, 부르기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몸부림. 그것이 아니라면 이토록 뜨겁게, 어둠조차 녹이지는 못할 것이다.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소리. 그만큼 절실한 소리다. 어둠도 밤의 사냥꾼들도, 저 소리를 어찌할 것인가?

휘이– 휘이– 휘이–

잠도 자지 않고 부른다
나의 잠을 깨우며 부른다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붉은
울음소리로 부른다

잡지도 못하고 외면하지도 못할 슬픔이다. 흐르던 피가 막혀 '푹' 쓰러질 지언정 어찌 대답할 수 있을까? 다가갈 수 있을까?

사라진 사람들이 돌아온다.

홀로 살던 집에 사람들이 모여 노는 일이 많아 '회관 할머니'라 불리던 노인이 온다. 오토바이 사고로 방에 누워서, 어머니가 넣어주는 밥을 대여섯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살아가던 남자도 온다. 그가 죽자 딸네로 떠난 할머니도 온다. 그의 방에서 나가 흩어진 고양이들도 사람이 되어 온다. 기역자로 굽은 허리로 살다가 죽어서야 허리를 펴고 누운 할머니도 온다. 할머니를 묻고 술로 살다가 평창 어디 굴 안에서 죽었다는 노인도 온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살아서인지, 아흔네 살까지 살았던 할아버지도 절뚝절뚝 천천히 걸어서 온다.

내가 이곳 산마을로 들어오던 때, 노인이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마을에 남지 않았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른다.

초중등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도 자라서 어딘가로 갔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나는 모른다.

회관 할머니가 살던 집은 이미 헐려 평평한 땅이 되었고, 허리 굽은 할머니 부부가 빌려 살던 집엔 예비역 군인이 들어왔다. 고양이들이 지키던 집은 반쯤 허물어져 이미 사람의 집이 아니다. 마을 꼭대기의 할아버지 집엔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한 아들이 아내와 함께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언뜻 마주치면 인사를 꾸벅 하고 싶은 아들이다. 죽은 할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아득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산 너머 바다 건너 남쪽에서 날아온 호랑지빠귀라 했던가? 휘이– 휘이–, 잠도 자지 않고 부른다. 나의 잠을 깨우며 부른다.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붉은 울음소리로 부른다. 그리운 이들을 부른다. 만나야할 누군가를 부른다. 마땅히 와야 할 무엇인가를 부른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다 아침을 맞은 새의 눈앞에, 검은 운무의 심연 속에서 '쓰윽' 모습을 드러내는 눈부신 새가 있다면, 밤새는 어쩔 것인가? 날개가 굳어 나무 밑으로 툭 떨어질 것인가? 멀뚱히 바라보며 정신을 잃을 것인가? 뜬 눈을 감지 못한 채, 그대로 나무가 될 것인가?

새벽도 멀지 않았다. 호랑지빠귀야! 이제 울지 말아라. 부르던 이가 오지 않아도 울지 말아라. 부르고 또 불러도 오지 않는 이는, 이승보다 저승이 좋은 이들일 것이니.

■ 유승도 (시인)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수공예양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 ·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 학 · 빙의 · 퇴마
스님이 쓰는 역학과 최면 영가와 명리를 실전위주로 확실한 비법을 개인 지도함.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역학 : 귀신 빼는 명리(우주물상을 연상법으로 사주, 궁합, 택일,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귀신든 병
스님 : 염불, 사물, 사찰 운영법 지도
부산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역학 동영상 CD 판매
역학! 집에서 혼자 학습 할 수 있습니다
www.saju.or.kr
010-4800-2378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현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범음범패
실전위주 교육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륙재, 영산재, 화청, 바라나비무, 각종불공
천도전문도량
학인모집, 신행상담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범음대학)

성태산 약수사 기도원
토굴 암자로 매일 기도만 함.
3만접수 인등사진
보신 후 기름값 7만 입금.
청양군 남양면 용마리
성태산 기도원
청양 041)114문의 (943-6254)

역학 개인지도
(명리학, 신점)
- 조용한 도심사찰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하실 분
- 철저한 개인지도
- 숙식제공, 30일 완성

032)584-4684

혜봉스님 비법전수
- 빙의퇴치법, 무병장수, 죽비 타골법.
- 전수비 999천원
- 전수기간 9일

한국심령과학연구회
(www.jijang999.com)
070-4123-8553
011-9585-4908

범음 범패 교육도량
실전위주
학인모집
사찰 각종 행사 전문
효타암 (부산, 경남)
010-6569-1010

경기 이천 장호원
수양이나 공부하실 분
모십니다.
각방에 화장실 겸 욕실 되어 있습니다.
실내 깨끗합니다.
문의 : 만봉정사 사무장
017-549-8115

정다원 결혼정보
초혼 재혼 전문
남여 대기자 각 500명
방배동 10년 경력
전화요청시 사주역학 무료로 알려드림.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919-12
관음빌딩 302호 (이수역 5번)
02)588-6118
010-2914-6118

조그만 암자에서
먹고자고
기도하실
보살님 구합니다
0502-302-7711

공양주 구함
▷보시금 상담 후 결정
경북
011-229-504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구례 화엄사
010-3639-9662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45세이하, 부산
010-9308-991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금호동 관음사, 50세 이하
010-6260-3310

지리산 약사기도도량
약천사
같이 더불어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40대)
모십니다.
061)781-6328
017-621-6328

대구 팔공산에서
달마 그리실
스님, 법사님
모십니다
▷ 숙식가능 하신 분
010-2982-3492

氣 우울증
- 악성변비, 생리통 外 지병
- 원장 직접 개인별 수련함
- 예약상담, 기공에 관심 있는 전수자 모집합니다

선 명상 기공수련원(대구)
011-549-8130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천년고찰 선원
대구 현풍
053)614-9167

조용한 산사에서
비구, 비구니
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10-9421-0730

조용한 암자에서
불심있는
공양주 보살님과
처사님(1종면허소지자)
모십니다.
055)863-4143
011-392-6885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 마산, 45세 미만
016-428-666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포교당
02)338-2158

제주도에
있는 사찰이나
암자 구합니다.
▷전세 또는 양도
스님 010-8634-3113

부처님
사리탑 불사에
동참하실 분
우체국
610212-01-000922 백운사
055)972-1598

지방자치제에
출마하시는 분,
상담과 기도해 드림.
자녀교육, 사업성공 상담
꿈바위불교교육원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한옥 사찰건축 전문
- 완벽한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 및 사찰불사 자문일체 (토목, 건축공사 일체)
- 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안목
- 건축 전(全)공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찰불사(佛事)로서는 귀중한 돈만 낭비되고 결코, "절 다운 절이 되지 못하며 그러한 사찰은 도량의 기운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껏 보고 지적해왔습니다

고건축 전문 기능인 그룹 (人安)
031)581-2120 / 061-741-1624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모집
백고좌 대법회 봉행도량에서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을 함께 모십니다.
- 누구나 수행하는 열린도량!
- 개성존중 및 자율적인 분위기로서 수행공부와 수계이후의 모든 지원
- 성 별 : 남자 (행자) ● 학 력 : 고졸이상
- 비구, 비구니 : 각각 1명(기도&법사) ● 숙식가능 공양주 및 종무원 모집 : 2명
- 법왕불교대학수시모집 : 경전(법화경), 기초교리

※매년 1회이상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하며 법납 30년 이상 비구, 비구니 법사스님의 추천을 원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장1길 2-9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 법왕불교대학
www.bubwangsa.or.kr 053)766-3742

아토피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효과보장
▷ 영업이나
사업 하실 분 환영
010-6880-6009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작은 종단이며 현재의 종단을 좀더 활성화 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도첩, 법계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567-2 (성불사)
총무원 051)204-8494
011-885-8989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뉴욕,감포 동시모집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비구니 기도(부전)스님 모십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55세이하(여) 긴급(숙식제공:월120)
▶ 비구니 행자스님 1분
▷경남 거제
011-801-9828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박지원(객원기자) 051)632-0064 / 010-8544-035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공념학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외곽 도시
- 법당 : 24평
- 요사 : 120평
- 부속건물 : 200평
- 부지 : 2,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경북 성주
- 법당 및 요사 : 35평
- 부지 : 400평
- 가액 : 6,500 (급안내임)

- 위치 : 경북
- 법당 : 50외 44평
- 요사 : 117평
- 부지: 3,000평
- 가액: 13억 (급안내임)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48평
- 요사 : 100평
- 가액 : 18억 5천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5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1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서울
- 부지 : 1700평
- 법당 : 70평
- 요사 : 60평
- 가액 : 28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및 토굴안내

무릉도원 토굴 터

- 대지 평수 : 1만 3천평
- 관리지역 1천평(명지). 임야 1만 2천평
- 계곡 및 경관 아주 수려
- 좌우 청룡백호, 앞 안대, 전망 최고
- 가액 : 1억 6천

낙동강 전망 아름다운 대사찰

- 총 대지 : 약 1,500평
- 법당 25평(전통와가 5포 7포) 요사채 80평(방10칸), 대종각
- 부산근교 신도시, 산세수려 계곡물 철철, 주차장 300평, 텃밭 400평
- 총금액 : 13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 평수 : 463평
- 임법당, 교통편리
- 포교와 수행하기 좋은 도량
- 가액: 1억
- 통화가능시간 : 정오 12시~ 오후 18시까지

010-5226-153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 40평
- 요사채(1,2층) :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3억 7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좌천동
- 대지: 300평
- 건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15평)
- 가액: 7억 8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18-49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 종교부지 200평
- 임야 200평, 전체 400평
- 가액: 9천만원

054)336-9775
010-2407-5899
010-9396-0739

사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 답 1470평 중 대지 288평
- 건평 45평 ● 호두나무 54그루 중 34그루 수확중
- 사계절 물이 흐르고 있으며,
- 생수가 있음 ,직지사 근처
- 가액: 2억

010-4015-462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주시 풍동 종교시설
- 사찰 및 기도터 최적지임
- 대지 480평, 건평 50평
- 가액: 1억 5천만원
- 융자 3,200만원 포함

010-3472-5654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487-36번지
- 평수 : 50평. 반지하
- 위치 아주 좋음. 시장 인접
- 삼존불, 산신님, 독송님 원만히 다 갖춰져 있음
- 포교하기 적합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4040-3588

입법당 기도처 안내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 입법당 40평
- 땅은 종중땅, 1천여평 임대 중 (연 30만원)
- 산소 3기 관리
- 몸만 오시면 됨, 기도처로 최적
- 해외 불사로 인해 급 안내
- 가액: 3천 5백만원

010-9228-217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 140평
- 가액 :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사 찰 안 내

- 위치: 지리산 견불, 와불 관터
- 대지 300평, 700고지
- 요사채 양옥, 1층 35평 2층 법당 15평
- 천리행용 백리안계 해동제일 기도도량 최적지
- 가액 : 1억 5천만원

011-335-638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 주택빌라 아파트 밀집지역 4거리 코너
- 평수 : 2층 30평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천 8백만원

010-2446-2626

사찰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평수 약 2만평
- 현재 조립식 2채
- 전기시설 완벽, 단독진입로
- 평수에 관계 없이 허가가능
- 진주 진양호가 보이는 운치 있는 위치
- 가액: 4억(절충가능)

017-547-1120

작은암자안내

- 깔끔하고 아담한 암자
- 팔공산 뒷 갓바위 입구
- 대지 90평
- 건평 30평
- 가액: 1억 4천만원

010-3477-0010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 바로 뒤 산
- 1급 주거지역
- 가액: 평당 90만원 (절충가능)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주 택 토 굴 안 내

- 위치: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 밀양자동차학원 북측500m거리
- 대지 200평
- 건물 3동(총평수 109평)
- 3동 중 2층 건물 1동
- 심야보일러. 지하수 시설완벽
- 가액: 2억 1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농가주택(급)안내

- 사찰암자적지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23번지
- 장안산 덕산 계곡 상류
- 면적 1792㎡, 목조 79㎡×목조66㎡ = 2동
- 상담후 가격절충가능

011-644-2563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지하철 3분거리
- 3층 65평, 방 3, 공양간, 법당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400만원
- 계산시장 입구
- 해외유학관계로 급 양도

010-6478-77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포교원 임법당 안내

- 위치 : 양주시 백석읍내 주변 아파트 단지
- 의정부 10분, 서울 30분 거리
- 2층 20평, 스님방1, 주방 1, 욕실1(화장실)
- 삼존불 외에 지장보살, 신중 104위 탱화
- 무보증금 12달(선불) 200만원세
- 스님 사정상 양도
- 꼭 필요하신분은 직접오셔서 상담바랍니다

031)877-26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원주 세말 IC에서 5분거리
- 대지 400평 ● 건평: 90평 (대웅전 3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55평)
- 계곡산세수려한기도도량 최고의명당
- 가액: 3억 5천만원

033)345-5597
011-771-55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5동 3층건물 중 2층
- 약 45평. 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종무실 겸 방2칸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모든시설 완비(시설 A급), 시설비 답사 후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010-5535-6487
053)522-6487

포교원(급)안내

- 위치: 안산시 상가밀집지역 5층건물 중 2층 (옥상, 텃밭 30평 사용)
- 평수 50평(법당 20평, 단청, 탱화 A급)
- 삼존불, 원불 60불, 인등 500 주지실, 공양간, 해우소,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 모든시설 A급. 현 법회중
- 소임관계로 급 양도

010-8954-803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서동 407번지
- 평수 40평(3층 중 2층)
- 보증금 700만원, 월 39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611-072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 대지: 350㎡ , 건평: 60평
- 구조: 법당 1, 거실 1, 방 3, 공양간 1, 창고 1
- 주변여건: 앞에는 큰 저수지가 바라보이고 뒤에는 낮은산 위치하고 있는 아담한 수행도량
- 가액: 8천 8백만원

010-4504-124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8천만원 (답사 후 조절 가능)

011-297-9149
010-5483-7502

토 굴 안 내

- 위치: 지리산 실상사 인근 오염없는 국립공원 인접
- 일자봉. 토체안대 (견성골)
- 포장완료
- 대지 약 150평, 건물 20평
- 가액: 1억(절충가능)

011-448-0702

사 찰 안 내

- 위치 : 영덕창수
- 대지 : 330평 농사가능 (농기계 완비)
- 방 5개, 큰 법당 1, 문수전, 산신각 1, 지장보살입상(3m)
- 가액: 상담 후 결정

054)733-3858
010-9377-235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부신관명
- 대지 : 140여평
- 임법당 25평, 요사채 30평 창고 15평
- 가액: 1억 2천만원(절충가능)
- 집기 일체 양도

054)874-22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양천구 신월사거리
- 평수 70평
- 법당, 요사채 3칸
- 창고, 방1개, 욕실, 주방
- 온수 보일러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시설비+보증금 6000만원, 월 100만원
- 스님 공찰관계로 급 양도

017-586-5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속초시 중심가
- 건물 3층, 약 60평, 법당 20평
- 방3칸, 공양간, 욕실, 화장실 시설완벽, 포교최적지
- 책임지고 잘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을 찾습니다 (조건 없음)

010-9085-0801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아파트 빌라주택밀집지역
- 4층건물 중 2층
- 법당30평, 삼존불 외 소불500불
- 방2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절충가능)

010-5427-6443

명당사찰토굴터(급)안내

- 위치: 대구근교, 성주대교 7분거리
- 평수 : 약 58평
- 앞 저수지, 가건물 3동
- 가액 : 1억 5천만원
- 직접 하실 분만 연락요망

017-804-123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남구 대연동 시장통
- 2층 60평
- 법당30평, 방3개, 주방 大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절충 가

011-9342-979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함안군 대산면
- 대지 605평, 건평 약 100평
- 법당 60평, 요사 30평
- 다용도 창고 10평, 방 4칸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775-27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명동
- 한옥 단층(35평) ● 법당(10평)
- 삼존불, 탱화(6개월 됨)
- 방, 마루, 화장실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4284-2342
070-8292-2342

사 찰 터 안 내

- 위치: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1370번지 외 4필지
- 평수 : 총 3,352 (1,005평)
- 토지정리 완료, 청암면 소재지 가기전 10리 산속
- 산세가 수려하고 청정지역으로 작은 계곡이 접하고 있는 정남향
- 가액: 평당 10만원

055)882-6760
011-9512-676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 평수 70평(4층 건물중 3층)
- 아미타불, 관음, 대세지, 지장보살, 신중단, 산신
- 보증금 1,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5800-321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인천 계양구 계산시장입구 지하철 5분거리
- 4층 중 3층 65평
- 법당 사무실 방2 부엌 욕실
- 본존 약사 신중 산신 영단
- 보증금2천, 월 60만원 시설비 2900만원

010-9773-99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유성시장 근처
- 평수 : 5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0-8193-6100

포교원 (급) 안내

- 수원시 세류동 주택가 지하 45평 수원 시외 버스터미널. 밀레오레 300m
- 법당1, 방사2, 샤워실1, 세탁실1, 창고1
- 칸막이 시설 되어 있음 (시설비 의논 가능) 가액: 1억 1천 5백 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1-279-3538
010-3391-3538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 대지 200평, 법당 25평, 전답 1,5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가액: 평당 18,000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정 4동
-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거리 ● 대지: 254m²(80평)
-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시멘트 2층 사찰
- 1층 98.84m², 2층 86.94m², 지하 23.47m² 요사채 40평
- 2층 법당 30평, 지하 15평
- 주차장 완비, 실외화장실 2
- 시가 평당 1700만원 ● 가액 : 13억

011-236-627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523여평+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웅전, 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사회복지시설 가능위치)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5억

011-9888-1563

사 찰 안 내

참선기도도량

- 위치: 전남 담양군 수북면 오정1구 광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250평, 텃밭 30평
- 기와집 30평, 황토집 20평, 차고와 벽돌 2층 25평
- 가액: 2억 5천만원

061)535-1090
010-2523-10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 2분)
- 평수 약 42평 (3층중 2층)
- 법당 약 20평
- 방 2개 주방겸 거실
- 포교활동 최적지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별도

010-4626-2258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재래시장 부근
- 4층 건물 중 3층 약 50평
- 삼존불, 신중,지장,산신불 , 각단탱화 일체
- 상담실 및 거실, 방2,
- 보증금 300만원, 월38만원
- 법당 및 모든 비품, 집기 일체, 시설비1,8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55)335-031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부전동 부전시장 근처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법당, 방2, 식당, 식당방1
- 2층 55평
- 전세 1천만원에 월 30만원 가액은 답사 후 절충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0-6374-4446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⑯ 일자목

모니터는 항상 눈높이에 맞추자

일자목 증상은 C자 모양의 7개의 경추(목뼈) 구조가 거북이 목처럼 일직선이 돼 굳어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대나무처럼 경직된 일자 목뼈 구조와 과도하게 긴장된 목 근육들은 경추(목뼈)에서 빠져나오는 척추 신경을 압박하고,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압박해 근육 내 혈류 감소, 혈액 순환 장애와 영양분 및 산소 공급 부족을 초래합니다. 동시에, 과도한 노폐물 배출로 인한 통증 유발물질이 생성돼 근육 조직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일자목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목 주변의 근육이 과도하게 경직되면서 어깨와 목뼈 주위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고 굳어진 느낌이 들며 목과 허리가 항상 욱신거리면서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것처럼 짓누르듯합니다. 또 이런 분들은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목을 돌리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전만(앞으로 구부러짐)된 거북이 목 구조로 인해 머리를 무겁게 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만성피로 · 두통 · 구토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눈알이 빠질 것 같은 증상을 유발시킵니다. 결국 목 디스크, 고혈압, 뇌졸증, 안면비대칭 등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게 되며, 이차적으로 척추와 골반 구조에 변형이 생기면서 또 다시 통증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러한 일자목 증상은 머리가 구부정하게 앞으로 굽어 나오는 불량한 자세에서 유발되기 마련입니다. 이는 장시간의 책상 작업(컴퓨터, 수험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질병입니다.

일자목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 다수는 근본적인 일자목 교정 치료방법을 찾지 못한 채 약물치료, 통증 주사 요법, 물리치료 등 일시적인 통증 감소 위주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서 치료를 포기하고 진통제에 의존하며 사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8세 여성분이 일자목 증상으로 필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분은 만성적인 두통, 참을 수 없이 짓누르는 목. 어깨, 허리 통증으로, 목과 어깨부위가 과도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자고 일어나면 목을 돌리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고 세안이나 머리를 감기 위해 몸을 숙이고 나서 허리를 펴려고 하면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목과 허리 뿐만이 아닌 온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팔과 다리도 수시로 저리고 아팠고, 때때로 머리까지 통증이 올라오는 전형적인 일자목 · 거북목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검사란 검사는 다 받아봤지만, 병원에서의 모든 검사결과는 정상이었고 통증 치료 · 물리치료 · 약물치료로도 효과를 보시지 못해 스포츠 마사지, 경락마사지, 운동을 다 했지만, 통증은 날로 심해졌다고 합니다.

필자는 이 분의 전신 체형 불균형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형적인 일자목 증후군 이었습니다. 곧바로 교정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정상적인 경추 곡선의 소실로 인한 전신 체형 관절의 비틀림, 휘어짐, 구부러짐을 분석한 맞춤 일자목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분은 처방을 받은 지 3달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그토록 오랫동안 시달려 온 만성 두통, 목 · 어깨 통증에서 말끔히 벗어나 환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목 관련 질환의 치료 기간은 증상이 생긴 시간 만큼 걸릴 수도 있으나 자신의 노력과 관리가 따른다면 치료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환자 본인이 바른 자세를 유지 · 생활화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근 · 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자목을 예방하기 위한 일상생활 속의 바른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나 거울은 항상 눈높이에 맞춘다. △독서를 장시간 할 경우 목을 앞으로 빼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상시에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펴는 스트레칭을 한다. △장시간 작업 시 50분 작업, 10분 휴식의 원칙을 지킨다. △잘 때 얇은 수건을 3~4번 접은 뒤 목 아래 받치고 자는 방법도 좋다. △바닥에 신문을 펼쳐 놓고 보지 않는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에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고 고개를 약간 든 상태에 책을 놓고 보는 것이 좋으며 허리를 펴고 등이 굽지 않게 한다.

다음은 목 부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스트레칭인 '일자목 운동' 입니다.

1. 엎드린 자세로 눕는다.
2. 다리는 골반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 발등이 바닥에서 다리와 일자가 되도록 자세를 잡는다.
3. 머리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하고 양팔은 어깨선을 따라 옆으로 놓는다.
4. 목만 뒤로 올리고 시선은 천장을 본다.
5. 3~5초 후에 머리를 천천히 내린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④ 부종1

안 먹어도 살이 찌는 현상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흐르는 체액이 있다. 이 체액이 혈관 이외의 부위에 과도하게 쌓이면 부종이 된다. 부종은 병적인 원인으로 생길 수도 있고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할 때 붓는 경우, 짠 음식을 과식했을 때, 여성이 생리 전에 붓는 경우는 생리적인 부종이라 할 수 있다.

부종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다음과 같다. 체중이 이유 없이 증가하고, 체중이 아침과 저녁으로 변화가 심하며, 소변량이 감소하고, 수면 중 깨는 횟수가 증가하며, 신발이 작아진 것 같고, 소변색이 진해지고, 반지가 꼭 낀다거나 기상 후 얼굴이 푸석푸석하며 피부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등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은 부종에 대한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모든 신장질환에서 부종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또, 수면 중 부어도 활동 중에는 부종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심장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팔 다리 등의 말초부위가 일과 이후에 붓기도 한다.

임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종은 다른 장기의 이상이 없어도 나타나는 주기성 부종이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30~50대 여성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이 질환은 체중 증가 또는 부종을 호소하지만 특별한 질환을 찾아볼 수 없다. 실제 부종의 정도는 환자의 말보다 가벼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로 체중이 많이 늘어 있음을 호소한다.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거나 저녁식사 시간이 늦은 경우가 많고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에게 이 질환이 많은 편이다.

이런 부종환자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우선 수시로 자세를 바꿔야 한다. 서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면 다리와 발의 피로를 풀어줘야 한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이 좋은데 자갈로 된 발판 위를 걷는 운동은 발바닥에 분포된 전신 경혈을 자극 하고 발바닥에서 심장으로 혈액의 펌프 작용을 도와 다리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킨다. 심장에서 발까지 내려온 혈액은 단순한 혈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걷고 활동하며 발을 딛을 때 생기는 압력으로 순환하기 때문이다.

발이 피로를 느꼈을 때 바로 발을 욕조에 담그거나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이 좋다.

욕조의 물을 종아리의 반 정도가 잠길 만큼 채운 다음 두 발을 넣고 좌우 교대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것을 7~8분 정도 매일하면 정맥에 탄력성이 생겨 울혈이나 다리에 정맥이 엉키는 정맥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4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에 10~15분 전신을 담궈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 통에 찬물을 담아 발을 3~5분간 담그거나 찬 샤워기로 발에 물을 뿌리는 방법이 좋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염분의 섭취를 줄이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전신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염분은 체액의 삼투압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뇨제의 복용은 오히려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고 부종이 생긴 부위는 심장보다 조금 높게 하면 체액이 중력을 따라 퍼져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옥수수수염은 부종에 좋은 치료제이다. 가벼운 이뇨작용을 하는데 부작용이 거의 없어 예부터 널리 쓰이고 있다. 용량은 하루에 마른 옥수수수염 30g 내외가 좋다. 상온에서 쉽게 상하므로 매일 보리차 대신 달여서 마시면 된다. 옥수수수염은 신진대사의 개선과 제반 해독작용에 좋은 효과를 내는 약으로 알려져 왔다.

옥수수수염차는 수독으로 인해 살이 찐 사람에게 좋다. 옥수수수염은 깨끗이 씻어 그늘에 말려 두었다 쓴다. 냄비에 물과 옥수수염을 넣고 센불에서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약한불에 계속 달인다. 건더기는 채에 걸러내고 국물만 냉장고에 넣어 두고 수시로 마신다. 단, 처음부터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양을 점차 늘리는 것이 좋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⑯

상차림 하나에도 조화가 있다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밥상. 그 상차림에도 음양오행의 사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요즘은 서양 문화가 자리 잡아 네모난 식탁을 많이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둥근 형태의 밥상이 주를 이뤘습니다. 음식을 많이 차려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직각의 상을 사용하더라도 각진 부분을 둥그렇게 처리하여 될 수 있는 한 원의 형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밥상의 둥근 형태는 양(陽)을 상징하며 상의 다리가 네 개인 것은 음(陰)을 상징합니다. 둥근 모양의 그릇에 담긴 음식을 통해 하늘의 양기를 받아들이고자 했고, 또한 둥근 모양의 숟가락은 양입니다. 두개의 젓가락은 음으로써, 수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음과 양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오행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도 밥상은 나무(木)이며, 수저와 그릇은 금 · 은 · 놋쇠 · 유기 등과 같은 쇠(金)와 흙(土)으로 만든 도자기입니다. 간장, 국, 찌개, 동치미 등은 수(水) 생선이나 육류등과 같이 불에 굽거나 찐 것으로 화(火)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듯 상차림 하나에도 음양오행의 사상이 깃들어 있어, 옛사람들의 섬세함과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구조로 차려진 옛날 밥상.

몸과 음식에 대한 음양오행의 조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연 현상의 원리를 꿰뚫은 음양오행(陰陽五行)은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음양과 오행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소우주라고 말하는 인체도 음양오행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신체에는 오장육부가 있는데. 이 오장육부는 저마다 오행의 기운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무의 기운을 띠는 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목(木)은 방위로는 동쪽 · 계절로는 봄, 색깔로는 녹색 · 맛으로는 신맛에 해당됩니다.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듯 신장이 건강하면 간 기 능도 원활해지며, 간이 활발해지면 심장의 기능도 좋아집니다.

간 기능이 약해지면 원기가 쇠약해지고 매사에 의욕도 떨어지게 되므로 자주 짜증이 나게 됩니다. 인체 중 간이 주관하는 곳은 눈입니다. 간 기능이 활성화도면 눈에 정기가 감돌아 반짝반짝 빛이 나지만, 쇠약해지면 눈이 침침해지며 흰 자위가 노래지고 광채를 잃기 마련입니다. 이 외에도 간이 나빠지면 황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볼 때 그들의 피부가 누런 빛깔을 띠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반 이상이 망가져도 자각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거의 다 망가졌을 때야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미 그때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간에 좋은 음식은 △오디(뽕나무 열매)- 오래 먹으면 흰 머리가 검게 되고, 눈이 맑아집니다. △결명자- 간 기능을 좋게 해 눈을 밝게 하므로 차를 끓여 마시면 좋습니다. △매실- 간 기능을 보호해주지만, 그냥 먹기에는 많이 시어서 보통 술이나 농축액으로 만들어 물에 타 마시게 됩니다. △부추- 간의 채소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좋은 채소이지만, 불가에서는 오신채라 해서 금합니다. 앞선 칼럼에서 말씀드렸듯 그것은 잘못된 사상이므로 여기에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37수도장

불자정보 781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안내
● 위치 : 밀양시 지방 국도변
● 평수 : 약 200평
● 요사채 65평 1동(양옥)
● 법당 20평 1동(아미타 삼존불)
● 요양원 기도원 적합
● 스님, 법사님 적격
● 가액: 2억 2천만원(은행융자 7천만원포함), 전세도 가능(1억)
010-8675-8011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대로변 2층
● 실평수 35평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490만원
011-729-6011
032)614-6011

사찰(급)안내
● 위치 : 3호선 전철역 역세권
● 대지 100평, 건평 60평
● 한옥 포교당 운영하실분
● 종교용지, 주차 얼마든지 가능
● 사찰 건립터
● 가액 : 상담 후 결정
070-8834-6136
010-9284-6136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지하철 4호선 삼선교 7번출구 근처
● 평수 : 약 15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조절
● 시설완비. 몸만 오면 됨 즉시 법회 가능. 오래된 절
010-8527-6353

전원주택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매전면
● 토지: 1000평
● 건물 1층 40평, 2층 20평
● 조경과 잔디밭 너무 좋음
● 집앞에 강물이 흐르고 앞 뒤 에는 소나무 숲이 있음
● 완벽한 집, 그림 같은 집
● 가액: 3억 7천만원
011-9071-7713

사찰안내
● 위치: 구미터미널 최고중심지
● 법당 1, 화장실 2, 방 4
● 대지 평수 : 60평 슬라브 주택
● 가액 : 보증금 無. 월 30 만원 시설비 1천만원 (상담 후 조절)
● 법사. 보살님 등 상관없음
010-2499-3001

도심지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 최신시설
● 상담과 천도재 겸하고 있음
● 평수 : 약 60평. 삼존불, 탱화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8968-973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 위치 : A급 ● 법당시설완비
● 상담실1개, 방 1개
● 보증금 1천5백만원. 합 5600만원 (조절가능)
010-4416-1699

작은암자 및 사찰터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오래된 사찰이 있던 자리로
돌로된 미륵 보살님, 부처님, 산신이
모셔져있는 도량이 깊은 터.
바로옆 원천수 맑은 통암반 폭포접.
남향. 200년 된 소나무와 소나무숲
정자터 및 기도터.
삼면이 국유림으로 둘러쌓여 간섭이 없슴.
작은암자 및 사찰, 조용한별장지
적극 추천...
■ 1,200평 (1억 8천만원)
문의 017-422-6645
자세한 내용은 다음카페에서 [이땅]을치세요.

사찰대출안내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도와 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 62만원입니다 !
2 출장비,대출수수료,꺽기등이 일체없습니다 !
3 위약금없이 마음대로 갚고 다시 빌릴 수 있습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안내 ■
지 역 ☞ 전 국
형 식 ☞ 담보대출
금 액 ☞ 3천만 이상
금 리 ☞ 연7.2%~7.6%
기 간 ☞ 5년 (연장가능)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다구를 찾아서

11 포다법



다구는 차의 색 · 향기 · 미 드러나야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은 호주(濠州, 지금의 안휘성 봉양) 사람으로 가난한 소작인의 막내로 태어났다. 17세(1344)가 되던 해에 가뭄과 돌림병의 유행으로 부모와 형제들이 차례로 목숨을 잃자 부근의 황각사(皇覺寺)로 가서 승려가 됐고, 25세(1352) 에는 홍건적의 난에 대항해 거병한 곽자흥(郭子興)의 휘하로 투신했다. 1368년 국호를 대명(大明), 연호를 홍무(洪武)라 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주원장은 자신이 가난한 소작농 출신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려 애썼다.

특히 전대(前代)까지 연고차(硏膏茶)를 공납하던 것을 잎차로 바꿔 음다풍속이 크게 변화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심덕부(沈德符)는 <임금께 바치는 차(供御茶)>에서 "건국 초기 사방에서 바치던 차는 건령(푸젠성(福建省) 건구현)과 양선(장쑤성(江蘇省) 의흥현) 차의 품격을 으뜸으로 삼았다. 이때는 오히려 송대(宋代)의 법도를 그대로 따라 진상하는 것으로 모두 맷돌질하고 비벼서 크고 작은 용단차(龍團茶, 용무늬가 찍힌 덩어리차)를 만들었다. 홍무 24년(1391) 9월에 이르러 황제께서 백성들의 수고를 중히 여겨 용단차 만들기를 그만두게 하고 오직 찻 싹을 딴 채로 진상케 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황제의 령이 내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점다법(點茶法)이 사라지고 잎차를 우려 마시는 포다법(泡茶法)만 남은 것은 아니었다. 당대와 송대에도 단차와 잎차는 공존했지만 귀족들은 단차를 이용한 점다법을 선호했다. 귀족들이 기록의 주체였기 때문에 다서에서는 점다법이 주로 거론됐다. 황제의 칙령이 있었다고 해서 귀족들이 모두 잎차만을 마셨던 것도 아니었다. 명대와 청대에 씌여진 다서에 점다법이 계속해서 등장한 것을 보면 청대까지도 단차와 잎차는 공존했다.



명 영락무관 첨백삼번차호(明 永樂無款 甜白三繁茶壺). 대만고궁박물관 소장. 높이 11.0cm. 구경 4.0cm. 밑지름 12.8cm.

그리고 채다(採茶)시기에 있어서 송대 다서에는 경칩(3월 5일)에서 청명(4월 5일) 전후로 기록했는데 이것은 푸젠성(福建省) 건안의 북원차를 기준했기 때문이다. 명대의 다서에는 곡우(4월 20일)가 알맞다고 기록한 것은 저장성(浙江省)과 안후이성(安徽省)의 차를 기준 삼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명대의 채다시기는 조선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포다법이 성행하면서 다구(茶具)에 대한 미적, 실용적 기준이 바뀌었다. 차호는 차를 잘 우려내어 차의 색 · 향기 · 미를 드러낼 수 있는 형태와 재질을 찾아 연구했다. 찻잔은 우려낸 차의 탕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빛깔과 우려낸 차의 색향기미를 해치지 않는 재질을 찾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물중 하나로 영락제 시기의 백자를 꼽을 수 있다. 명 왕조는 경덕진(景德鎭, 강서성의 북동부에 위치)에 부량자국(浮梁瓷局)을 설치한 후, 홍무 2년 관요(官窯)를 만들어 제기 · 황실용 자기 · 수출용 자기를 제작했다. 경덕진에서는 백자뿐만 아니라 청화백자, 홍유(紅釉)와 유리홍(釉里紅)자기, 흑유(黑釉)자기 등도 생산했다. 특히 영락제(永樂帝, 1403~1424) 시기에 생산된 자기는 다른 시기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미감이 있다.

경덕진은 여러 왕조 동안 백자를 생산했지만 대부분 투박했다. 송대 백자는 백색 유약에 청색을 띠어 '청백자(靑白瓷)' 혹은 '영청자('影靑瓷)'라 불렸으며, 원대 백자는 청색이나 옅은 황색의 유약을 입혀 소성한 것으로 색감이 푹 삶은 오리알 같은 담청색이거나 계란 흰자와 같은 느낌이어서 '난백자(卵白瓷)'로 불렸다. 명대 영락제 시기의 백자는 '첨백자(甜白瓷)'라 불렀다.

'첨백자'란 태토의 입자가 작고 빛깔이 흰 백자를 일컫는 것으로 유약에서 나무와 비슷한 광택이 나며 색이 아주 곱고 윤이 난다. 송대 청백자가 투명하고 광택이 강해 다소 함축적인 감이 없다면, 원대 난백자는 조잡하고 둔해 보인다. 이에 반해 영락 첨백자는 윤이 나면서도 무게감이 느껴지고, 정교하면서도 함축적이어서 과거 어느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독특한 멋을 지니고 있다.

이 첨백삼번차호(甜白三繁茶壺)는 태토와 유약이 영락제시기의 전형적인 첨백자의 유형으로 명대 궁정에서 사용하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차호 전체에 무늬가 없고 호의 어깨에 장식으로 세 개의 고리가 있으며 손잡이는 대나무마디를 본떠 만들었다.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32 서운암 연못



태양의 길었던 여로의 끝은 4월의 작은 연못이었다. 마주친 행자의 눈빛처럼 연못은 그 아득한 태양을 찰나에 받아내고 있었고, 간밤에 물고기가 뒤쳐이던 자리엔 가지를 떠난 꽃잎들이 내려앉았다. 4월은 겨울을 잊은 연못 위에서 그렇게 반짝이고 있었다.

시선 하나가 연잎 위에서 한참을 머물다 떠났고, 적적해진 연잎 위로 또 다른 시선이 와서 머문다. 언젠가 만나야 할 인연이 이제 한 생을 즐이고 지나간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날까. 봄은 겨울이 떠나간 자리에 와있고, 인연은 인연이 떠나간 자리에 와 있었다. 붉은 물고기 하나가 연못 속에서 봄을 탄다.

옛 판화의 세계

신진언을 외우다 (天母護身)

삽화는 마리천 보살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판각하고 있다. 마리지천은 마리지보살이라고도 한다. 태양이 뜨기 전 신력(神力)을 갖는 천신이며, 병란의 재화를 당할 때 이름을 부르면 재난에서 구해준다고 한다. 마리지(摩利支) · 마리자 · 마리지보살 · 마리지제바라고도 하며, 양염(陽琰)이라고 번역한다. 산스크리트 'marici'의 음역이며, 의미는 형상을 볼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으며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는 뜻이다. 마리지천(Marici)은 원래 얼굴이 셋, 팔이 여덟 개인 형상(形狀)을 숨기고, 장애와 어려움을 없애 주면서 이익을 베풀어주는 천신(天神)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무사의 수호신이며, 전투에 지친 용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군신으로 아름답고도 강한 모습을 지닌 여천왕으로 묘사된다.

건염 2년 당주의 팔양위 이각은 오랑캐를 피해 달아나던 중 저승사자 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적힌 것을 알게 됐다. 이각은 저승사자에게 명부에서 빠져 나가는 방법을 물어보자 저승사자가 마리지보살 염송법을 알려준다.

"무슨 법으로 그것을 면할 수 있습니까? 지교를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마리지보살의 이름을 700번 두루 염송해 공중을 향해서 천조의 현인 성인들에게 회향할 수 있다면 사적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고 전쟁의 재액에서 면한다."

이에 이각이 절을 하고 사례를 올리자 그는 수레를 타고 그곳을 떠났다. 이때부터 이각은 그치지 않고 마리지보살의 이름을 송지 했더니 난을 면하게 됐다.

염송법에 이르기를 "나무석가모니불을 열 번 소리 내어 부르고 '나무마리지보살' 700번 소리 내어 부르라"고 했다. <최상심진언>에는 "옴 마리지 사바하를 700번 소리 내어 부르고 원상호아제자사바하(願常護我弟子娑縛賀) 부르라"라고 했다. 이러한 의식은 <불설마리지천보살다라니경(佛說摩利支天菩薩陀羅尼經)>을 외면서 각종 재난이 없어지기를 기원하는 불교의식인 마리지천도량(摩利支天道場) 의식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에 개설(開設)돼 병재(兵災) 예방의 목적으로 이용됐다.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천모호신(天母護身).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제천 금강사

불교여자전문대학 학생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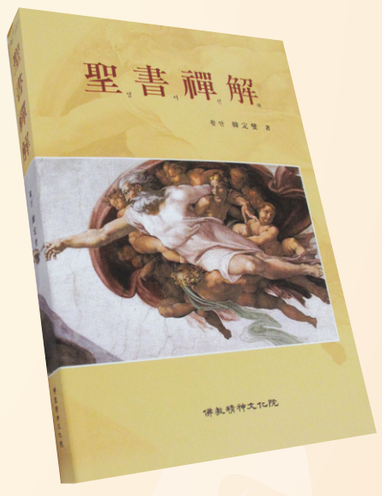
초발심자와 출가를 원하는 불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특히, 해외 포교 희망자와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들을 환영합니다.

◈ 교육내용

	내 용
불교교리	① 경(아함 · 방등 · 반야 · 법화 · 열반 · 화엄경) ② 율(4분율 · 5분율 ·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 계율) ③ 논(구사 · 유식 · 3론 · 기신론) ④ 선(위빠사나 · 명상 · 선 실습) ⑤ 포교론(군법당 · 교도소 등) ⑥ 밀교
불교의식	① 조석예불 · 종성기도 ② 불공 · 시식 ③ 송주 · 장엄염불 · 방생법회 ④ 승무(천수바라 · 공양무 등)
기타 교양강좌	외국어(영어회화) 꽃꽂이 · 다도 · 등공예

◈ 모집기간 : 2010년 4월 15일 ~
◈ 개강일자 : 2010년 6월 3일(수) 오전 10시 입학식
(입학식 후 금강경오가해 특강 - 불교TV 방송녹화)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목요일 오후 4시 (매주 12시간)
◈ 모집인원 : 약간명 (기숙사 완비)
◈ 강의장소 : 제천 금강사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 특 전 : 1년 ~ 2년 과정으로 포교사 · 전법사 자격증 획득
출가를 희망하는 분에게는 삭발 · 수계
◈ 교 수 : 활안 · 도기 · 정명스님을 비롯하여 국내외 저명한 학자와 각계 전문인들
◈ 문 의 :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원 ☎ 02)969-2410
제천 금강사 ☎ 043)646-3800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

성서선해(聖書禪解)



"진리는 하나이다. 그러나 현자들은
서로 다른 이름과 형태로 이를 설명한다."
- 힌두성전 우파니샤드

불경과 성경이 다 같이 우주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이 두 성전에 담겨있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없다.
오직 이 진리를 인간 지혜의 근기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말하고 해석했을 뿐이다.

"불경과 성경이 지난 수천년 동안 인류가 이에
의지하여 악을 그치고 선행을 해왔고,
어리석은 마음을 깨달아 지혜로운 삶을 개척해 왔다"
- 성서선해 머리말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께서는
기독교 성경을 선(禪)의 마음으로 읽고 그 뜻을 해석하셨다.

聖書禪解 · 편저: 활안 한정섭 / 발행처 : 불교정신문화원 / 318쪽 / 가격 : 15,000원

· 구입문의 : 02)969-2410 / 010-5611-0657



길을 묻는 이에게

제781호 현대불교
2010년 4월 28일(음 3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나조차도 공해서 없는 도리를 알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 천둥 번개가 쳤는데 말입니다, 귀머거리가 그거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천둥 번개 잘못이냐 귀머거리 잘못이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못 듣는 귀머거리 잘못이지 천둥 번개 잘못이 아니거든요. 왜냐? 귀머거리 아닌 사람은 천둥 번개가 쳤다고 그러고 귀머거리인 사람은 천둥 번개가 안 쳤다고 그러고 천둥 번개가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명을 해 주셨다 이겁니다. "야! 귀먹은 사람은 천둥 번개를 듣지 못하니 없다고 그럴 것이고 귀 안 먹은 사람은 천둥 번개를 쳤다고 할 것인데 그건 누가 잘못인가?" 그러고 귀머거리더러 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 탓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입니다."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똑같이는 내가 말 안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 용어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설하시다가도 끄트머리에 언제나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용도에 맞게 방편을 써도 좋고 시대가 바뀌어지는 대로 법을 바꾸는 것은 인간이 바꾸는 거지 다른 데서 바꾸는 게 아니니 시대에 맞춰서 그 계율을 바꾸어서 해도 좋으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지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하고 부처님 말씀을 경전에 쓴 것을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여러분한테 설한다면 이 시대하고는 동떨어진 얘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썼어도 용어를 바꾸어서 부처님 말씀의 그 뜻을 전달하는데, 이심전심으로 전달하는데 그게 진짜 가고 옴이 없이 갈 수 있게끔, 가슴에 와 닿을 수 있게끔 얘길 해 줘야 전 세계가 부처님 뜻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말입니다, 불교를 마구니 소굴로 알아요. 아이구 참 내, 기가 막혀서! 그래 내가 껄껄 웃었습니다. 껄껄 웃고 "당신네들 하나하나가 불교 아닌 게 없어." 그랬습니다. 어째서 그러냐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바로 불(佛)이야. 그래서 이 우주 삼라 대천세계의 돌아가는 것도 불바퀴, 당신네들이 말하는 블랙홀이야. 불성이, 그 불바퀴가 우리한테도 있어. 작은 거면 작은 것대로 큰 거면 큰 것대로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은 말 하는 것도 교(敎)다 이거야.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는데 당신네들이 불교를 어디 국한돼 있는 걸로 알아? 그리고 마구니로 알아? 당신네들이 미신짓을 하면 귀신이 있고 미신이 있는 거고 당신네들이 미신짓을 안 하면 미신은 없어. 이 세상에 작고 큰 것이 하나 버릴 게 없는 거를 알려면 하나도 가질 게 없는 걸 알아야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걸 알 수 있다. 어쩌면들 그렇게, 귀신짓은 너희가 다 하면서…, 나도 가톨릭에 입교해 봤다. 고해성사를 할 때 누구더러 고하느냐 이거야. 신부더러 고하지? 그런데 네가 사람을 죽이고 가서 고한다면 사람 죽인 그 자체의 네 마음이 지워지더냐 이거야.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사람 죽인 그 자체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거야. '아무 때 연분에 내가 이렇게 했지.' 하는 건 은근히, 아니 세세생생에 아마 자기가 잊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좋은 일을 해도 그렇고 나쁜 일을 해도. 그런데 누구한테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리고 타의에서 구하는 자는 자의를 찾지 못하고 발견하질 못해. 그런데 아니, 타의에다 모두, 자기가 잘못해 놓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곤 갖다가 거기다 맡겨? 맡긴다고 맡겨지는 줄 알아?" 그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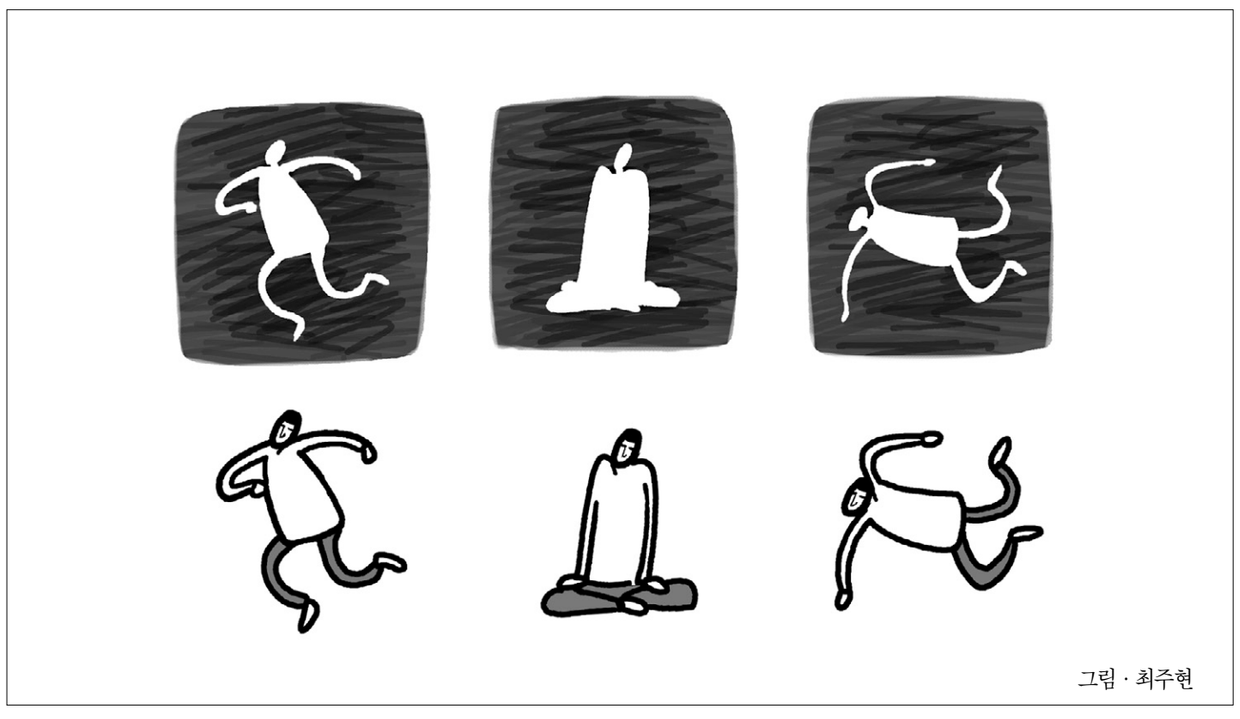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고 컴퓨터가 있다 이겁니다. 자동적인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는데 거기에 숙명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명통 천이통 천안통 또 타심통 신족통, 이 다섯 가지가 있죠. 그런데 내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죠. 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천체망원경 또는 팩스, 신족통 또는 타심통, 탐지기 또는 무전통신기, 천이통. 또 숙명통, 이거는 과거를 아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그럽니다. 숙명통! 이 다섯 가지를 그렇게 컴퓨터로 표현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거는 모두 부수적으로 네 가지가 붙어 있지만 숙명통에 의해서 컴퓨터다 이거예요. 그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부합이 되게끔 만드는 건 과거에 살던 하나하나가, 거기 속기로 쓰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빨리 거기에 입력이 된다 이겁니다. 금방금방 하는 대로 입력이 돼요. 지금도 입력이 되면 지금 현실에 살면서 그 입력된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입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돼 있는 그 자체를 다시 지금 현실에 나와서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닥치는 대로, 거기 입력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깐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해 넣는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한 구멍으로 나오는 거를 한 구멍에다 도로 놔라.' 하신 겁니다. '너희가 한 구멍에서 나와서 일체 만법을…, 일체 만물이 모두 살고 있고 또 한 구멍으로, 육근 육진 육식으로 인해서 이것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또 거기 한마음에서 다 나간다. 그러니 들어오고 나가는 고장이 한곳이거든, 한곳. 법륜 마크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법륜 마크가 바로 그 오신통 자체,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굴리고 사는 그것이 바로 법륜 마크예요. 여러분이 달고 다니지 않아도 벌써 사람만 봐도 그게 바로 법륜 마크거든요. 법바퀴란 말입니다, 모두. 여러분이 법바퀴예요.

그렇게 언짢은 거, 병고, 무슨 유전성, 모두 나오는 게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예이 이놈아, 영원한 친구야! 네가 거기에서 그렇게 전부 한 대로 지금 현재에 나오는 거니까 너 알아서 네놈이 다 해결해라.' 하곤 그냥 거기다 되놓는다면, 여러분! 카세트에 입력된 거를 한번 지워 보신 일이 있으시죠? 여기 다 있을 겁니다, 아마. 노래를 듣다 듣다 그게 진력이 나면 다른 노래를 거기다 넣느라고 지워 보셨죠?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요것이 좋다가도 언짢을 때가 있거든요. 언짢을 때 가차없이 그냥 거기다가 맡겨서 입력을 해 버리면 앞서 입력한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자 운명이 거기 왜 붙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팔자니 운명이니 무슨 병고니 하는 게 붙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 관습에 의해서, 나라는 아집에 의해서, 아상에 의해서, 아니 우리가 생각들 하는 게 전부 망상이라고 자칭하면서, 글쎄 망상이래요, 허허허…. 무슨 망상입니까? 그건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수련 대상입니다, 생각이 자꾸 나는 게. 그런데 그게 왜 망상입니까. 망상은 끊으려고 해 봐도, 여러분이 죽어도 망상은 끊지 못할 겁니다. 칼로 물 베기지 그게 끊어집니까? 그게 끊어진 뒤에 공부하시려고요? 어림 반 푼어치도 없죠. 용광로에다 헌 쇠니 새 쇠니 끊어진 거니, 그냥 모든 걸 갖다가 용광로 불 속에 넣으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서 새 쇠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산이 돼서 나온다는 생각을 말고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 넣기만 하라는 거죠.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는 걱정하지 말아야죠. 작업을 한 작업만 하면 두 작업 세 작업이 다 저절로 돼 나오는데 왜 한 작업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나라는 게 있고, 아집이라는 게 있고, 내가 안다는 게 있고, 내가 이게 옳다는 게 있고…. 그건 자기 그릇이죠. 종지도 제가 옳다고 그럽디다. "아니, 나도 한몫하는 사람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종지야, 너 뭐를 한몫하느냐?" 그러니까 "아, 간장 담을 때 한몫하잖아!" 그러거든요. 하나도 틀림없어요. 이 도리를 알려면 모든 것을, 나조차도 공해서 없는 도리를 알아라 이겁니다, 나조차도.

왜 무상하다고 하느냐. 부서지고 변해지고 죽고 또는 모두가, 이 물질적인 면에 있어선 하나도 그대로 있는 게 없어요. 인간도 그대로 있질 않아요. 내가 늙었을 때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젊었을 때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거든요. 네? 내가 했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해 줬다, 그리고 또 남이 잘못했으면 원망을 하고 증오하고 이러거든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지, 아니 자기가 안 나왔다면 그렇게 상대가 있을까요? 그러니 잘못했다 잘됐다를 떠나서 자기 탓으로 돌려라. 이게 바로 나 발견하는 데 아주 극치적으로 열반길을 그냥 걸어가는, 망상을 끊지 않고 그냥 열반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유가 붙지 않는 자리죠. 이유가 뭐가 붙습니까? 그르다 좋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이 붙

☞26면으로 계속

명상치유 (건강관리)

지구 테스트를 통해 불자님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무료)

▸ 체질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음식, 과일,차를 알고 먹을 수 있습니다.
▸ 생명수,기(氣) 두 가지중 한가지만 본인에게 드립니다.
▸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氣)를 넣어 드립니다.



음식+생명수+기(氣)=건강증진을 키워 드립니다.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분, 수술전이나 후 허약하신분, 치매, 암, 당뇨,고혈압, 아토피, 뇌졸증,심장병 천식,위장장애, 모든 요법으로 고치지 못한 분이나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허약한 사람은 건강하게 -
음식, 생명수, 기(氣)로 그날 변화를 직접 본인이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 스님,불자님 지구에 계시는 모든분 꼭 한번 찾아오세요
(예약은 7일 전에 해주세요)

약사(氣)선원
원장 김광호 합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572-4
■ 053) 568-7373 / 010-5672-7373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자 격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모든 재가불자

교유기간
전문반 1년 / 속성반 6개월

과 목
범 패 : 거불, 복청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작법
작법무 :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다라니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5시까지 (4시간)

강 사 진
영남범음범패(무형문화재 제9호) 이수자
• 교육원장 : 우암 스님
• 승무단장 : 성애 법사

교육장소
해동성취사 -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317-4

문 의
☎ 051)727-0859.0809 / 010-3004-0859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총무원장 혜 봉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비구, 비구니, 법사, 포교사님을 모십니다.
좋은 인연 되시길 바랍니다.

■ 입종서류 : 본종단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사진 4장, 법당 내외사진 각1장, 주민등록 앞 뒤 복사본.
(무속인 입종은 사양합니다)
■ 입종하시는 즉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각 지역별 종무원장 또는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들어오고 나가는 고장이 바로 한곳입니다

☞25면에서 계속

으면 벌써 이 공부 하긴 틀렸어요.

왜 우리가 또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보세요! 우리는 지금 미래의 정신세계의 노예가 돼서 어떻게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빈집으로서 노예 생활을 한다면, 이 지구라는 우리 집도 주인이 없으면 망가지게 돼 있고 우리 몸뚱이도 내 중심이 없고 주인이 없다면, 한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집도 망가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육(肉)을 부모한테 받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기 영혼이, 즉 말하자면 거기에 개입이 돼 가지고 어머니의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려서 한 몸을 받아 가지고선 자기 영혼이 자기 과거에 살던 업적 인과하고 같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합이 한데 합쳐지니깐 그걸 삼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신! 어머니의 신 아버지의 신 자기의 신, 이렇게 해서 삼신이 들어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삼신을 받는데 어디로 삼신을 받으러 다닙니까, 글쎄. 나 원 참!

공자님 어머님도 삼신을 받는데, 자기의 육신을, 살을 빌리고 우리 영감의 뼈를 빌려서 몸 하나를 이렇게 바칠 테니 좋은 영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6년 동안 기다리면서 아무리 골라 봐도 좋은 영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마 만날 지금의 유교처럼 믿고 불교는 숭상 안 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돌았던 모양입니다. 거기서도 그랬던 모양이죠, 그때 당시에. 6년째 다녀도 소식이 없으니까 '에이, 이깟 놈의 것! 뭐 내가 아무리 믿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선 포기했죠. 7년 만에 꿈을 꾸니까 그 산 부처님이 하는 소리가 "얘야, 네가 좋은 영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는 온통 고르느라고 내가 애를 쓰고 골라 봤는데 지금 7년 만에 그저 쓸 만한 영이 하나 들어왔으니 오너라." 이렇게 꿈에 나타난 겁니다.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이거든요. 마음으로 전달을 하니까 이심전심으로 그 사람 꿈으로다가 그냥 받은 거죠,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부랴사랴 부랴사랴 7년 만에 가서 임신이 된 것이 바로 공자님이시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살면서 자식을 낳기만 했다고 자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아마 손살피 더 잘 아실 겁니다. 자식의 인연을 갖는 것도 끼리끼리들 자식의 인연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차원이 높으면 차원이 높은 영가가 내 자식이 될 것이고, 또는 내 부모가 될 것이고, 만약에 차원이 낮으면, 장 종지라면 장 종지밖에 더 될 겁니까? 깡통은 깡통끼리 모이고 배는 배대로 모이고 사과는 사과대로 모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이고 지게꾼은 지게꾼대로 모이는데 지금은 지게꾼이 변해서 저 트럭 운전수들 있죠? 그이가 지게꾼이 돼 버렸죠. 그래 트럭 운전수에게 지금 지게꾼 노릇을 왜 안 하고 트럭 운전수를 하느냐고 항거한다면 그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부처님이 지게꾼 말씀을 하셨는데 왜 당신은 트럭 얘기를 하느냐고 날더러 이러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있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지게꾼 얘기를 하지 어째서 트럭 얘기를 하느냐 이 소리죠. 시대가 그만큼 변해서 그 지게꾼이 트럭 운전수가 됐는지도 모르고 지게꾼 얘기를 아무리 해 봐도 지게꾼은 지금 많이 없어져서 자라나는 사람들한텐 지게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하신 거를 지혜가 있으면 바꾸어서 써야죠.

어떤 스님께서 세 제자한테 금 한 덩어리씩 주면서 "야, 3년만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늘궈라." 그랬더니 그거 없어질까 봐 한 놈은 장 속에다 넣고 그냥 꼭꼭 싸 놓고 있고, 한 놈은 장사를 해서 기껏 늘쿠고 또 한 놈은 그걸 가지고서 이자를 놨고요. 그래서 불린 놈은 상을 받고 장 속에다가 꽁꽁 넣은 놈은 하나도 불지를 않고 그냥 고것만 가지고 있다가 상도 못 받았죠. 이런 이치가 있듯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셨어도 그 좋은 말씀을 응용해서 뜻을 잘 받들어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로구나 하고 알게끔 해 줘야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리요 불자요,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 된 본의도 있고 중 된 본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불자입니다, 나와 더불어 같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이 지수화풍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기 몸뚱이 감사한 줄도 알고 이 세상 모두…,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사대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 따로 또는 흙 따로, 바람 공기 따로, 모두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이고 불이고 바람이고 흙이고 다 따로 따로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우리가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 그러더군요. 그전에도 그런 말이 있고요. "산과 물이 둘이 아닌 까닭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고 한데 합쳐야 말이 되는 거죠.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한다면 한 가지가 좀 빠졌지만, 빠진 것도 없고 안 빠진 것도 없는 그런 도리를 말씀하셨겠죠.

그렇게 지수화풍으로 뭉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 바람도 공기도, 즉 말하자면 물도 불도 흙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따로따로. 그러니까 물은 물이요 바람은 바람이요 흙은 흙이요 불은 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데 합쳐졌으니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깐 모두가 한데 합쳐져서 벌어졌다가 오그라졌다 벌어졌다 오므라들었다 벌어졌다 오므라들었다 구르면서도 일 초도,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지금 돌아가는 이치가 바로 그런 도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도리를 모른대서야…. 우리는 지금 미래의 세계, 그 정신세계에서도 악조건이 있고, 선으로 모든 중생을 건져 줄 수 있는, 옥황상제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것도 각을 이룬, 이 오온의 모두를 책임을 지고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를 연등부처다 이럽니다. 연등부처. 마음의 부처, 이 밝은 마음이 연등이죠.

내 마음에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생각을 좋게 하는 것이 인등이에요, 인등! 이거는 쉬지 않고 인등을 켤 수가 있는 거지만, 아니 꼬리표 붙여 놓은 거는 백 일이나 그렇게 붙여 놓으면, 그러고도 또 자기의 힘도 안 들이고 돈 몇 푼 내면 전기로다가 그냥 켜는 거죠. 여러분을 그렇게 우룽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좀 개심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으로써 이름을 지어 놓노라. 동방에는 아촉이요 서방에는 아미타니라. 이 사바세계는 관세음이니라. 지천국에는 지장이니라." 이 모든 것을 한 부처님의 마음속에서 그 이름을, 아버지가 큰아들은 아무개고 둘째 아들은 아무개고 이렇게 이름 지어 놓은 거와 똑같이 그 이세의,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 놓은 거죠. 그런 거와 같이 부처님의 마음은 그렇기에 석존을 모셔 놓고 삼불을 모셔 놨습니다. 이 불은 바로 변함도 없고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 그 불기둥을 말한 것이고 바로 마음을 낸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수는. 그러니 이분의 마음이고 이분의 행하는 생각입니다, 법이. 문수는 부처님의 법신이요, 또 보현은 바로 법신의 직속 화신이다 이겁니다, 보현이. 그러니까 움죽거리는 거와 생각하는 거와 생각을 낼 수 있는 힘, 불기둥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양쪽을 두 팔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여기 놓고 빌고 저기 놓고 빌고 저기 놓고 빌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 벌어서 신중당에 놓고 또는 칠성당에 놓고 지장 부처님에 놓고, 또는 약사보살한테 놓고 용신한테 놓고 독성한테 놓고, 이것 놓고 저것 놓고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닿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안 놓고 가면 마음이 꺼림칙해서 그거를 요리 벼르고 저리 별러서 요기 놓고 저기 놓고 요리 놓고 조리 놓고 해서 그 마음이 요리 변하고 조리 변하고 요리 변하고 조리 변하고. 자기의 마음은 언제 발견합니까, 네? 한 푼이든지 두 푼이 되든지 한 군데 탁 놓고 이 세상에 벌어진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고 맡기면 그 밑의 부하들이 다 하고 위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모두 공부들을 하셔야 정말이지 49년 설하신 그 부처님의 불제자가 될 것이고 정말이지 만물의 영장이 될 것이고 또는 삶의 보람을 느끼니까, 즉 말하자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그 뒤에는 '공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남편이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온통 사위가 됐다가 이러다 보니까 어떤 거 될 때 나라고 할 수가 없네.' 이런 때, 그 도리를 알 때 여러분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기침하심)

내가 이러고 있을 때 '저이는 뭔 소리를 하는지….' 끝날 때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저이가 얼른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고. 하하하…. '웬 말이 저렇게 많은가?' 하고요. 그런데 나는요, 우리 스님네들은 내가 기침을 하거나 뭐 사래가 들리거나 이래도 '아이고, 저분이 목을 저거 해서 오래 살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선 걱정합니다. 근데 나는 이런 걸 가르칩니다. 이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심고, 하고, 그 본(本) 제 나무에서 실과가 열리게 하고 무르익게 해서 맛있는 실과가 돼서, 여러분에게 처치무룡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와서 하나라도 사 가면 만 가지 맛이 날 수 있는 그런 실과가 돼라 이 소립니다. 그래서 도매상에서 와서 가져가면 가져갔지 소매로 팔진 마라. 허허허…. 그 얼마나 가난한 일이냐. 그러니 그저 제 나무에서 무르익은 실과가 돼야 된다 이 겁니다.

이 불교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불교는 어느 교에 가도 둥글고 너무 대의적인 묘법이기 때문에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 생각이 없는 거든지 생각이 있는 거든지 모든 것을 합의해서 돌아가는 거를 말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것은 부정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모가 나서는 안 되니까 그저 주위에서 어떠한 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하, 이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벌써 내 주인공에서 저절로 통해 가지고 나를 치는구나. 둥글게 치는구나. 아하, 이건 네 탓이지, 네놈 탓이지 딴 놈 탓이 아니로구나.' 이러고 제 탓으로 돌려야죠. 그런데 이거는 바깥에서 "저 놈이 그래? 정말 그랬어? 이놈 두고 보자." 요러고 가거든요. 그러니 자기 무의 세계 정신세계에서는 한 치도 내다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자기 그릇에서 생각하지 말고 모자라는 걸 봤을 때는 '아하, 내가 미생물에서부터 거쳐 나오면서 수없는 진화를 하면서 쫓고 쫓겼는데 내가 어떤 거는 되지 않았으리. 저거는 모자랄 때 내 모습이구나.' 또 참 저거 하는 사람을 볼 때 '아하, 저것도 바로 내 주인공의, 나를 이끌고 다니는 주인공의 모습이야. 모든 게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아픔 아닌 게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구나.' 이게 실감 안 날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부처님이 그 수많은 해골바가지가 있는 데 가서 큰절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수십 명이 따라가다 가만히 보니까 그러고 계시거든요. "사생자부이신 어버이신데 어찌 그 하치않은 뼈다귀에다가 큰절을 하십니까?" 하고 한탄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싱긋이 웃으시면서 "얘들아,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면서 쫓고 쫓기고 올라오면서 어찌 내 부모 아닌 게 있었겠니. 그리고 내 자식 아닌 게 어디 있었겠니. 내 형제 아님이 어디 있었겠니. 그러니 저 해골이 내 어머니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내 할아버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내 어머니도 될 수 있고 내 자식의 해골도 될 수 있고 형제의 해골도 될 수 있느니라." 그때에 "이 심오한 뜻을 미처 몰랐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전부 엎드려서 울었단 말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이 얘기 하다가 그 말을 한 거를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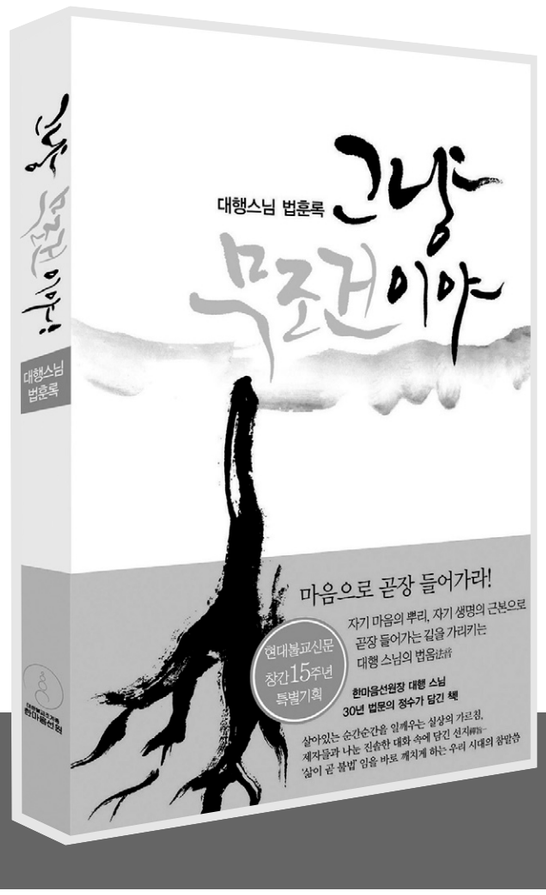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으니 내 부모한테다 그렇게 못했으면 남의 부모한테라도, 그것이 언제 적에, 언제 어디에서 그 노인네가 내 부모가 돼 있었을는지도 모르고 내 자식이 됐었을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 남의 부모를 보더라도, 남의 노인을 보더라도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론 항상 내 부모같이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무심 도리이며 무주상 보시입니다. 또는 물질이 조금 있어서 저거 할 때,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할 때, 학자금을 못 내서 부모가 아플 때 '저게 바로 내 아픔이었지. 아니, 저것도 바로 내 자식이야.' 그럴 때 학자금을 내 줄 수 있는 그 아량과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우님들 저기 해 놓은 것도요, 전부 그 안에서 학자금 못 내고 가난하거나 이런 거, 또 취직을 못해서 애를 쓰고 그러는 사람, 서로 돌봐 주면서 서로 학자금을 내 주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심으로나 무심으로나 또는 무심 도리나 유심 도리나 우리가 행하는 것이, 생시에 사는 것이 꿈이요 꿈도 생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게 전부 꿈이에요. 우리는 잠시잠깐 캠핑 왔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와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상하다 이겁니다.

그저 제 나무에서 실과가 열리고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이 나는 실과가 돼야 합니다

※위 법문은 1991년 4월 28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불자 세상보기

이도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불교, 이제 홀로 서야 할 때다

지금 봉은사 문제를 놓고 말들이 많다. 본질을 호도하고 싶은 사람이 불교계나 정치계에 꽤 많은 모양인데, 핵심은 MB 정권의 불교탄압과 불교의 정치적 독립이다. 어찌 정교분리가 대원칙이자 상식이 된 20세기도 넘어선 21세기에 중세적 퇴행이 이루어졌는가.

1차적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 MB정권은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활짝 열어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였고, 22조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강물을 썩히고 홍수 등 재앙이 우려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비판과 저항이 필연적인데 이를 쳐저히 봉쇄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그 비판이 불교계에서도 전개되자 스님을 좌파로 매도하고 스님의 말씀에 재갈을 물리려 한 것이다. 당사자가 사퇴함은 물론, 정부는 이 기회에 모든 종교 및 불교문화재에 지원하는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기에 권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종교 탄압이나 간섭을 고문처럼 근대 국가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불교계도 이참에 자성할 점이 많다. 필자보고 현재 한국 불교의 문제점을 두 가지만 뽑으라면, 정치적 종속과 사회적 실천의 결여다. 그 찬란하던 인도불교가 사라진 것도 바로 이 점에 있으니, 이번 기회에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불교 또한 50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

미국의 힘을 업고 개신교는 짧은 시간에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였다. 반면에, 유구한 역사를 가진 불교는 개신교에 차츰 밀리다가 10 · 27 법난까지 당하고, 열혈 개신교도 대통령을 맞아 숱한 수모를 당하더니 이제는 정부측 인사가 종단의 일을 좌지우지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원효와 의상, 지눌을 낳고 석굴암과 불국사를 조성하고 간화선의 전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한국불교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문제는 종단에 있다. 종단은 정권과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정권이 간섭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 이유는 돈과 권력이다. 정권은 신도들의 지지가 필요하였고, 종단은 정권이 던져주는 '떡고물'과 힘을 원하였다. 그 때문에 군홧발에 짓밟히는 수모를 겪고도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였고 20년이나 지나서야 진상규명에 나섰다. 이제 이 유착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리 하려면 종단 개혁이 우선이다. 정권에 맞서서 불교의 가치와 조계종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종교적 권리와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 종단을 구성하도록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며, 종단과 절에서 들고 나는 모든 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스님들도 탁발과 무소유 정신을 다시 확고히 해야 한다. 석가모니께서는 스님들에게 동냥을 하여 빌어먹을 것이요 소유할 것은 발우와 가사 세 벌이며 이 또한 다른 승려에게 넘겨주라 일렀으며, 스스로 매일 탁발을 다니셨다. 탁발은 나의 교만과 아집을 버리는 길이요, 무소유를 실천하는 삶이자, 보시하는 이의 복덕을 길러주는 공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이후 사찰에도 시장과 자본의 유령이 깊이 스며들었다. 수십억 원의 돈이 절집에 넘쳐나 대형불사를 못하여 안달이고, 주지스님이 땅장사와 사찰 특산품 장사꾼으로 전락한 절도 많다. 스님이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갖는다면, 절은 더 이상 절이 아니다.

유마거사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고 했다. 게송에 "저 아름다운 연꽃이 향기 욱연한 높은 언덕에 피지 않는 것과 같이 반야의 바다를 완전히 갖추었어도 열반의 성에 머무르지 않으며,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 무량한 겁 동안 온갖 번뇌를 버리지 않고 세간을 구제한 뒤에 열반을 얻는다" 했다. 내가 깨달아 부처가 되었어도 중생을 구제하고서야 진정 부처가 된다는 말이다.

지금 무진장의 고통 속에 있는 중생과 생명들을 외면하고 절 안에만 머무를 때, 그 불교는 이미 죽은 종교요, 그 스님은 부처되기를 멈춘 한낱 직업인에 지나지 않는다.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라 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정부나 문중의 눈치를 살피는데 만족할 것인가. No라고 말해야 할 때 주저하는 순간 주인은 노예가 된다.



사부대중 칼럼

김호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음력 사월 초파일을 앞두고 모든 불자와 사찰은 참 분주하다. 부처님오신날이기 때문이란다. 왜 그렇게 바빠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지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인가. 그 날은 언제인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는 한 것인가. 모두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믿고 또한 믿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작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것보다 부처님이 나 자신에게 온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오셨다고들 하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단지 부처님 당신의 탄생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부처님이 오신 날이라면 아무래도 나 자신이 부처님의 존재를 믿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처님은 언제나 오신 날이어야 하고 어디에나 오신 곳이어야 하며 누구에게나 오신 존재여야 한다.

그 날을 사월 초파일로 설정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1년 가운데 가장 좋은 달이고, 한 달 가운데 가장 기운이 창성하고 좋은 날이다. 적어도 우리에게 부처님은 그런 길상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 분으로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처님의 탄생의 월일과 출가의 월일과 깨침의 월일은 모두 좋은 달과 좋은 날일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모습은 언제나 좋은 시운과 좋은 장소를 택하여 완벽한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이상 좋은 날이 없고 더 이상 좋은 곳이 없으며 더 이상 좋은 운수일 수가 없다. 늘상 우리에게 부처님은 그런 존재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그렇지 못한 출생을 지니고 살아가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머나먼 동경의 대상일 뿐이다. 정작 자신은 부처님으로부터 아득히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아예 그런 모습으로 흉내 내거나 닮아가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자격지심은 스스로 자신을 중생 속에 가두어버리고 부처가 되기를 일부러 부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자신 스스로가 일찍이 부처님이 개척해 놓은 보편적인 가르침의 길을 애써 모르는 척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반성해볼 일이다.

이에 사월 초파일은 오히려 부처님의 완벽한 탄생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출생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야말로 정작 부처님오신날을 설정하는데 있어 애써 좋은 월일과 좋은 곳과 좋은 의미에 비유한 뜻에 한걸음 다가가는 길이다. 부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일찍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부처님의 탄생게 내지 강탄게라 불리는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 삼계개고(三界皆苦) 오당안지(吾當安之)'가 그것이다. 중생 모두가 세상에 나온 까닭은 부처님이 오신 뜻과 다를 바가 없다는 자각을 통해서 중생 각자가 세속을 초월한 자신의 존귀성을 갈파한 말임을 보여준 것이다. 때문에 이것은 온 우주의 중생이 윤회하는 육도세계를 초월한 존재라는 종교적인 믿음과 함께 그 초월을 획득한 자각임을 나타낸 주체선언이기도 하다.

이야말로 부처님의 생명이 일체중생의 생명이고 더불어 자신의 생명임을 자각하라는 의미이다. 이 도리를 자각하는 찰나 더 이상 일체중생의 고통이 중생들만의 고통이 아니다. 중생의 고통은 부처님의 고통이고 또한 자신의 고통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자각은 중생에 대한 자각이고 부처에 대한 자각이며, 부처에 대한 자각은 중생에 대한 자각이고 자신에 대한 자각이며, 중생에 대한 자각은 자신에 대한 자각이고 부처에 대한 자각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깨침은 부처와 중생에 대한 깨침이고 부처와 중생에 대한 깨침은 자신에 대한 깨침이다. 그것을 자각하는 날이야말로 자신의 발보리심으로서 진정 부처님오신날이 아니겠는가.

사 설

대법원의 강의석 판결을 환영한다

종교재단이 세운 학교일지라도 종교교육을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대광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시위를 한 이유로 퇴학당한 강의석씨가 대광고등학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교계 학교가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 교양 수준을 넘어선 특정종파 교육을 할 때에는 허용 한도가 있다"고 판결하고,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 △충분한 사전 설명과 학생들의 동의 여부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기준에 비춰 대광고는 교육부 고시와 달리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았고, 학생의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는 등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많은 개신교계 사립학교에서 오래도록 관행으로 굳어져 행해지고 있는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제어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번 판결이 대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사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공공성을 띤 기관에서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삼아 종교편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 · 감독청의 책임을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가 밝혔듯 대광고는 종교과목을 대체할 과목을 개설하지 않았고, 특정종교의 종교교육을 하며 학생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관리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관리 · 감독청이 교육부 고시를 지키도록 감독만 했어도 오래도록 학생들이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당하는 피해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일부 개신교계에서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의 사무국장이 "학교 정원 전부를 지원자로 채우면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령 전면적인 고교 지원제가 도입된다 해도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여럿이다. 따라서 그 학교를 지원했다고 해서 특정한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교교육이라고 이름붙인 만큼 학생들을 특정종교의 신자로 만드는 것은 종교교육이 아니라 선교행위다. 종교기관이 학교를 설립했다고 해서 학생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일임에도 정원을 지원자로 채우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당국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여러 종교와 종교 현상에 대한 이해 등 종교교육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학교는 설립 주체가 누구냐를 가리지 않고 공공의 자산이다. 정부 예산도 투여된다. 따라서 특정종교의 교리가 우선되기보다는 공공성과 교육의 보편적 가치가 구현되어야 하는 장이다. 특히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외면해온 종교인권과 10대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진일보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장척사
  주 지 : 법 민 (속명 : 김수중)
  주 소 : 경북 경주시 산내면 일부리
- 사찰명 : 법혜사
  주 지 : 법 원 (속명 : 장운경)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533-5호
- 사찰명 : 신흥암
  주 지 : 보 선 (속명 : 이성환)
  주 소 :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115번지
- 사찰명 : 선광사
  주 지 : 도 봉 (속명 : 황민국)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98-16
- 사찰명 : 청룡사
  주 지 : 일 도
  주 소 : 경북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
- 사찰명 : 원광사
  주 지 : 선 진 (속명 : 김선진)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18
- 사찰명 : 명성암
  주 지 : 지 정 (속명 : 박명규)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 415-1
- 사찰명 : 동광사
  주 지 : 혜 암 (속명 : 정순자)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구월4동 1240-8
- 사찰명 : 지심사
  주 지 : 지 암 (속명 : 김철회)
  주 소 :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562-10번지
- 사찰명 : 혜원사
  주 지 : 혜 지 (속명 : 박은주)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17-21
- 사찰명 : 법혜사
  주 지 : 혜 안 (속명 : 김명리)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533-5호
- 사찰명 : 수련사
  주 지 : 경 진 (속명 : 이미화)
  주 소 : 전남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 150-1번지

위 사찰과 위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8일

한국불교원광종 총무원장 법하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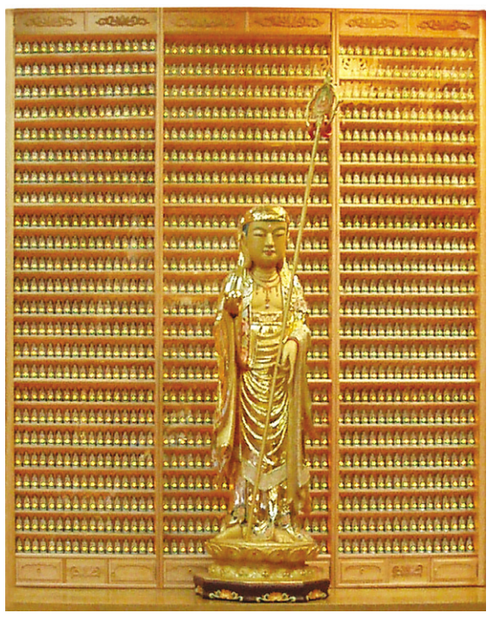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아름다운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앙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재, 천도재, 예수재, 기도 백팔번뇌, 옴 마니 반메 훔,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판 양장 / 352쪽 / 값9,500원



왕초보, 천수경 박사 되다
불교의 기초에서 깨달음까지! 쉽고 다양한 현대적 해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28쪽 / 값9,500원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04쪽 / 값9,500원



왕초보, 禪박사 되다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는 어떻게 참구하는가? 화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윤창화 지음 / 46판 양장 / 424쪽 / 값11,000원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판 양장 / 278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교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민족사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